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가정학 박사학위 논문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맞벌이가족  
자녀의 일상생활과 가족 레질리언스에  
대한 질적분석

A Qualitative Analysis of the Daily Life and  
Family Resilience of Children of Working Families,  
Who Use “Together Care Centers”

울산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  
임수영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맞벌이가족  
자녀의 일상생활과 가족 레질리언스에  
대한 질적분석

A Qualitative Analysis of the Daily Life and  
Family Resilience of Children of Working Families,  
Who Use “Together Care Centers”

지도교수 정민자

이 논문을 가정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7월

울산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  
임수영

임수영의 가정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송혜림



심사위원 고영삼



심사위원 박수경



심사위원 허은정



심사위원 정민자



울산대학교 대학원

2024년 7월



# 목 차

<감사의 글>

<국문초록>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문제 .....	5
II. 이론적 배경 .....	6
1. 초등아동기 아동발달 및 돌봄공백 실태 .....	6
1) 초등아동기 아동발달 .....	6
2) 초등아동기 돌봄공백 .....	7
2. 초등돌봄의 실태와 정책 동향 .....	9
1) 돌봄 및 초등돌봄 실태 .....	9
2) 초등돌봄의 정책 동향 .....	12
3. 다함께돌봄센터의 이해 .....	20
1) 다함께돌봄센터의 추진배경 .....	20
2) 다함께돌봄센터의 추진체계 .....	21
3) 다함께돌봄센터의 추진현황 .....	22
4) 다함께돌봄센터의 돌봄 프로그램 .....	24
4. 일상생활 .....	27
1) 일상생활의 개념 .....	27
2) 학생들의 일상생활 연구 .....	29
3) 초등학교 아동의 일상생활 연구 .....	30
5. 가족 레질리언스 .....	32
1) 가족 레질리언스의 개념 .....	32
2) 가족 레질리언스의 하위요인 .....	34

(1) 가족신념체계 .....	35
(2) 조직유형 .....	36
(3) 의사소통과정 .....	37
3) 가족 레질리언스의 선행연구 고찰 .....	38
<b>Ⅲ. 연구 방법 .....</b>	<b>40</b>
1. 합의적 질적 연구 .....	40
2. 연구참여자 .....	42
3. 자료 수집 .....	44
4. 자료 분석 절차 및 방법 .....	44
5. 연구 절차에 대한 평가 .....	46
<b>Ⅳ. 연구 결과 .....</b>	<b>47</b>
1.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의 일상생활 분석 .....	47
2.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의 가족 레질리언스 .....	74
1) 위기경험 .....	74
2) 가족 레질리언스 하위요인 .....	81
(1) 가족신념체계 .....	81
(2) 조직유형 .....	88
(3) 의사소통과정 .....	97
3. 다함께돌봄센터 돌봄 프로그램 분석 .....	103
<b>Ⅴ. 결론 및 논의 .....</b>	<b>106</b>
1. 결론 및 논의 .....	106
2. 제언 .....	112
참고문헌 .....	113
부    록 .....	123
Abstract .....	128

## 표 목 차

〈표 1〉 2022학년도 온종일돌봄(초등돌봄) 현황 .....	12
〈표 2〉 개인활동' 및 '단체활동' 프로그램 유형 및 내용 .....	13
〈표 3〉 전국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현황 .....	14
〈표 4〉 지역아동센터 기본 프로그램 .....	15
〈표 5〉 다함께돌봄센터 돌봄 프로그램 .....	18
〈표 6〉 다함께돌봄센터 돌봄 프로그램 .....	25
〈표 7〉 다함께돌봄센터 학년별 돌봄 프로그램 .....	26
〈표 8〉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	43
〈표 9-1〉 아동 A의 주중 일과표 .....	48
〈표 9-2〉 아동 A의 주말 일과표 .....	48
〈표 10-1〉 아동 B의 주중 일과표 .....	49
〈표 10-2〉 아동 B의 주말 일과표 .....	50
〈표 11-1〉 아동 C의 주중 일과표 .....	51
〈표 11-2〉 아동 C의 주말 일과표 .....	51
〈표 12-1〉 아동 D의 주중 일과표 .....	52
〈표 12-2〉 아동 D의 주말 일과표 .....	52
〈표 13-1〉 아동 E의 주중 일과표 .....	53
〈표 13-2〉 아동 E의 주말 일과표 .....	53
〈표 14-1〉 아동 F의 주중 일과표 .....	54
〈표 14-2〉 아동 F의 주말 일과표 .....	55
〈표 15-1〉 아동 G의 주중 일과표 .....	56
〈표 15-2〉 아동 G의 주말 일과표 .....	56
〈표 16-1〉 아동 H의 주중 일과표 .....	57
〈표 16-2〉 아동 H의 주말 일과표 .....	57
〈표 17-1〉 아동 I의 주중 일과표 .....	58
〈표 17-2〉 아동 I의 주말 일과표 .....	59
〈표 18-1〉 아동 J의 주중 일과표 .....	60
〈표 18-2〉 아동 J의 주말 일과표 .....	60
〈표 19-1〉 아동 K의 주중 일과표 .....	61
〈표 19-2〉 아동 K의 주말 일과표 .....	61
〈표 20-1〉 아동 L의 주중 일과표 .....	62
〈표 20-2〉 아동 L의 주말 일과표 .....	63
〈표 21-1〉 아동 M의 주중 일과표 .....	64
〈표 21-2〉 아동 M의 주말 일과표 .....	64

<표 22-1> 아동 N의 주중 일과표 .....	65
<표 22-2> 아동 N의 주말 일과표 .....	65
<표 23-1> 아동 O의 주중 일과표 .....	66
<표 23-2> 아동 O의 주말 일과표 .....	66
<표 24-1> 아동 P의 주중 일과표 .....	67
<표 24-2> 아동 P의 주말 일과표 .....	68
<표 25-1> 아동 Q의 주중 일과표 .....	69
<표 25-2> 아동 Q의 주말 일과표 .....	69
<표 26-1> 아동 R의 주중 일과표 .....	70
<표 26-2> 아동 R의 주말 일과표 .....	70
<표 27-1> 아동 S의 주중 일과표 .....	71
<표 27-2> 아동 S의 주말 일과표 .....	71
<표 28-1> 아동 T의 주중 일과표 .....	72
<표 28-2> 아동 T의 주말 일과표 .....	72
<표 29> 위기 경험 - 부모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 .....	74
<표 30> 위기 경험 - 부모의 관계로 인한 어려움 .....	76
<표 31> 위기 경험 - 가족 내 다양한 갈등 .....	77
<표 32> 위기 경험 -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 .....	78
<표 33> 위기 경험 .....	79
<표 34> 가족신념체계 -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	81
<표 35> 가족신념체계 - 긍정적 시각 .....	83
<표 36> 가족신념체계 - 영성관련 .....	85
<표 37> 가족신념체계 - 역할 모델과 삶의 영웅 .....	86
<표 38> 가족신념체계 : 초월과 영성 - 역할 모델과 삶의 영웅 .....	87
<표 39> 조직유형 - 융통성 - 규칙·약속 및 역할 안정성 .....	88
<표 40> 조직유형 - 융통성 - 규칙·약속 및 역할 안정성 .....	89
<표 41> 조직유형 - 융통성 - 변화와 적응 .....	90
<표 42> 조직유형 - 융통성 - 변화와 적응 .....	91
<표 43> 조직유형 : 융통성 - 연합과 분리의 균형 .....	92
<표 44> 조직유형 : 융통성 - 연합과 분리의 균형 .....	92
<표 45> 조직유형 : 융통성 - 가족 내 리더십 공유 .....	93
<표 46> 조직유형 : 융통성 - 가족 내 리더십 공유 .....	94
<표 47> 사회 및 경제적 자원 .....	94
<표 48> 사회 및 경제적 자원 .....	96
<표 49> 의사소통과정 : 명료성 .....	97
<표 50> 의사소통과정 : 명료성 .....	98
<표 51> 의사소통과정 : 개방적 정서표현 .....	99

<표 52> 의사소통과정 : 개방적 정서표현 .....	99
<표 53> 의사소통과정 : 상호 협력적 문제해결 .....	100
<표 54> 의사소통과정 : 상호 협력적 문제해결 .....	100
<표 55> 지역사회 기반 돌봄서비스의 특성 비교 .....	104

## 그림 목 차

[그림 1] 자녀돌봄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평일시간대(복수응답) .....	10
[그림 2]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및 가정형태별 이용아동 현황 .....	15
[그림 3] 다함께돌봄센터 추진체계 .....	21
[그림 4-1] 다함께돌봄센터 연도별 센터 설치 현황 .....	24
[그림 4-2] 다함께돌봄센터 가정 특성별 이용 아동 현황 .....	24
[그림 5] 합의적 질적 연구의 단계 .....	42

## 감사의 글

칠혹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 헤매던 저에게, 이 논문은 그 빛의 존재를 증명하는 소중한 결과물입니다.

먼저, 이 논문을 완성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중에서도 지도교수님께 가장 큰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항상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정민자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고, 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주심에 논문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지도 아래에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큰 행운이었으며, 앞으로도 교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논문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송혜립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진심 어린 조언과 격려해주신 고영삼 교수님, 논문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허은정 교수님, 박수경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저의 힘의 원천인 부모님, 임종성님, 노신자님, 그리고 언니 임수경, 동생 임성호, 가족에게 깊은 사랑과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항상 지지해 주시고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힘든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족 덕분에 길었던 여정과 어려운 순간을 극복하여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모의 박사 논문이 나오는 날을 누구보다 기다리고 응원해준 우리 보물 이채민, 이윤건, 고맙고, 사랑합니다. 가족의 응원과 사랑은 제게 큰 힘이 되었고, 논문을 완성함에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을 완성하기까지 함께한 동기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만 이렇게 힘든 건가 하며 자책했던 순간들에 진심으로 마음 다해 고민해주신 장정문, 박혜숙, 손인욱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업무와 병행할 수 있게 배려해 준 동료(남구아도리)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각자의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제가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주는 것은 물론 조언과 격려는 너무 따뜻했습니다. 끝까지 믿고 함께해 준 팀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과정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가족, 서준, 그리고 독수리오형제, 친구, 동료, 동기, 동문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학문의 여정에서 배움에 깊이를 더한 만큼 앞으로 배워야 할 것이 더 많음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7월 임 수 영 올림

# 국 문 초 록

##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맞벌이가족 자녀의 일상생활과 가족 레질리언스에 대한 질적분석

아동가정복지학 전공 이수영  
지도교수 정민자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학령기 아동의 방과 후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고 있지만, 초등돌봄서비스의 공급이 부족하여 많은 아동이 방과 후에 보호자 없이 혼자 지내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돌봄 공백은 아동의 안전사고 및 범죄 노출 위험을 증가시키며, 여성의 경력단절과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돌봄 공백이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변화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여 맞벌이 가구 초등생 자녀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기존의 지역아동센터가 취약계층 아동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는 다르게 맞벌이 가구 자녀들의 돌봄 공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보편적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방과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일상성을 보장하는 센터의 기능이 강조된다.

특히,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의 절반 이상이 돌봄 공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의 심리·정서적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가족의 해체나 부모의 맞벌이로 인해 성장과 성숙의 과정에서 충분한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면, 성장 과정에서 심리적 어려움과 외로움에 직면할 수 있다. 가족은 아동의 정서적 지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높은 가족 레질리언스는 스트레스나 역경에 대응하고 긍정적인 성장을 도와 아동의 문제 행동을 예방하고 건강한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 가족 자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가족의 지원과 협력 없이는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이에 가족 레질리언스 접근을 강화함으로써 다함께돌봄센터의 서비스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해 맞벌이 가구의 자녀가 스트레스나 역경에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아동이 속한 가족의 강점과 역량을 발견하고, 센터의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맞벌이 자녀의 돌봄 공백을 메우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맞벌이 가족 자녀의 일상생활, 가족 레질리언스와 돌봄 프로그램을 분석함으로써 맞벌이 가족 아동의 일상생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가족 레질리언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또한, 맞벌이 가족 자녀가 가지는 어려움을 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센터에서 제공되는 돌봄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맞벌이가정 아동에게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맞벌이 가족의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맞벌이 가족 자녀의 일상생활과 가족 레질리언스를 분석함으로써 돌봄 공백이 가족 레질리언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며 가족 레질리언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나아가 맞벌이 가족 자녀가 가지는 어려움을 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센터에서 제공되는 돌봄 프로그램을 확인하여 맞벌이가정 아동에게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합의적 질적 연구의 방법으로 초기 단계, 사례분석, 교차분석, 원고 작성으로 절차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경우 울산광역시 내 다함께돌봄센터 2곳을 선정하고,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충족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 20명과 돌봄교사 2명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에 관한 심층 면접은 2023년 6월 12일부터~30일까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맞벌이 가족 자녀의 일상생활, 가족 레질리언스, 돌봄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론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일상생활을 가정, 학교, 다함께돌봄센터 및 학원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들의 보호 체계와 돌봄 공백을 확인하였다. 아동이 방치되는 시간을 분석한 결과, 평일의 경우 부모가 부재하며 다른 보호 체계로 대체하는 시간은 평일 (평균)11.3시간, 주말 5.4시간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인 아동은 부모의 퇴근 시간까지 주로 형제자매, 조부모,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아이돌보미를 이용하고 있었다. 더불어, 학교에서는 방과 후 돌봄교실과 연계하여 돌봄을 제공하며,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아동들에게 숙제 및 교과목지도,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동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었다. 평일에는 학교, 다함께돌봄센터, 가정이 아동을 보호하는 주된 보호 체계이며, 주말에는 가족이나 친인척, 종교활동 등 비공식적인 돌봄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다함께돌봄센터가 맞벌이 가족의 아동들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부모의 출퇴근 시간과 센터 운영시간의 불일치, 가족 형태와 구성원에 따른 돌봄 공백 등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맞벌이 가족의 아동을 위해 더욱 안전한 돌봄시스템을 구축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시간 확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운영 제공, 통합 돌봄 제공이 필요함을 제안할 수 있다.

둘째,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가족 레질리언스를 살펴본 결과, 부모-자녀 간 소통에 있어서 질적으로 높은 대화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며, 아동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 등 내면적인 대화는 충분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의사소통과정의 취약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다. 따라서 자녀와 부모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센터 이용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맞춤형 부모교육을 강화하고, 가족을 위한 다양한 교육주제와 내용을 발굴하여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제공되는 돌봄 프로그램은 기본, 공통, 기초·학습활동, 특별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센터의 지역적 조건환경 등을 반영한 돌봄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었다. 인터뷰가 진행된 두 센터 모두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에 대한 사전 요구도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아동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의 부모와 자녀는 모두 함께하는 시간과 체험 및 야외활동을 선호하며, 이는 부모-자녀 간 정서적인 소통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센터에서는 아동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 부모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아동의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맞벌이가정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다함께돌봄센터, 일상생활, 가족 레질리언스, 초등돌봄정책, 돌봄 프로그램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라 학령기 아동의 방과 후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초등돌봄서비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방과 후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혼자 지내게 되는 경향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45.5% 가량의 아동이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이상 집에 혼자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통계청, 2019). 또한, 평일 방과 후에 혼자 있는 ‘나홀로 아동’은 6~17세 총 인구 5,828천 명 중 1,165천 명(20.0%)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홍나미, 정익중, 2019). 이는 부모의 부재 상황에서 이러한 아동 돌봄 공백이 이들의 안전과 복지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최은지, 2020). 이러한 방과 후 아동들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으며, 보호자의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할 경우 안전사고 및 범죄의 대상으로 노출될 수 있다. 특히,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의 방과 후 여부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학령기 아동의 방과 전·전후 보호자 지도의 필요성에 따른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취업률이 50%를 상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자녀 돌봄에 대한 책임을 여전히 가정 특히 여성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일과 가정의 불균형으로 이어진다. 생활시간조사(통계청, 2019)에 따르면 돌봄에 있어서 남성이 33.88분, 여성은 1시간 18.58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 이상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맞벌이 가구는 일 관련 시간과 가사 노동 시간에 차이가 있었으며 일 관련 시간은 남편이 아내보다 1시간 13분 많고, 가사노동 시간은 아내가 2시간 13분으로 조사되었다. 맞벌이 주말부부의 생활시간을 분석한 연구(문숙재·윤소영, 2003)에 따르면, 평일과 주말의 시간 사용구조가 활용영역별로 남편과 아내 간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은선(2014)의 연구에서도 맞벌이 집단의 시간 배분에 있어 젠더의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맞벌이가정이 직장과 가족에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이중 노동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며, 일하는 여성 집단의 일과 가정에서의 갈등 혹은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송혜림, 2012). 이러한 문제는 여성의 경력단절, 저출산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불균형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송혜림(2015) 연구에서는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정 양립 및 행복도를 분석한 결과 영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가정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을 기본으로 아이돌보미, 친인척 등을 통해 간헐적인 돌봄 지원받고 있는데, 그 불규칙성으

로 인한 일상적인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7-12세 학령기 자녀를 둔 맞벌이가정의 비율은 51.3 %로(통계청, 2020) 방과 후에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실정이며, 맞벌이가정이 증가하면서 학령기 아동의 부모들이 자녀 돌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구의 자녀 양육 환경이 변화됨에 따른 자녀 돌봄 지원체계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돌봄 공백은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변화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요구가 점점 커지게 되었다(신정순 외, 2020). 또한, 사회가 자녀 돌봄에 대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아동의 성장을 돕는 환경과 제도를 마련하는 기능을 충실히 해 나아가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류연규, 2012). 이러한 돌봄의 문제로 정부는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온종일 돌봄체계의 구축을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초등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과제를 추진하였다 (김은정·홍진주·정세미·김현진, 2019).

‘온종일 돌봄정책’은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가 협력하여 방과 후 초등돌봄의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의 ‘보호권’을 증대하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교육부의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각 지자체의 다양한 돌봄 정책들이 포함된다. 또한 ‘온종일돌봄 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2018. 04)에 따라 학령기 아동의 돌봄을 학교돌봄(초등돌봄교실)과 마을돌봄(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을 포함하여, 53만 명(2022년 기준)으로 돌봄 아동 수를 확대하는 등 공적 돌봄에 양적 확대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초등돌봄의 아동보호체계로서의 ‘다함께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학령기 아동의 초등돌봄 사업으로서 공공시설(주민센터, 복지관, 마을회관, 도서관, 학교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등의 접근성이 좋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한다. 즉 지역 내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에게 일시·긴급돌봄, 등·하원 지원, 방과 후 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 지역사회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보건복지부, 2021). 또한,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여 맞벌이 가구 초등생 자녀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기존의 지역아동센터가 취약계층 아동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는 다르게 맞벌이 가구 자녀들의 돌봄 공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보편적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방과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일상성을 보장하는 센터의 기능이 강조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2017년 7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의 공동 공모사업을 기초로 10개소를 설치 운영하였다. 2023년 현재 926개소, 21,906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했던 취약계층 아동보호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초등아동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난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에서 91.6%로 높은 점수를 달성하는 등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책브리핑, 2022). 이러한 다함께돌봄센터의 활성화 동향을 살펴볼 때, 보편적인 아동복지를 위해 취약계층 또는 요보호 아동에게 국한된 서비스 체계가 갖는 낙인성을 재고하여, 방과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일상성 보장을 통해 보편적 돌봄서비스가 되는 방안으로 다함께돌봄센터의 역할을 강조할 수 있다. 이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지역사회 아동보호체계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가정 특성 중 가장 높은 비율은 '맞벌이가정'으로 16,985명(82.7%)이며, '외벌이가정'은 1,536명(7.8%), '한부모가정'은 1,360명(6.7%), '조손가정'은 102명(0.5%), 기타는 479명(2.3%)으로 나타났다(아동권리보장원, 2023).

2021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연구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의 절반 이상이 돌봄 공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서적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가족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가족의 해체나 부모의 맞벌이로 인해 성장과 성숙의 과정에서 충분한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면, 성장 과정에서 심리적 어려움과 외로움에 직면할 수 있다. 가족은 아동의 정서적 지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높은 가족 레질리언스는 스트레스나 역경에 대응하고 긍정적인 성장을 촉진하여 아동의 문제 행동을 예방하고 건강한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 가족 자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가족의 지원과 협력 없이는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이에 가족 레질리언스 접근을 강화함으로써 다함께돌봄센터의 서비스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해 맞벌이 가구의 자녀가 스트레스나 역경에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강화할 수 있다. 나아가 아동이 속한 가족의 강점과 역량을 발견하고, 센터의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맞벌이 자녀의 돌봄 공백을 매우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초등 입학의 시작으로 하는 초등아동기는 학습은 물론 정서, 사회, 심리적 배움이 필요한 시기다(최옥채, 박미은, 서미경, 전석균, 2015). 피아제(1983)와 에릭슨(1993)의 이론에 의하면 이 시기 아동은 구체적 조작기와 근면성을 발달시키며, 해비거스트(Havighurst)의 생애주기별 발달 과업에 따르면, 아동기에는 지능적, 신체적 발달과 더불어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측면의 과업이 중요하다(Lee Manning, 2002). 최근까지도 초등생은 방과 후에 학교, 집 또는 다른 기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이는 아동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부모의 부재로 인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초등아동기의 아동발달에 따른 돌봄 프로그램 제공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아동의 발달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맞벌이 가족 자녀의 일상생활, 가족 레질리언스와 돌봄 프로그램을 분석함으로써 맞벌이 가족 아동의 일상생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가족 레질리언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또한, 맞벌이 가족 자녀가 가지는 어려움을 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센터에서 제공되는 돌봄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맞벌이가정 아동에게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맞벌이 가족의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본연구의 주제와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맞벌이 가족 자녀의 일상생활과 가족 레질리언스를 분석함으로써 돌봄 공백이 가족 레질리언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며 가족 레질리언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맞벌이 가족 자녀가 가지는 어려움을 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센터에서 제공되는 돌봄 프로그램을 확인하여 맞벌이가정 아동에게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센터에서 제공되는 돌봄 프로그램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아동과 가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의 가족 레질리언스를 강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자 한다.

##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맞벌이 가족 자녀의 일상생활과 가족 레질리언스를 분석하여 돌봄 공백을 파악하고, 가족 레질리언스 강화와 아동의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4시간을 기준으로 보호자의 유무에 따른 돌봄 공백을 확인하고, 센터에서 제공되는 돌봄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아동과 가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일상생활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가족 레질리언스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3.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제공하는 돌봄 프로그램 내용은 어떠한가?

## Ⅱ. 이론적 배경

### 1. 초등아동기 아동발달 및 돌봄공백 실태

#### 1) 초등아동기 아동발달

초등 과정의 아이들은 유아기를 거쳐 아동기에 이르는데, 이는 대략 7세에서 12세에 해당하는 시기로 초등학교 입학의 기점으로 한다. 이 시기에는 학습적인 측면 외에도 관계의 확장 및 다양화 속에서 정서적, 사회적, 심리적 측면의 배움이 필요한 시기이다(최옥채, 박미은, 서미경, 전석균, 2015).

피아제(Piaget)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사고력이 구체적인 수준에서 논리적인 수준으로 향상되는 구체적 조작기(6세~11세)에 속하며, 12세에 이르면 추상적 사고와 추론을 통해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는 형식적 조작기에 이른다. 10세 경에는 규칙이 상호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자율적 도덕관이 형성된다(OECD, 2019.). 해당 시기에는 인지적, 도덕적 발달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초등 시기는 이러한 발달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아동 정신분석학자 에릭슨(Erickson)은 6세부터 12세까지를 학령기로 분류하며, 이 시기의 주요 발달 과업을 근면성으로 보았다. 에릭슨이 정의한 근면성은 외부의 도전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하며, 이를 잘 발달시킨 아동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지만 그렇지 못한 아동은 열등감을 형성한다(Erickson, 1993; 윤진, 김인경 역, 1997).

최근 아이들은 방과 후에 학교, 집 또는 다른 기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이는 아동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누구와 보내는지 역시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해비거스트(Havighurst)의 생애주기별 발달 과업에 따르면, 아동기에는 지능적, 신체적 발달과 더불어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측면의 과업이 중요하다(Lee Manning, 2002). 이 시기의 아동은 자아 중심성에서 벗어나 타인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한다. 아동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며 학교, 또래 관계, 대중 매체 등의 환경적 요소와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발달을 이루므로, 아동의 행동을 관찰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최옥채 외, 2015). 아동기에는 지능, 정서, 신체, 사회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발달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보호자(교사, 돌봄교사, 돌봄자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 보호자는 아동의 발달 과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아동이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거나 단 순히 함께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아동의 발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지

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부모들은 자녀의 방과 후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것에는 가족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부모의 교육관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신호정(2016)의 연구 결과 자녀의 안전과 돌봄을 위해 학원에 보내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부모의 교육관과 가치, 취업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맞벌이는 돌봄을 위해 학원에 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신호정, 2016; 이재희, 김근진, 엄지원, 2017).. 신호정(2016)의 연구에 따르면, 초등아동은 발달 측면에서보다는 엄마의 취업 여부, 부모의 교육관과 가치 등에 따라 방과 후에 어디서 어떻게 보내는가가 결정된다.

학령기 아동의 발달에 따른 돌봄 프로그램 제공은 아동의 인지적, 도덕적, 사회적, 정서적 측면의 발달을 지원하여 성장을 돕는다. 가족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부모의 교육관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고, 부모의 취업 여부, 부모의 교육관 등에 따라 방과 후에 어디서 어떻게 보내는가가 결정되므로, 학령기 아동의 발달에 따른 돌봄 프로그램 제공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돌봄 공백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한다.

## 2) 초등아동기 돌봄공백

돌봄 공백 개념에 관하여 명확하게 합의된 정의는 없으며 이 용어를 직접 사용한 연구도 드물다. 2000년대 이후 아동 사례에 집중한 연구들은 ‘나홀로 아동’ 또는 ‘자기보호 아동’과 유사한 개념으로 돌봄 공백의 개념을 구체화 시켰다(김지경, 김근희; 2013; 임혜정, 2017a). 서구사회에서는 아이들이 집 열쇠를 목에 걸고 다니며 혼자서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이를 열쇠 아동(latchkey child)으로 일컬어진다(김주현, 1994, ; Casper & Smith, 2004).

여성가족부는 하루에 1시간 이상 혼자 또는 초등학교 이하의 아동끼리만 집에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나홀로 아동’으로 정의한다. 또한, 아동의 방과후 자기보호 및 돌봄 공백은 방임과 다른 개념으로(이정숙, 김은경, 2008; 이봉주, 조미라, 2011; 서혜전, 2012), 돌봄 공백을 ‘방치’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방치는 방과 후에 일정 시간을 성인 보호자 없이 지내는 상태를 의미하는 물리적 개념이고, 방임은 아동에게 필요한 적절한 관심과 양육, 보호가 제공되지 않는 내용적 개념으로 정의하며 두 개념을 구분기도 한다(이봉주와 조미라, 2011).

초등돌봄 공백으로 인해 나홀로 아동이 증가하고 있다(송다영, 장수정, 백경훈, 2017; 장혜경 외, 2015; 임혜정, 2017a, 2017b). 최근 돌봄 공백으로 인한 영향에 관한 연구를 한 임혜정(2017a, 2017b)의 연구에 따르면, 맞벌이가정, 부모가 4년제 대졸 이상 가족, 형제자매가 있는 가족이 돌봄 공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 결과 돌봄 공백이 학교 학습활동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되었다. 여

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37%가 평균 한 시간 이상 홀로 지낸다. 특히 맞벌이 가구일수록, 형제자매가 있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학년이 올라갈수록 돌봄 공백이 증가한다(임혜정, 2017b). 2018년 한국 여성정책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맞벌이가정의 경우 39.4%가 아침 시간대 돌봄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학 중 평일 자녀가 혼자 보내는 시간이 학기 중 평균 146분보다 훨씬 긴 212.5분으로 보고되었으며(김영란 외, 2018), 이는 부모의 근무시간과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 및 방학 기간이 충돌하여 여전히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가정 12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아침 시간에 충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시간 충돌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송다영 외, 2017). 맞벌이가정의 아이들은 학원을 전전하거나 혼자 또는 형제자매끼리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맞벌이가정의 경우 조부모, 아이돌보미 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돌봄 공백이 발생함으로 맞벌이가정 및 아동·청소년 중심의 돌봄 지원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아동이 어떤 환경에서 누구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아동을 어떻게 보살피느냐는 아동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동안 돌봄 정책에서 아동의 권리가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였다(백경훈, 2015). 돌봄에 있어 아동의 권리를 중요하게 고려하며, 아동의 권리에 기반하여 아동의 발달을 고려한 돌봄 환경과 돌봄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초등돌봄 공백은 일하는 부모 특히 모의 경력단절에도 영향을 끼치며,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여성들의 주당 노동시간이 4시간 줄고, 상용직 취업률이 20%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이재희, 2018). 방과 후 돌봄 공백과 관련한 이봉주, 조아라(2011)의 연구에 따르면, 방과 후 방치가 아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방과 후 돌봄은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춰 보호와 돌봄을 제공해야 하며, 정책적 지원도 이에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방과 후 돌봄은 초등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적절한 교육과 돌봄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아동권의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김선희, 2015).

맞벌이가정과 같이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에 놓인 아동들은 나홀로 아동으로 방치되기 쉬우며, 이는 아동의 학습활동과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부모의 경력단절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돌봄 프로그램은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춰 보호와 돌봄을 제공하고 아동의 권리를 고려한 환경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한다. 또한 돌봄 공백은 부모의 경력단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돌봄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2. 초등돌봄의 실태와 정책 동향

### 1) 돌봄 및 초등돌봄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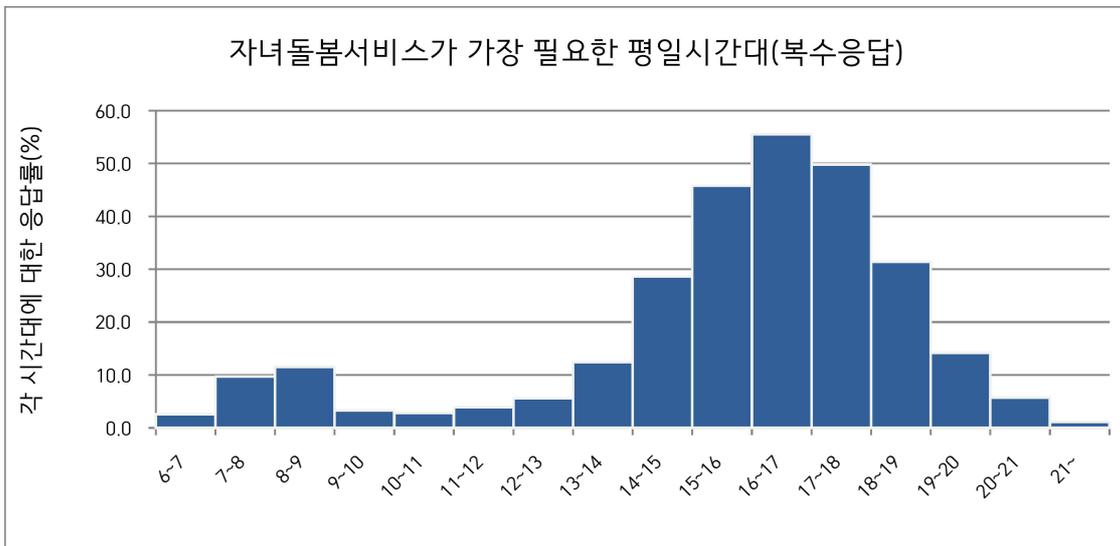
돌봄(care)의 사전적 의미는 신경을 쓰는 것(to feel interested in something or worried about it) 또는 어떤 대상을 보호하고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과정(the process of protecting someone or something and providing what that person or thing needs)이다(Cambridge Dictionary, 2021). 돌봄은 ‘보살핌’, ‘배려’ 등과 유사한 의미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그들의 어려움이나 필요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이에 응답하는 것을 의미한다(노방환, 2013). 돌봄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해 명확한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이를 돌본다’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암묵적 동의가 이루어져 있다(Held, V, 2006). 이러한 돌봄의 개념은 주로 개인적이거나 여성적인 역할로 여겨졌으나, 오늘날 돌봄은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공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김희강, 2018).

후기 산업사회로 변화하면서 가족구조와 노동시간의 구조가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돌봄은 국가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으며, 이는 복지국가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이기도 하다(김수미, 2018). 아동 돌봄은 보호의 역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초등아동기는 심리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과 학습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시기이므로 세심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시기이다. 또한,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춰 사회적 돌봄을 제공해야 하며, 공공의 사회적 산물로서 자원을 투입하고 그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기존에는 가족 내에서 이루어졌던 돌봄이 이제는 국가 지원 아래 시설이나 서비스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아동 돌봄 역시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며,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의 요구를 반영한 사회적 돌봄의 일환으로 발전하고 있다. 아동은 출생부터 생애 전반에 걸쳐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이를 통해 현재의 삶을 형성하고 미래를 준비한다(Tilbury, 2004). 따라서 아동 돌봄의 질을 높여서 아동의 현재와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인적자원인 아동을 성장시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가족, 학교, 그리고 사회적 시스템이 함께 운영되어야 한다(최영규, 2021).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방과 후 아동 돌봄은 복지의 일환으로 사회가 기능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사회·구조적 변화로 인해 가정 내 아동 돌봄 기능이 약해지면서, 공적 돌봄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공적 돌봄 지원은 증가하였으나, 초등돌봄의 경우 영유아 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다(최영, 2019). 초등돌봄 서비스 대상은 취약계층과 실수요층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

며, 영유아기 돌봄서비스가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단절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다(김은정, 장수정, 정영모, 오신희, 2019). 한국의 많은 종사자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근무시간은 유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7), ‘자녀 돌봄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평일 시간대’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에서도 양육자의 퇴근 시간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의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자녀돌봄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평일시간대(복수응답)



출처 :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한편, 아동 돌봄의 질적 욕구 역시 충족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동(9~11세)의 58.6% 정도가 방과 후 주로 학습과 관련된 활동을 한다고 응답했지만 실제 희망하는 방과 후 활동은 집에서 쉬기, 친구, 학원, 과외 순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8). 이는 희망하는 활동과 실제 활동의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친구와 충분히 놀 시간을 갖지 못하며 학습에 과도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류정희 외, 2019).

초등돌봄은 학령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수업 외에 돌봄과 교육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장수정, 2020). 우리나라는 초등돌봄정책이 2004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이는 저소득층 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증가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돌봄과 교육을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초등돌봄서비스는 민간 주도로 저소득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나 방학 중에 아동을 돌보는 공부방에서 시작되었다(노성향, 2016).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가 발생하면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었으며(정영모, 2021),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에서는 방과 후

교실을 도입하여, 아동 돌봄을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정영모, 2021). 초등돌봄정책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장수정, 2020). 이러한 정책은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초등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며,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초등돌봄 정책의 대상이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부모들의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자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부모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급은 수요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며,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공백은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온종일돌봄체계를 구축, 운영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빈틈없는 돌봄 체계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초등돌봄의 공급이 2017년 기준 33만 명에서 53만 명으로 2022년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었다. 그 주요 내용에는 초등 1~2학년 위주의 돌봄에서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것과 맞벌이가정을 포함한 학부모의 수요와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는 초등학교 돌봄서비스는 개인의 영역에서 국가책임 영역으로 넓혀가고 있으며, 이는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변화하는 과도기라 할 수 있다.<sup>1)</sup>

교육부 주관의 초등돌봄교실은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인구 감소로 발생하는 유휴교실을 활용할 목적으로 2014년에 도입되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은 점차 증가하였고, 공적 영역에서의 서비스 이용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적 돌봄서비스 공급체계 분석과 정책 연구에 의하면, 학부모들은 학교 내 돌봄서비스 내용과 질 개선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돌봄교실의 양적 확대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주관의 돌봄서비스는 초등돌봄 서비스 중 가장 오래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대상 아동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자격 제한을 두어 기준의 포함된 아동만 이용할 수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2017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역 내 틈새돌봄의 기능을 강화하고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이용 대상 아동은 만 6세부터 12세의 초등학교생이며, 센터의 공급이 제한적이므로 이용자 또한 자격의 제한 두고 있다. 그러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3c).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초등학생 4학년~중학생 3학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학교돌봄터 사업은 초등돌봄의 공급부족과 사각지대 해소 등 촘촘한 돌봄의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2021년부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새로운 돌봄 모델의 도입에 따른 운영 전략이 미흡했음이 지적되고 있다(이혜

1) 2018. 4. 4.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운영 계획을 참고하여 작성함.

숙·이영숙, 2021).

2022년도 부처별 초등돌봄 현황으로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교돌봄터 순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표 1〉 2022학년도 온종일돌봄(초등돌봄) 현황

구분	지역아동센터 (21'12.31.기준)	초등돌봄교실 (21'4.30.기준)	다함께 돌봄센터 (21'12.31.기준)	학교돌봄터 (21'12.31.기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22'1.20.기준)
운영 수	4,289개	6,178교 (14,774실)	694개	19교 (47실)	234개소
이용 정·현원	123,685명	242,776명	17,366명	1,051명	7,270명

출처 : 교육부(2022), 정책/초·중·고 교육/게시 1305번 재구성.

## 2) 초등돌봄의 정책 동향

초등돌봄을 수행하는 전달체계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1)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연계형돌봄교실

‘초등돌봄교실’(이하 ‘돌봄교실’)이란 별도 시설(전용 또는 겸용교실 등)이 갖추어진 공간에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이외에 이루어지는 돌봄활동을 말한다(오시영 외, 2016).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홀로 방치되는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를 위해 2004년 방과 후 보육교실에서 처음 시작되어 2010년 돌봄교실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서울시교육청, 2022). 초등돌봄교실은 초등학교에서 저학년(1학년~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시간 이후 돌봄이 필요한 가정으로 저소득층, 조손, 한부모, 맞벌이 외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 등을 위하여 돌봄전담사와 학생이 일정 시간 머무는 교실을 말한다.

‘방과후학교 연계형돌봄교실’이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3~6학년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방과후학교 수업에 참여하면서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이 별도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공간이다. 방과후학교 운영은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교는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방과 후나, 학기 중,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학생의 자율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고 제시한다.

초등돌봄교실은 학교장이 운영을 총괄하고 전일제 돌봄전담사, 시간제 돌봄전담

사, 돌봄 담당 교사 등이 돌봄과 관련 행정업무 전반을 분담하여 운영한다.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 또한 학부모의 수요와 돌봄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학생 관리, 귀가 지도, 체육활동, 간식 제공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교육부는 돌봄교실의 질 개선·돌봄 업무 체계화를 위해 2021년 8월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2022년에 돌봄교실 3500실을 확충하고 운영시간을 오후 7시까지 확대하는 등 추진하였다. 2010년~2020년까지 초등학교 돌봄교실 참여학생 수, 운영학교 수, 운영학교 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5,177개교에서 6,200실 104,496명, 2012년 5,652개교 7,086실 159,248명, 2014년 5,938개교 10,966실 221,310명, 2016년 5,998개교 11,920실 238,480명, 2017년 6,054개교 11,980실 245,303명, 2018년 6,078개교 12,398실 261,287명, 2019년 6,117개교 13,910실 290,358명, 2020년 6,163개교 14,278실 256,213명으로 조사되었다(교육부, 2021).

〈표 2〉 개인활동’ 및 ‘단체활동’ 프로그램 유형 및 내용

유형	프로그램 내용
개인활동	·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개인적·자율적으로 초등돌봄전담사 등의 지원·관리 하에 행하는 활동(숙제하기, 일기쓰기, 독서하기 등)
단체활동	·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외부강사 및 교원에 의해 운영되는 다양한 예체능, 창의성 신장을 위한 특기적성 프로그램 활동 - 음악줄넘기, 북아트, 전래놀이, 생활체육, 창의로봇, 악기연주, 학부모와 함께하는 체험활동, 인성프로젝트, 안전교육 등 · 교과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지양하고, 학교 내·외의 다양한 시설이나 장소에서 수행 *「즐겁고 신나는 초등돌봄 놀이활동」(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6) 활용 「돌봄교실 놀이자료」

출처 : 2024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경상남도교육청, 2024

## (2)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의 출발은 1980년대 빈곤아동에 대한 돌봄, 학습지원의 필요성이 부각 되면서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교회, 민간기관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공부방이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공부방은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에게 교육과 보호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정부는 2004년 1월 29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를 법정 아동복지시설로 지정하고, 아동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

2)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한국교육개발원(2020)을 참고하여 작성함.

생부터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기관으로 보호·교육·문화·심리·정서 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으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호). 2004년도에는 지역아동센터가 895개소에서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4,107개소,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4,295개소가 운영 중이다(보건복지부, 2021a).

〈표 3〉 전국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현황(2021년 12월 말 기준)

지역	운영기관 수	백분율(%)	지역	운영기관 수	백분율(%)
서울	477	11.1	인천	185	4.3
경기	803	18.7	세종	13	10.3
대전	140	3.3	광주	311	7.2
전북	294	6.8	전남	294	6.8
강원	174	4.1	충북	395	9.2
충남	238	5.5	경북	275	6.4
대구	201	4.2	울산	58	1.4
부산	209	4.9	경남	271	6.3
제주	66	1.5	전국	4,295	100

출처 :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보건복지부, 2021년 12월 말)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대상자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우선돌봄아동과 우선돌봄 아동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또는 돌봄 특례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자격 기준이 정해져 있다(보건복지부, 2022b). 2022년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대상이 확대되어, 법정 저소득층 아동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일반아동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2021)에 따르면, 2021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아동은 총 106,746명으로, 미취학아동 2,067명(1.9%), 초등학교 저학년 38,471명(36.0%), 고학년 44,260명(41.5%), 중학생 18,064명(16.9%), 고등학생 3,800명(3.6%), 학교 밖 청소년 84명(0.1%)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형태별로는 양부모가정 72,481명(67.9%), 한부모가정 30,419명(28.5%), 조손가정 2,947명(2.8%), 소년소녀가정 143명(0.1%), 기타(친척 및 시설) 756명(0.7%)이 이용하였다.

[그림 2]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및 가정형태별 이용아동 현황



출처 :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보건복지부, 2021a)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보호로 생활과 안전, 교육으로는 학습, 성장과 권리 그리고 특기 적성이 있으며, 문화에는 체험 및 참여활동, 정서 지원에는 상담과 가족 지원, 지역사회 연계에는 홍보와 인적 및 기관 연계로 구성되어 있다.

<표 4> 지역아동센터 기본 프로그램

영역		프로그램(센터별 선택 운영)	
보호	생활	일상생활, 위생 건강관리	일상생활, 예절교육, 아동 및 건강 지도, 급식지도 등
	안전	생활안전지도	생활지도, 귀가 지도, 통학버스 이용
		5대안전 의무교육	교통안전, 성폭력예방, 약물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등
교육	학습	숙제, 교과 학습지도	숙제, 독서 지도, 맞춤형 교과 학습지도 등
	특기적성	예체능활동	미술, 음악, 체육활동
		적성교육	진로·적성교육
	성장권리	인성, 사회성 교육	인성·사회성교육 등
자치회의 및 동아리		자치회의, 동아리 활동	

문화	체험	관람, 캠프 등	박물관 견학, 체험활동, 캠프
	참여	문화체육 등 행사	공연·전시회 관람, 체육대회
정서	상담	상담	개인상담, 부모 및 가족상담
	가족지원	보호자 교육	보호자 교육 등
		행사, 모임	부모 모임, 가정방문 등
지역사회	홍보	기관홍보	기관홍보
	연계	인적	자원봉사활동, 후원자 관리
		기관	지역조사와 탐방, 전문기관 연계, 복지단계 연계 등

출처: 2023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3).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보호와 일상생활 지도, 학습 능력 제고 등의 교육 기능, 상담과 가족 지원을 포함한 정서적 지원, 체험활동과 공연 등 문화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 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미애(2018)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자의 실태와 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는 정부 보조금 및 지자체 지원 외에도 민간사업체,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결연 및 협약 관계를 맺고 있다. 이를 통해 후원 물품, 프로그램 지원 등의 적극적으로 외부 자원을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식품 후원이 약 68%로 높게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연계를 통해 프로그램, 체험, 의료지원 등의 후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는 이용 대상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고, 부처별 분절적 돌봄 정책 추진으로 부처간 서비스 중복과 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정영모, 2019). 이에 정부는 초등돌봄의 촘촘하고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2018년 온종일돌봄 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초등돌봄 서비스제공 인원의 확대 정책을 추진하였다.

### (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국가 청소년위원회의 정책사업으로 2005년 시범 운영하여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4~중3)에게 학습, 급식, 상담, 부모교육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가 2005년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장애가정, 2차녀 이상가정, 맞벌이 가정 등이며, 운영시간은 방과후~21시(일일 4시간 이상 연중)까지, 사

업수행기관은 지역 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2005년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하였으며, 당시 신청자가 많아 수요자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방과후아카데미 수업에 수요자가 많았던 이유는 방과 후 돌봄으로 학습지원, 체험활동, 생활 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였기 때문이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방과후아카데미는 2022년 350개소, 2023년 355개소로 확대되었다(아동권리보장원, 2021).

센터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일반형과 주말형으로 구분되며, 일반형 프로그램 운영에는 1일 최소 4시수 이상으로 하되, 기관 상황에 따라 운영한다. 공통 운영 과정(5시수)은 기본적인 생활 지원과정이며, 선택 운영 과정(15시수)은 지역 특성 및 참여 청소년 수요에 따라 다양한 운영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캠프 운영 연 1회 집단 캠프를 권장한다. 대학, 민간기업 연계, 지역단체 등 민관협력을 활용하여 코딩, 드론, 영상·미디어 제작, 로봇 등 ‘디지털 체험활동’을 강조한다(여성가족부, 2024).

주말형 프로그램 운영은 일 5시수 이상으로 하며, 급식을 포함한다. 특성화된 프로그램 주제를 중심으로 지역적 특성, 청소년의 요구, 시대적 상황 등을 반영하여 자율 운영하며, 프로그램 주제는 기간별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변경, 가능하다. 학기 초 청소년, 학부모 수요조사를 통해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연 1회 캠프(집단) 운영을 자율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 (4)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초등학교 아동의 돌봄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지역사회 중심으로 아동의 주도성을 기반으로 아동 돌봄 공동체를 조성하는 특성을 가진다(보건복지부, 2022). 다함께돌봄사업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시행하였다(윤옥분, 2023). 다함께돌봄정책은 2017년 공모사업을 시작으로 2018년 온종일 돌봄 정책을 발표하여 17개소로 시범 설치, 운영되었다. 2019년 문재인 정부는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으로써 2017년 10개소에서 2021년 694개소로 확충하였다. 서비스 지원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만 6세~12세 아동으로 맞벌이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부 혹은 모가 일하는 경우가 우선 입소 대상이지만 지역 여건에 따라 입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4).

운영형태는 정기돌봄과 일시돌봄이 있다. 정기돌봄은 매일 2시간을 이용, 매주 화, 목 3시간 이용 등 일정한 기간이 정해진 정기적 돌봄을 의미하며, 일시돌봄은 갑자기 발생한 사유에 의한 비정기적 돌봄을 의미한다.

운영시간은 주 5일(월~금요일 포함), 1일 8시간 이상을 상시 운영하여야 하며, 학기 중에는 14:00~20:00, 방학 중에는 09:00~18:00로 운영된다.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

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돌봄 프로그램은 출결확인 및 급, 간식 지원의 기본서비스 운영, 숙제 및 독서지도와 신체활동 등의 공통 프로그램 운영, 언어 및 예체능 등의 특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등 다른 초등돌봄서비스와는 달리 월 10만 원 한도액 내에서 이용자 부담액이 있다.

〈표 5〉 다함께돌봄센터 돌봄 프로그램

구분	분야	내용	비고
기본	출결확인	- 출결 관련 사항 확인 - 입·출입이 잦은 아동에 대한 출결 확인	돌봄 프로그램 구성 - 대상, 시간, 내용, 방법, 지역사회 내 자원 연계 등
	급·간식 지원	- 방학 중, 급식 및 간식 지원	
공통	놀이 및 휴식	- 자유 활동 및 휴식지원	
	신체활동	- 신체 및 또래 놀이	
	숙제· 독서지도	- 숙제지도 - 독서지도 및 프로그램 운영	
	아동지원	- 위생·청결교육, 화재 및 안전교육 - 아동 및 보호자 상담	
특별(학습)	언어활동	- 기초, 외국어 지도 및 프로그램 운영	
	예체능	-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 및 지도	
	과학	- 과학 지도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체험활동	- 문화예술 체험 및 프로그램 운영	

출처 : 보건복지부(2024), 2024 다함께 돌봄 사업안내, p.60

### (5) 학교돌봄터

‘학교돌봄터’사업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관계부처와의 연계·협력 사업으로 초등학교는 유휴 교실 등의 공간 제공, 학교시설(운동장 등) 등의 이용을 지원한다. ‘학교돌봄터’는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지자체, 교육청, 학교가 협력하는 초등돌봄서비스로 이용 대상은 6세~12세 초등학생, 운영시간은 학기 중은 14시~20시까지, 방학 중에는 9시~18시로 주 5일(월요일~금요일), 1일 8시간 이상 운영하며, ‘학교돌봄터 사업지원단’이 학교돌봄터 운영을 지원한다.

학교돌봄터 사업은 2022년 12월 기준으로 총 32개교에서 78실이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다(아동권리 보장원, 2023). 이용 대상은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내 6~12세 아동(초등학생)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오후 8시까지(학기 중 14~20시, 방학 중 9~18시) 운영하고 있다. 학생 돌봄은 보육 및 복지 전공 교사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는 놀이 체육·창의 미술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돌봄터는 수요자 중심의 돌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방과 후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돌봄 프로그램은 사전 조사를 통해 파악한 수요자 선호도 및 가용 자원을 기준으로 운영위원회 등에서 프로그램을 결정한다. 프로그램 구성에는 기본서비스, 공통 프로그램, 특별활동 프로그램으로 3)구성된다.

초등학생을 대상의 돌봄 유형은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초등돌봄교실, 지역기관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교돌봄터 등이 있다. 방과후돌봄의 관련 부처를 살펴보면 초등방과후돌봄은 교육부의 ‘학교 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의 ‘우리동네키움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있다.

이러한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금까지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특히 본 연구가 주목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실태와 동향 등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3) 보건복지부(2023), 2023년 학교돌봄터 사업안내를 참고하여 작성함.

### 3. 다함께돌봄센터의 이해

#### 1) 다함께돌봄센터의 추진배경

맞벌이 가구의 비율이 전체 평균 45.4%에 달하며, 특히 학령기(7-12세) 자녀를 둔 맞벌이가정의 비율이 51.3%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학령기 아동의 방과 후 돌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2020)에 따르면,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가 확대되면서 맞벌이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령기 아동의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돌봄서비스 공급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방과 후와 방학 중에 이들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크다. 특히 초등학생이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할 경우,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거나 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들에 대한 돌봄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자녀 연령별 경력단절 여성 현황에 따르면(통계청, 2019a), 2017년부터 3년 연속 경력단절 여성 중 6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65.5%→63.3%)하였으나 7세부터 12세까지의 자녀를 둔 여성의 비율은 증가(22.0%→24.9%)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는 여성에게 자녀 출산 이후 소득활동을 포기하도록 하는 두 번째의 위기(교육부, 2018c)로 지적된다. 자녀의 초등 입학 시기에 여성이 경력단절을 선택하는 배경에는 아직 혼자 시간을 보내기에는 어린 자녀의 방과 후 이후의 돌봄 문제와 함께 초등 입학 적응, 학교생활 지원 및 교우관계의 형성 등에 대한 어머니 역할이 강조되는 제도적, 사회적 문제가 지적된다(김경욱, 2018; 이수민, 2019).

이러한 육아의 어려움은 저출생으로 이어진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출생아 수를 처음 기록하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 자료에 따르면, 특히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사상 첫 0.6명대로 추락하면서 2023년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보다 7.7% 감소한 23만 명이였다. 저출산 문제의 주요한 원인에는 돌봄 문제가 있으며, 그 배경에는 출산과 육아의 경제적 부담으로 조사되었다(통계청, 2024). 출산한 자녀를 돌보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할 뿐 아니라 그나마도 제대로 된 돌봄이 보장되지 않고, 육아를 위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현실에서 누구도 선뜻 출산을 선택하기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시사경제신문, 2022).

신학기에 초등학생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자녀를 둔 직장건강보험 가입 여성 약 1만 5천여 명이 퇴사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초등학교 입학으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의 증가는 일하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가져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온종일 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

으며,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돌봄·공동체 기반 조성 과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등장한 공적 초등아동 돌봄서비스가 다함께돌봄센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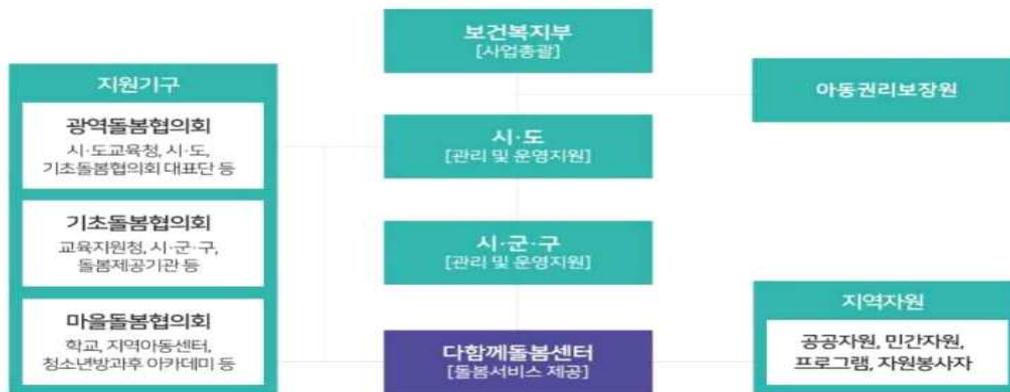
다함께돌봄센터는 영유아를 위한 무상보육이 전환되면서, 2016년을 기준으로 영유아를 둔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률이 68.3%에 이르게 된 것에 비해(교육부, 2018a),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학교와 사회의 중심으로 제공되는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률이 12.5%로 크게 떨어지는 등 이용하기에 매우 제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교육부, 2018b).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등학생을 위한 공적 돌봄서비스는 부족한 실정이며, 부모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초등학생을 위한 공적 돌봄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또한,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2) 다함께돌봄센터의 추진체계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역 내 방과 후 돌봄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며, 지역의 초등돌봄을 위한 공공/민간 자원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을 키우는 자율적이고 유연한 체계를 운영하고자 한다.

[그림 3] 다함께돌봄센터 추진체계



출처 : 아동권리보장원, 2023

추진 주체별 주요 역할을 살펴보면, 보건의복지부는 다함께돌봄센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의 사업관리 총괄의 역할을 담당하며,

센터의 평가 및 컨설팅 그리고 국고보조금의 교부와 관리 및 자원 연계를 위한 부처 간 연계 및 조정의 역할을 담당한다(아동권리보장원, 2023).

다음으로 다함께돌봄사업의 전달체계로 아동권리보장원이 있다. 기존에는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총괄하고 다함께돌봄사업 지원단이 사업지원을 하였으나, 2020년에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위탁한 후 아동권리보장원이 실질적인 사업의 관리를 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의 총괄 아래서 아동권리보장원이 정한 사업내용 및 지원방안에 따라 각 지자체는 단위별 지원기구와 협력하여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정된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실질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주요 역할은 평가 및 컨설팅, 종사자 교육 등의 시설 운영지원과 다함께돌봄센터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 그리고 다함께돌봄사업 홍보 및 연구·조사 등이다.

다음으로 추진체계에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의 주체인 시·도와 시·군·구가 있으며, 시·도는 시·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총괄을 하며, 시·군·구는 사업 지도 및 점검, 국고보조금 예산 집행, 광역 돌봄협의회를 통한 돌봄서비스의 연계·조정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시·군·구는 사업계획 수립 및 센터 설치·운영, 예산 집행 및 지도점검 등의 센터 운영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기초 돌봄협의회를 통한 돌봄서비스의 연계·조정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나, 아동복지법 개정안 제44조의 2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이 가능하다. 수탁자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인데, 이 중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수탁자 선정에는 공개모집을 기본원칙으로 두고 있으며, 위탁 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한다. 지자체는 수탁자의 사업수행 능력, 지역 내 돌봄기관 균형 분포,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재정 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sup>4)</sup>.

### 3) 다함께돌봄센터의 추진현황

제 17차 아동정책 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윤석열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안은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국무조정실, 2023).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아동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완성하는 공공성 강화정책과 흡사하다.

‘온종일 돌봄 체계’란 기존의 취약계층 아동을 중심으로 제공되어왔던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돌봄을 확대하고 학교-지자체의 연계·협력을 통해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나홀로 아동 증가와 아동 방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취지이다. 이를 위해 초등학생 대상의 돌봄 정책으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가

4) 보건복지부(2024), 다함께돌봄 사업안내를 참고하여 작성함.

함께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체화하려 노력해오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등이 포함된다. 2023년에는 돌봄의 국가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교육부 소관의 늘봄학교도 등장하였으며 이 밖에도 초·중·고등아동 돌봄을 위한 다양한 돌봄 지원 서비스들이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온종일 돌봄 정책으로 2017년에 시행되었고, 2019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에 본격적으로 개소한 아동복지시설로서 비교적 최근에 운영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7년 7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의 공동 공모사업을 기초로 10개소의 ‘다함께돌봄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2018년 4월 관계부처합동 ‘온종일돌봄 정책’으로 17개소를 설치, 운영하였다. 특히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은 정부가 2019년 1월 「아동복지법」을 개정된 후 더욱 본격화하였으며 2021년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였다(보건복지부, 2023).

다함께돌봄사업은 2017년 10개소로 시작하여 이후 2018년 17개소, 2019년 173개소, 2020년에는 424개소, 2021년에는 694개소, 2022년에는 903개소가 설치·운영되었으며, 2023년 5월 기준 931개의 센터가 전국에 개소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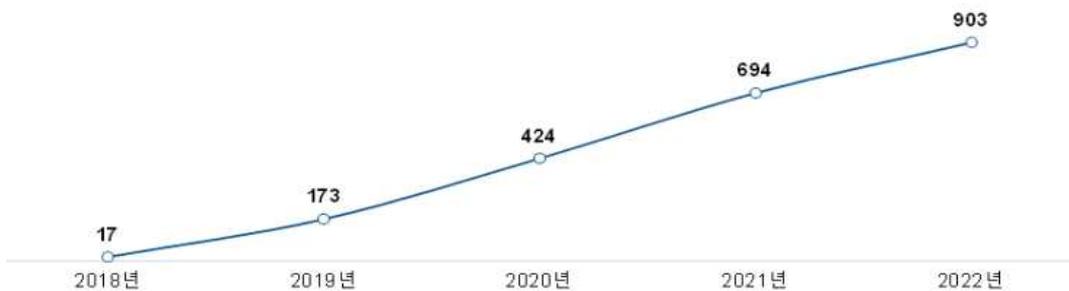
2022년 12월 말 기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한 아동은 정기돌봄 19,010명, 일시돌봄 1,537명으로 총 20,547명이다. 기타 이용자 460명을 제외한 초등 정규교육을 받는 아동은 20,087명으로 학년별 이용 아동수는 다음과 같다. 1학년 6,615명(32%), 2학년 5,867명(28.6%), 3학년 3,867명(18.8%), 4학년 2,180명(10.6%), 5학년 1,052명(5.1%), 6학년 506명(2.5%)으로 1~3학년 16,349명(81.3%), 4~6학년 3,738명(18.7%)으로 저학년 이용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아동 일평균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정기 돌봄’이 228.4분, ‘일시 돌봄’이 201.6분으로 나타났다(아동권리보장원, 2023).

다함께돌봄센터의 우선 입소 대상은 소득수준과 무관하나,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센터마다 우선순위를 달리할 수 있으나, 사업 매뉴얼에 기초한 우선순위에는 맞벌이가정 및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구 및 가정 내 자녀 돌봄이 어려운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의 근로 시간이나 출·퇴근 소요 시간이 긴 경우가 우선 입소 순위에 해당한다(보건복지부, 2024).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우선 입소 대상 1순위로 ‘맞벌이가정’을 설정한 시설은 710개소로 81.6%이며, 우선순위가 없는 시설은 65개소(7.5%)이다.

가정 특성별 이용 아동 현황도 맞벌이가정의 아동이 16,985명(82.7%), 외벌이가정의 아동이 1,606명(7.5%), 한부모가정 아동이 1,381명(6.7%), 조손가정 아동이 95명(0.5%), 기타 480명(2.3%)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토대로 시설은 맞벌이가정 중심의 정기·일시돌봄을 제공하며 주요 지원내용에는 체험 및 교육, 문화, 예술, 체육 프로그램 연계, 제공 등이 있다(아동권리보장원, 2024).

2022년 12월 기준으로 설치된 전체 센터 수는 903개소이며, 이 중 33개소(22년 12월 설치)는 2023년 운영 예정으로 조사에서 제외되었다. 특기·적성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실시된 센터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센터(98.2%)에서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예체능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경우가 826개소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도 보드게임이 72개소, 코딩이 40개소, 체험활동이 21개소, 과학활동이 16개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아동권리보장원, 2023).

[그림 4-1] 다함께돌봄센터 연도별 센터 설치 현황



출처 : 아동권리보장원, 2024

[그림 4-2] 다함께돌봄센터 가정 특성별 이용 아동 현황



출처 : 아동권리보장원, 2024

#### 4) 다함께돌봄센터의 돌봄 프로그램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아동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 돌봄서비스에는 프로그램 진행 전에 이용자의 수요와 가용 자원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 조사가 실시되며, 이를 바탕으로 센터에서 가능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아동기의 특성을 반영하고, 상시 및 일시돌봄의 이용자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놀이와 돌봄, 학습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아동권리보장원, 2023). 이를 위해 센터장과 돌봄교사를 중심으로 하되, 지역 내에서 활용·가능한 자

원을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 내에서 아동을 지도하거나 아동의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돌봄 전문가 또는 외부 시설과의 관계 및 대학생 등의 자원봉사자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첫 번째는 기본프로그램으로, 돌봄교사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아동의 등·하원 지원관리, 일상생활 교육, 급·간식 지원 등으로 포함된다. 이 외에도 부모 상담 및 정보제공 등 상시로 운영되고 있다. 두 번째는 공통프로그램으로, 아동의 학년과 학습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숙제지도 및 독서지도, 신체활동, 휴식 등을 제공한다. 센터에 머무르는 동안 기본적인 학습지원의 하나로 학년별 특성을 고려하여 일상적인 학습 관련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부모, 자원봉사를 활용한 재능기부 또는 퇴직한 교사 등의 도움을 받아 센터장과 돌봄교사의 역할을 보충한다. 세 번째는 특별(학습)활동으로, 외국어, 예체능, 과학 및 체험활동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위해서는 분야별로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인력을 특별 프로그램 담당자로 지정하여 분야별 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의 특기 적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정 지식과 기술을 아동에게 알려주고,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지역 내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아동의 적성을 계발하고, 아동기에 갖는 학습 및 다양한 활동에 대한 호기심을 키워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히 초등학교 학년에 따라 발달적 특성과 욕구를 구분하여 운영되며, 저학년의 경우에는 놀이 중심의 프로그램을 중점으로 제공하고 고학년의 경우에는 교과 및 학습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아동 스스로 자신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센터에서 안전교육이 실시된다. 안전교육의 내용으로는 재난 대비를 위한 안전교육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 법령에서 지정하고 있는 5대 안전교육으로 또한 포함된다<sup>5)</sup>(보건복지부, 2024).

〈표 6〉 다함께돌봄센터 돌봄 프로그램

구분	분야	내용	비고
기본	출결확인	- 출결 관련 사항 확인 - 입·출입이 잦은 아동에 대한 출결 확인	돌봄 프로그램 구성 - 대상, 시간, 내용, 방법, 지역사회 내
	급·간식 지원	- 방학 중, 급식 및 간식 지원	
공통	놀이 및 휴식	- 자유 활동 및 휴식지원	
	신체활동	- 신체 및 또래 놀이	

5) 보건복지부(2024), 다함께돌봄 사업 안내를 참고하여 작성함.

구분	분야	내용	비고
특별(학습)	숙제·독서지도	- 숙제지도 - 독서지도 및 프로그램 운영	자원 연계 등
	아동지원	- 위생·청결교육, 화재 및 안전교육 - 아동 및 보호자 상담	
	언어활동	- 기초, 외국어 지도 및 프로그램 운영	
	예체능	-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 및 지도	
	과학	- 과학 지도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체험활동	- 문화예술 체험 및 프로그램 운영	

출처 : 보건복지부(2024), 2024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p.60

〈표 7〉 다함께돌봄센터 학년별 돌봄 프로그램

구분		저학년 (1~2학년)	고학년 (3~6학년)
구성		놀이 및 휴식	학습 및 야외·체험활동
내용	단체	전래놀이, 보드게임, 안전교육, 구연동화, 야외놀이	창의로봇, 드론, 관람 및 견학, 체험, 캠프 활동
	개별	숙제, 일기, 독서, 그림 등	숙제, 일기, 독서, 글쓰기 등

출처 : 보건복지부(2024), 2024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p.63

## 4. 일상생활

### 1) 일상생활의 개념

사전적으로 일상생활은 날마다의 생활, 평소의 생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날마다의, 늘 하는, 평소 생활이 일상생활이다. 즉, ‘일상’이란 평소에는 소박한 것으로 인식하여 관심을 두지 않지만 우리가 매일 생활하고 있는 시공간의 총체적인 삶의 형태를 의미하며, 이러한 삶의 형태는 개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으로 그 시대, 그 사회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경미, 2009). 매일 되풀이되는 생활로서 씻고, 자고, 식사하고, 일을 하며 이동하는 것이 일상생활이며 매일 되풀이되어 습관화된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는 생활이다. 인간의 생활양식과 일상은 무반성적인 생활과 무의식적인 생활의 리듬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변기찬, 1998) 이는 생활을 유지하는 기본에 해당, 어느 누구나 매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그 시대 그리고 그 사회의 환경에 적응하는 일반적, 보편적인 삶의 형태이다(이경미, 2009). 이렇듯 일상생활은 우리가 속한 사회를 구조화하는 일의 연속이며, 사회에 의해 구조화의 연속으로 간주된다(김현정a, 2003).

‘일상’의 개념이 중요하게 대두된 것은 20세기 초로, 세계대전과 전체주의 체제로 인해 인류의 일상생활이 총체적으로 파괴되었던 경험은 일상생활의 문제가 서구사회에서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서구 지식인들에게 문화의 위기로 받아들여졌으며, Husserl(1962)은 위기의 극복을 위해 일상적 생활세계에 대한 철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일상생활의 세계는 모든 학문 논리의 의미 토대로, 학문적인 토론의 중심에 놓여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강수택, 1997).

인간의 일상생활은 그 다양성과 다중성으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데, 일상생활에 대한 몇 가지 학자들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Valentine(1929)은 일상생활을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면서, 주기적으로 되풀이되고, 지극히 평범하며, 우리가 당연시 받아들이는 그러한 세계"로 정의한다. Eyles(1958)는 "개인들이 자의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유지하고, 변형시켜 가는 근본적인 토대"라고 설명한다. Berger & Luckman(1966)은 "일상생활은 일상이 깨지지 않는 한 질서 잡혀있고, 당연시 여겨지며, 타자와 공유되는 더할 나위 없는 실재이며, 개인의 정체성의 근간"이라고 밝힌다. Heller(1971)는 "일상생활은 자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생산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개인적 재생산의 집합체"라고 정의한다. Maffesoli(1979)는 "일상생활은 한가지의 원인이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다원성의 세계이며, 여러 합리성들이 공존하는 세계"로 이해한다. (DeQueiroz, 1987)는 "사회생활의 구성요소로서의 일상생활과 총체로서의 사회와 공존하고 있는 총체로서의 세계"라고 정의한다.

또한, 유계숙, 최연실, 성미애(1999)는 일상생활을 "거기에 있을 것으로 당연히 여기는 경험적 세계"로 설명한다. 과거에 지나쳤고 현재 존재하며 미래에 살 것으로 가정하는 세계이며 "일상의 세계", "매일 매일의 세계", "상식 세계", "생활 세계"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이란 용어로 통용되며,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편형 상태를 일상성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Schutz, 1967).

일상생활에 대한 정의가 학자마다 다양한 만큼 개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Elias(1939)는 '일상(Alltag)'이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다양한 의미를 함축한 채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상의 개념에 반대되는 '비일상(Nicht-Alltag)'의 의미들을 찾아내어 일상 개념의 의미와 이해를 돕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일상생활은 사회적 구조와 관계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일상생활은 개인의 행동과 사회적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Durkheim(1912)은 일상생활을 사회적 사실로 이해하며, Goffman(1959)은 일상생활을 연극적 행위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심리학적 관점에서 일상생활은 개인의 심리적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상생활은 개인의 인지, 감정, 행동 등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Maslow(1954)는 인간의 욕구를 단계별로 구분하고, 일상생활에서 개인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행동한다고 주장하였으며, Freud(1900)는 인간의 무의식을 강조하고 일상생활에서 개인의 행동은 무의식적 충동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의 일상생활은 문화적 맥락에서 형성된다. Geertz(1973)는 문화적 상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Mead(1962)는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설명한다.

한편, 일상생활은 관계와 행위 그리고 공간 등의 다양한 개념을 통해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상생활은 24시간 단위로 반복되는 시간과 제한된 공간에서 타인과 관련된 혹은 관련되지 않은 모든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을 이해하고 규정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서 국민의 일상생활시간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일상생활을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상생활은 일상적인 시간에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를 위해 24시간을 쪼개어 각 시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혹은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모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종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행동이라 하더라도 행위 장소나 주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계청의 행동분류에서 학습이 학생을 주체로 할 때는 '학습'의 범주에 속하지만, 일반인을 주체로 할 때는 '교제 및 여가활동'에 속하는 것으로 나뉜다. 이러한 구분은 타당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면, 일상생활에 대한 다양한 의미 규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2) 학생들의 일상생활 연구

기존 학생들의 일상생활 연구는 학생들의 문화와 관련하여 대부분 진행되어왔다. 학생들의 일상생활 연구는 특정 집단의 특성, 상호작용 방식, 언어 및 행동의 가치와 규범 등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이러한 연구는 문화의 이해를 통해 인간의 물질적, 정신적 경험과 내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학생들의 일상생활을 연구함으로써 학생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이는 학생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즉, 학생들은 학교라는 환경 안에서 자신들만의 의미를 가지며 일상을 유지한다. 학생들의 일상생활은 학교라는 제도적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는 독특한 방식이며, 각자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낸 결과이다. 집단 속 개인은 공통된 경험을 가지지만, 각자 다른 의미를 부여하므로 집단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일상생활과 내적 의미를 이해하는데, 이는 개별 학생들의 일상에 대한 깊은 이해가 집단의 일상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었다. 정경필(2004)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여가활동이 스트레스 해소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홍우림(2007)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부모 양육방식이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 또한 김현욱(2008)의 연구는 초등학생의 인터넷 사용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금희(2005)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휴대폰 사용이 친구관계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고, 유영아(2007)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친구관계가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양인실(2009)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휴대폰 사용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이상우(2009)의 연구는 중학생의 여가활동이 스트레스 해소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보경(2003)의 연구는 고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 자살 충동 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이와 같이 학교 급수별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기존 연구들은 학생들의 문화와 관련하여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의 일상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생들의 일상은 학교라는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갖고 유지되며 이는 그들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결과이다. 집단 속 개인은 공통된 경험을 하지만, 각각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집단의 특성을 이해하려면 개인의 일상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알아야 한다. 일상생활 연구는 초등생의 여가 활동이 스트레스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주제로 연구되어 졌다. 이러한 연구들은 학생들의 일상을 이해하고, 그들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앞으로 학생들의 일상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 3) 초등학교 아동의 일상생활 연구

초등학교 아동의 일상생활은 학교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아동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며,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그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학교에서의 경험이 아동의 삶을 구성하고, 학교 경험의 질이 아동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의 일상생활은 크게 학교 내에서의 활동과 학교 밖에서의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 내에서의 활동'은 아침에 등교해서 하교할 때까지 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학습활동, 교우와의 친교 및 교류활동, 학교 적응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된다. '학교 밖에서의 활동'은 학원이나 가정에서의 과외활동, 방과 후 개인 학습, 휴식 및 여가활동, 개인생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김중식(2000)은 창원지역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외 활동 분석으로 아동의 하루 생활을 아침 활동, 오후 활동 그리고 저녁 활동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교의 아침활동은 약 1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기상 시각은 7시 14분 전후이고 등교시간은 8시 15분 전후이다. 아침에 하는 활동은 기본적으로 씻고 몸단장하기와 아침식사 등이 있으며, 학원 과외나 아침공부를 하는 학생도 약 23% 정도로 확인된다. 놀이로는 아침운동이나 TV 시청 등이 있지만, 이를 하는 학생은 적었다. 오후 활동에는 학원 과외가 약 75%, PC게임이 약 47%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상적인 집안일 돕기나 간식 먹는 등의 활동도 있었다. 저녁 활동에는 학원 과외, 독서, 학교 숙제 혹은 공부 등의 활동이 포함되며, 놀이로는 TV 시청이 많이 이루어지고, 집안일 돕는 활동이나 가족과의 대화 등이 있었다.

강현정(2005)은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일상생활을 현상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이 연구 결과, 초등학생들은 대학입시 준비를 위한 예비 수험생으로서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들은 자신의 선택 없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경험하며, 어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고 자기 존재와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가정, 학교, 학원 등에서 실존 상실 위기를 이해하고 주체적인 실존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김윤채(2001)의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아동의 일상생활은 거주 지역과 부모의 사회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도시지역의 아동은 주로 평일 방과 후에 규칙적인 학습에 시간을 할애하는 반면, 농촌지역의 아동은 숙제 이외에는 주로 컴퓨터 게임이나 TV 시청을 즐기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직업에 따라 전문직 자녀들과 일반직 자녀들은 특별한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반면, 노동직 자녀나 서비스직 자녀들은 학원을 가기도 하지만 숙제 이외에는 주로 TV 시청이나 게임을 즐기고 주말 활동 또한 도시지역 아동과 농촌지역 아동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다. 도시지역의 3학년 아동은 주로 집에서 숙제와 독서, TV 시청 등 시간을 보내는 반면에 농촌지역의 3학년 아동은 종교활동과 컴퓨터 게임, TV 시청을 주로 하루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아동의 방과 후 시간 활용 경향을 조사한 배순오(2000)는 저학년 아동이 기초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학원에 많이 다니고 있으며, 고학년 아동은 실기 능력의 신장을 위해 컴퓨터 또는 피아노학원에 많이 다닌다고 보고되었다.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은 대체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로, 저학년 아동은 부모님의 권유에 따라 다니는 반면, 고학년 아동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선택되어 진다.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아동의 일상생활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며, 지극히 평범하고, 매일의 세계로 이루어진다. 아동의 일상생활을 분석할 때, 학교에서의 경험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학교 내에서의 활동'과 '학교 밖에서의 활동'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경향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자들의 일상생활 활동의 개념정리와 생활시간사용을 기준으로 아동의 일상생활 활동을 가정생활, 학교생활, 다함께돌봄센터 및 학원생활, 아동보호체계의 범주로 활동을 분류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 5. 가족레질리언스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인한 돌봄 공백은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아동의 정서적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 레질리언스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 레질리언스는 가족이 스트레스나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는 가족 구성원 간의 소통과 협력, 가족 기능, 자아 탄력성, 가족 건강성, 사회적 지지와 가족의 지지 등 다양한 요인으로 구성된다.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일상생활과 가족 레질리언스를 분석함으로써, 돌봄 공백이 가족 레질리언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며 가족 레질리언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는 맞벌이가정의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자 한다.

### 1) 가족레질리언스의 개념

현대사회에서 가족들은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특정한 가족만이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가족은 다시 회복되어 행복한 삶을 누리며 어떤 가족은 슬픔과 분노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인간은 살면서 다양한 종류의 역경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나타나는 결과는 모두 같지 않으며, 같은 역경에도 다른 결과를 내기도 한다.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 이러한 물음에 답을 얻고자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 같은 상황에서의 역경에도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유 중 하나가 레질리언스(Resilience)라고 한다.

레질리언스의 사전적 정의는 강압적 스트레스에 의해 변형된 물체나 신체의 모양과 크기가 회복되려고 하는 능력(Merriam-Webster, 2006)이며,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회복력, 극복력, 복원력, 적응 유연성 및 탄력성 등의 여러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정신적 외상과 역경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치료하는데 유용한 개념(김현정b, 2023)이다. 사회학, 정신의학, 생물학, 심리학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심리학 분야에서는 인생의 심각한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여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인간의 능력으로 사용되고 있다(한선영, 2015). 이렇듯 레질리언스는 개인에게 닥쳐온 위협과 불확실한 조건들 속에서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역동적인 기제를 의미하며 ‘회복 탄력성’ 또는 ‘적응 유연성’으로 표현되어진다. McCubbin(2001)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산물’, ‘압력에서도 유능감의 유지’, ‘외상으로부터의 회복’, ‘보호요인과 위협요인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설명하였으며, Greene, Galambos & Lee(2004)는 회복 탄력성을 ‘개인으로 하여금 역경과 불행을 쉽게 회복하거나 적응하게 하는 능력으로 상당한 역경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적응 유연성에 대해서는 '개인의 생애주기에 강점과 약점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에 긍정적으로 적응하는 능력(Luthar, Cicchetti & Becker, 2000)'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이외에 학자에 따라 탄력성, 심리적 건강성, 회복력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레질리언스에 대한 초기 연구는 역경, 스트레스, 어려움 등 개인이 지난 결점 중심의 병리적 관점으로의 문제 중심 접근으로 바라보았으나 차차 개인의 강점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관점으로 전환하게 되었으며(배은경 외, 2017), 같은 스트레스 상황 또는 같은 종류의 역경을 경험하더라도 개인이 받는 영향은 각각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레질리언스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취약성을 인식하여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인다.

이처럼 기존의 레질리언스에 대한 초기 연구는 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두었으나, 점차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 상호작용 간의 영향을 미침을 알게 되어 환경의 영향 맥락에서 가족에 관한 내용으로 광범위해지기 시작하였다(Coyle, 2005).

가족 레질리언스는 가족의 생애주기에서 맞게 되는 고난과 역경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가족이 불행한 사건과 위협에 처하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적응하는 힘이다(Herrman et al., 2011). 즉, 어려운 시기에도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힘이며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역경으로 인해 흔들릴 때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가족 레질리언스는 '역경으로부터 되돌아와 더욱 강해져 자원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위기와 도전에 반응하여 인내하고 스스로 회복하고 성장하는 역동적 과정'을 의미한다(Walsh, 2002). Walsh(1998)는 레질리언스 개념에 대해 '취약하지 않음'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을 통해 효과적으로 맞서 '잘 견뎌내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단지 상처를 입거나 곤궁에 처한 상태를 수용하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가족 본래의 상태로 회복하고 극복한다는 적극성을 뜻하고 있다.

정민자(2016)는 가족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더라도 오뚝이처럼 회복하여 복귀하는 능력을 가족 레질리언스로 정의하였다.

가족과 관련된 연구에서 가족 레질리언스에 대한 정의들을 종합해보면 첫째, 가족이 위기와 역경에 적응하여 변화를 시작할 때 함께 협력하는 가족의 특성이나 속성, 차원을 말하며 둘째, 시련에 닥쳤을 때 대처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가족의 강점을 말한다. 셋째,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인내하는 능력과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다(Valentine & Feinauer, 1993). 넷째, 위기와 역경을 스스로 견디고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 극복하는 능력이다(Wolin & Wolin, 1993).

위의 정의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곤경에 직면하였을 때 표면화되며 둘째, 탄성의 속성을 지니며 셋째, 병리보다는 건강의 관점으로 가족을 조명하는 개념으로 보고있다(Hawley & Dehaan, 1996). 따라서 가족 레질리언스의 접근은 가족들이 파괴적인 삶의 도전들로부터 다시 일어서서 삶을 지탱하게 하는 주

요 상호 과정들을 규명하고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족에게 위기나 역경은 항상 고통스럽고 힘이 들지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기도 하며, 이러한 시간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한 가족은 변화된 모습을 통해 새롭고 행복한 시작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이러한 가족 레질리언스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연구로 다양한 가족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2) 가족레질리언스의 하위요인

가족 레질리언스의 하위요인은 시대에 따라 많은 학자에 의해 다양하게 제시되었으며, 학자의 관심과 주제에 따라 가족레질리언스를 구성하는 내용 또한 달라질 수 있다. 이에 가족 레질리언스를 구성하는 내용, 즉 하위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주제에 따라 연구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학자에 따라 제시되는 가족 레질리언스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Cowen과 Hetherington(1991)은 응집력, 유연성, 공개적 의사소통, 신념체계, 문제해결로 제시하였고, Singer와 Powers(1993)는 유연한 의미해석, 균형 잡힌 대처, 유연한 상호의존으로 제시하였다. McCubbin과 McCubbin(1988)은 초기에 가족의 문제해결과 대처전략, 의사소통, 내구력, 응집력, 사회적 지지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후 가족 형태, 가족 도식, 가족 자원, 가족 기능, 문제해결과 대처, 사회적 지지 등으로 일부 수정하기도 하였다(McCubbin, McCubbin & Tompson, 1993). Silliman(1994)은 의사소통, 응집성, 적응성, 영성, 연결성, 위임, 시간, 공유, 효율성 등의 요인을 제시하였고 Barnard(1994)는 가족 레질리언스의 하위요인을 부모와 아동 간의 적합성, 청소년기 동안의 이혼부재, 가족의식, 긍정적 수용성, 가정 내 갈등의 최소화, 아동과 생산적인 관계로 제시하였다. Cowan과 Schulz(1996)는 응집력, 유연성, 공개적 의사소통, 문제해결, 신념체계를 가족 레질리언스의 요소로 보았다. Lin(2000)은 영적 지지와 긍정적인 수용을 구성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Walsh(1998)는 가족신념체계, 조직 유형, 의사소통과정으로 제시하였고, Black과 동료들(2008)은 긍정적인 견해, 영성, 가족 구성원의 조화, 융통성, 의사소통, 재정관리, 가족시간, 가족의례, 지지연결망으로 제시하였다.

Walsh(2002)는 가족의 주요 요인인 세 가지를 유의한다면 가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취약점을 감소시킬 수 있고, 역경에서 벗어나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데 필요한 레질리언스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Walsh(2002)의 이론은 가족적응을 보다 강조하고 있으며 가족 레질리언스를 가족 과정의 차원에서 구조적, 기능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가족의 역동적인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Walsh(2002)가 제시한 가족 레질리언스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가족신념체계(Belief system)

신념체계(Belief system)는 모든 가족기능의 핵심이며, 가족 레질리언스의 본질과 정신으로 강력하나 힘이다. 신념체계는 가족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삶의 과정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틀의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는 확신, 가치, 태도, 편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신념은 행동을 활성화하거나 억제하는 기능이 있으며 행동의 결과로 신념은 더욱더 강화될 수 있거나 때로는 변화되기도 한다(Walsh, 2002).

가족의 신념은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가족이 대처하는 방식을 통해 그 시점이 유익한 것인지 아니면 실패로 끝나게 할 것인지를 가늠하게 한다. 가족 신념체계에는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긍정적 시각, 초월과 영성의 세 가지 하위 요소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 ①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가족에게 위기와 역경이 닥치면 고통의 시기가 오는데, 이 시기에 가족 구성원들은 신뢰받는 파트너 혹은 친척으로 서로 의지할 수 있다고 믿으면 최선을 다해 위기와 역경을 극복하고자 노력한다. 가족은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인지하며 이것을 공유하여 위기 상황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다(송순인, 2010). 역경의 의미는 가족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 가능하며 역경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는 가족레질리언스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Antonovsky & Sourani, 1988).

다양한 가족이 생겨나고 가족에 대한 개념 또한 변화되고 있지만, 건강한 가족의 기초는 친지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가족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을 통해 서로 협력하도록 한다. 이는 가족 구성원들 간 강한 신뢰감을 가지게 되며 서로에게 충성과 믿음을 지속할 때 역경을 잘 이겨낼 수 있다(변영인, 2006).

#### ② 긍정적 시각

긍정적 시각은 위기나 역경 앞에서 잘 견디며, 잘 투쟁할 수 있는 능력인 초 불굴의 인내로 가족레질리언스의 핵심 요소이다. 레질리언스가 높은 가족은 고난과 역경을 도전으로 인식하여 이를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정복하기 위해 위기에 적극적으로 접근한다. 이러한 가족들은 가족의 강점과 가능성을 확신하고 희망을 잃지 않으려 스스로 노력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고난과 위기에 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도 변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성장하는 기회로 여긴다. 또한 희망을 주는 지지적인 관계는 가족이 압도적인 고통에 직면해서도 용기를 가지고 유지할 수 있게 한다(Weston, 1991). 가족이 긍정적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용기와 격려가 필요하다.

### ③ 초월과 영성

개인은 중요한 관계 안에서 가장 최대로 생존하고 번영하는 것처럼 가족은 더 큰 체계와 연결될 때 가장 많이 성장한다(Walsh, 1998; 양옥경 외 역, 2002). 초월적 가치체계는 삶을 중요한 것으로 정의 내리도록 하며, 비극의 시대에서도 더 나은 날을 위한 노력과 핵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이상적 신념으로 요구된다(Walsh, 2002). 다수의 가장 기본적인 신념은 종교와 영성으로 형성되는데, 고통은 가족을 영성의 영역으로 초대한다(Wright & Waston & Bell, 1996).

종교와 영성은 역경에 직면한 가족에게 이해를 넘어서는 의미와 평안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가족 구성원의 개인적인 믿음은 가족이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지지해 준다(Walsh, 2002). 초월과 영성은 보다 큰 가치와 목적을 지향하며, 역경을 학습의 기회로 인식하여 성장한다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김미애, 2021).

## (2) 조직유형(Organizational pattern)

조직유형(Organizational pattern)은 위기와 역경에 대한 완충장치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스트레스를 중재하고, 변화하는 가족의 내·외적 상황에 맞도록 가족을 재조직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송순인, 2010). 가족의 조직과정은 융통성, 연결성, 사회 및 경제적 자원의 세 가지 하위 요소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 ① 융통성

융통성은 가족이 조직과정에서 안정성과 변화 사이에서의 역동적인 조화를 통해 생활 도전에 반응하며 변화를 허용하는 안정된 가족구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할 때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가족은 어떠한 형태든 긍정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융통성이 있고 선호하는 규칙 유형을 유지함과 동시에 변화하는 발달적 환경적 요구에 적응해야 한다. 가족이 잘 기능하기 위해 예측이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규칙들, 역할들, 상호작용 패턴의 안정성이 필요하다(Walsh, 2002). 가족 구성원이 위기와 역경을 극복할 수 있려면 안정성과 변화에 대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Walsh, 2002).

### ② 연결성

연결성은 개인이 자율적으로 분리와 동시에 연합, 상호지지, 상호협력하는 것을 ‘연결성’이라고 한다(Walsh, 2002).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 간의 명확한 경계를 인정하고 유지하면서 자신의 사고나 감정, 행동에 각자가 책임을 진다. 응집력이 높은 가족은 개인의 관심이나 강점을 잘 조직할 수 있기 때문에(김미옥, 2001), 가족 경계는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강화하여 체계의 분화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Minuchin, 1974). 경계는 부모와 성인 보호 제공자의 강력한 리더십 및 권위를 강화하며, 양육 및 훈육과 같은 이슈를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한다. 또한 경계는 부부관계를 자녀나 확대가족의 관여로부터 배타적으로 보호한다(Walsh, 2002).

### ③ 사회 및 경제적 자원

가족이 외부의 자원을 동원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친지나 확대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지지망을 확립하는 것으로 사회 및 경제적 자원이라고 한다(박무성·정민자, 2015). 가족이 내·외적으로 환경과 인적 자원을 얼마나 잘 조직하고 있는가와 관련이 깊으며, 레질리언스가 있는 가족은 개방체계를 유지하고 외부로부터 유용한 자원을 적절히 사용한다. 위기의 상황에서 이들은 주변에 다양한 사회 및 경제적 자원을 적절히 사용하여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정수경, 2010). 경제적 자원은 가족에게 짐이 되는 다른 사회적인 문제와 부족한 자원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가족의 경제를 기반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한다. 즉 가족 간 사회적인 네트워크는 위기 상황에서 완충 역할을 하게 된다(Walsh, 2002).

### (3) 의사소통과정(Communication process)

의사소통과정은 가족이 상호작용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이며, 가족 구성원들은 위기와 역경의 상황에서 명확하고 개방적인 소통과정으로 함께 위기를 대처할 수 있다(Walsh, 2002). 또한 의사소통은 사회·경제적, 실제적, 도구적 문제해결을 포함하는 정보의 교환이다(Walsh, 2002). 좋은 의사소통은 일상의 가족 기능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필요성은 역경의 시기에 더욱 확대된다(Sixbey, 2005). 의사소통과정은 명료성, 개방적 정서 표현, 상호협력적인 문제해결의 세 가지 하위 요소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 ① 명료성

건강한 가족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일관성 있는 정직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다. 가족 구성원들의 메시지는 의도했던 사람에게 바로 전달되어 서로가 이해하고 공유하며 행동적 메시지와 언어적 메시지가 일관성이 있으며 일치한다(Walsh, 2002). 이처럼 가족 안에서 의사소통과정이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다면 가족 구성원 각자의 위기로 인해 발생한 손상에 대한 빠른 치유를 촉진시켜 역경 극복에 도움을 주며, 가족레질리언스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김미옥, 2001).

#### ② 개방적 정서표현

개방적 정서표현은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서로의 의견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개방적인 정서표현이 가능한 가족은 즐거움과 희망뿐만 아니라 고통과 슬픔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정서를 공유할 수 있다. 건강한 가족 구성원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호 비난하지 않으며, 자신의 행동과 감정에 스스로를 책임진다. 긍정적인 감정의 표현은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상쇄하며(Walsh, 1998), 위기와 역경의 상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기능적인 가족이 될 수 있다(김경순, 2010).

### ③ 상호협력적인 문제해결

기능적인 가족이란 문제 없는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갈등을 잘 다룰 수 있는 가족을 의미한다(Walsh, 2002). 상호협력적인 문제해결은 갈등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으로 가족이 문제를 예방하고 미래의 위기와 도전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유순희, 정민자, 2013; 정민자, 윤선아, 2014; 정민자, 윤경원, 2016). 기능적인 가족은 위기 상황에서 문제와 관련된 요인이 무엇인지 구체화하고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협상, 타협을 통한 의사결정으로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정수경, 2010).

## 3) 가족 레질리언스의 선행연구 고찰

가족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가족 레질리언스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가족 레질리언스는 탄력성 혹은 적응 유연성이라는 용어로 사용되며, 탄력성이 있는 경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응하게 되고 심각한 위협에도 적응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고 스트레스 상황을 견뎌내어 불리한 조건에서 일어나는 능력(유수희, 2004)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성장시킴으로써 가족관계 안에서 최선의 것을 도출하여 그들의 생존능력과 성장에 대한 잠재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김안자, 2009)이다.

Walsh(1998)는 가족 레질리언스를 가족을 하나의 전체적 기능단위로 보고 기능단위로서의 가족 안에서 경험하는 대처와 적응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계의 내구력을 촉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가족이 경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조정하고 위기를 극복하며 오래된 역경을 견딜 수 있게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하였다.

가족 레질리언스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가족 레질리언스 논문이 1999년에 처음 발표되었으며 2000년대 후반에 이르러 본격적인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하였다(박혜란, 전귀연, 2012). 초기에는 대부분의 연구가 고난과 역경에 처한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점차 일반가족에게도 적용되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연구대상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알코올 중독자 가족, 빈곤가족, 치매가족 등 다양해졌으며 연구방법 또한 양적연구에서 질적 연구로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박혜란, 전귀연,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레질리언스와 관련된 선행연구 중에서 질적 연구에 보다 초점을 두어 살펴보려고 한다.

2000년대 이후 국내에서 가족과 부부를 대상으로 한 가족 레질리언스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장애아동가족(김미옥, 2001; 오승아, 2002), 재혼가족과 이혼여성 한부모 가족(안순옥, 2008; 임유미, 2007), 알코올중독자 가족(안연선 외, 2010; 홍정남, 2007; 황동섭, 2013), 정신분열병 환자 가족(이민아, 2006; 이은희, 2000), 치매노인 부양가족(유용식, 2007; 유수희, 2004; 조영선, 2005) 등과 같이 가족관계와 가족 구

성원의 삶에 회복과 변화를 요구하는 가족 레질리언스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국내에서도 가족탄력성에 대한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가족 연구에 가족탄력성 이론이 적용되고 있다. 김미옥(2001)과 오승아(2002)는 장애 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탄력성 연구를 하였고, 이은희는 정신분열증 환자 가족의 부적응에 대한 연구(2000)와 한부모가족의 적응에 가족탄력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2009)를 실시하였다. 이선애(2004)는 만성질환아 가족의 가족 적응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조영선(2005), 윤수희(2004)의 비장애형제의 긍정적 태도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 연구에 가족탄력성 이론이 적용되었다.

가족탄력성은 가족의 적응과 부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부부 폭력을 중심으로 한 기혼 남녀의 레질리언스 예측성 연구를 통해 가족 레질리언스의 구성요소가 기혼 남녀의 부부간의 폭력에 대한 판별 예측력이 높으며 이를 활용해 가족 폭력의 위험 정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방현주 외, 2006).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가족 레질리언스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데, 가족 레질리언스가 위탁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위탁가정의 가족 레질리언스가 높을수록 아동의 심리·정서 및 행동 문제가 낮아지며, 사회적 능력은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하였다(김은정, 2007).

가족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며, 가족 기능, 자아탄력성, 가족 건강성, 사회적 지지와 가족의 지지가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가족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고, 가족 기능, 자아탄력성, 가족 건강성, 사회적 지지와 가족의 지지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Ⅲ. 연구 방법

#### 1. 합의적 질적 연구

합의적 질적 연구(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방법은 연구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 중심의 접근을 통해 경험과 의견을 중심으로 실제 상황과 더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풍부하고 포괄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자들 간 합의를 통해 데이터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며, 다수의 연구자의 데이터 검토를 통해 편견을 최소화하고, 예기치 않은 발견이나 새로운 통찰을 연구에 통합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 1) 합의적 질적 연구의 특징

합의적 질적 연구(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는 질적 연구방법에서의 한계점을 개선하고자 등장하였으며 기존의 질적 연구방법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질적 연구방법은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그 종류도 다양한데, 질적 연구방법을 분류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근거이론, 내러티브 연구, 문화기술지, 사례연구, 현상학적 연구, 합의적 질적 연구 등이 있다. Hill & Thomson & Williams(1997)은 질적 연구의 본질을 그대로 지켜내면서 질적 연구의 단점을 보완하며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 각각의 장점을 채택한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이하 CQR)을 개발하였다(주은선, 2016; 정미라, 2018). CQR은 질적 연구에서 연구참여자 기술의 모호한 점과 객관성의 결여, 이해의 어려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Strauss & Corbin(1990)의 근거이론과 Giorgi(1985)의 현상학적 이론 그리고 Elliot(1999)의 포괄적 과정 분석을 결합하여 개발된 방법이다(Hill et al., 1997).

Hill 등(2005)에 따르면 CQR은 다음의 특징들을 갖는다. 첫 번째, 적은 수의 표본을 사용한다. 적은 수의 표본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는데 이는 소수의 연구만 진행되어 개인의 내적 경험에 대한 특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질문 내용이 모호할 때 사용하는 탐색적 연구 방법이다(Hill et al., 1997; Hill, 2011). 두 번째, 심층 면담을 위한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지를 이용하여 참여자의 경험을 보다 깊이있게 분석한다. 세 번째, 자료 분석 과정에서 여러 명의 분석가를 활용한다. 자료의 객관성을 높이며 자료 분석 방식은 귀납적이다. 네 번째, 모든 판단은 3~5명의 연구자의 합의가 필요하며, 연구자들은 합의를 해나가는 과정 중에 자료를 개별적으로 검토

하고 모든 구성원이 자료에 대한 최선의 설명이라고 동의할 때까지 토의한다(Hill et al., 1997). 다섯 번째, 윤리와 신뢰성, 그리고 문화에 주목하는데, 합의적 질적 연구 자체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연구 시 윤리 지침에 따라 신뢰성 있게 행동하고 문화의 차이를 존중한다(주은선, 2016). 연구할 때 이해가 가지 않거나 합의를 끌어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초기의 원자료로 돌아가 자료를 재검토해야 한다(주은선, 2016).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의 개인적 경험사례를 연구하기에 적합하고, 현장에 대한 탐색경험을 바탕으로 이해와 경험을 끌어내는 데 효과적인 방법론이라 판단되어 CQR 연구방법으로 적용하였다.

## 2) 합의적 질적 연구의 절차

본 연구는 주은선(2016)의 절차를 적용하여 네 개의 단계로 구분하여 합의적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내용을 단계별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첫 번째 단계는 초기 단계로,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합의팀을 구성하며 연구에 필요한 질문지를 작성한 후 참가자를 모집한다. 그들이 자기의 경험을 말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지를 구성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자료는 이메일, 설문지, 면담을 통해서 수집할 수 있으며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분석을 위해 녹취를 통해 축어록을 작성하는데, 축어록 작성 시 참가자들의 몸짓, 어조, 표정을 메모하여 참고하여 작성한다.

두 번째 단계는 사례분석이다. 먼저 참가자가 말한 내용을 영역별로 요약하여 그들의 관점에서 핵심을 명료화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영역별 내용 요약에는 참가자가 말한 내용을 영역별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서 참가자가 말한 내용을 다시 요약하여 참가자가 말한 내용이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리고 합의팀 논의가 진행되는데, 요약 반응을 구성한 후에는 합의팀이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참가자의 말을 문맥에 맞게 해석하고, 참가자의 말을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참가자의 말을 발췌한다. 합의팀이 사례별로 영역과 핵심 개념에 대해 연구자들의 합의가 되었다면 감수자가 그 내용들을 검토하고, 필요한 수정사항을 제안한다. 합의팀은 다시 감수 내용에 따라 영역과 핵심 개념을 수정하는데, 문맥에 맞게 수정하여 참가자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결과를 신뢰성 있게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 단계는 교차분석으로 참가자들의 공통적인 내용과 경험들을 사례별로 탐색한다. 탐색한 것을 바탕으로 영역 내 범주를 개발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다.

네 번째는 원고를 작성하는 단계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개념과 범주를 바탕으로 원고를 작성한다. 이때, 원자료를 끊임없이 읽고 범주와 개념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명확하게 내포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수정과 반복의 작업을 진행한다.

[그림 5] 합의적 질적 연구의 단계(주은선, 2016)



## 2. 연구참여자

### 1) 연구참여자의 선정

본 연구는 00광역시 내 운영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과 돌봄교사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우선 이용 아동의 선별 과정에 있어서 저학년은 질문지의 용어 의미와 해석의 능력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상자로 제외하였다. 이에 센터를 2년 이상을 다닌 초등학생 고학년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내용은 돌봄교사의 면담을 통하여 이를 보완하였다. 대상자의 모집은 센터의 센터장님과 교사의 협조를 받아 대상자를 추천받았으며, 대상자의 부모님께서는 사전에 센터를 통해 연구목적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 진행되었다. 심층 면담 시작 전, 연구에 대한 설명서와 동의서를 제공하였으며, 설명서에는 심층 면담 자료의 활용 방법, 녹음 그리고 면담 도중 참여를 중단할 권리와 개인 정보 보관 기간 및 폐기 시점이 포함되어 있다. 참여자는 참여를 결정하기 전에 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부모님의 동의를 구한 후 연구 참여 여부를 결정하였으며, 이들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사례번호를 부여하여 익명성을 보장하였다. 이에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충족하는 아동 20명과 돌봄교사 2명을 선정하였다.

### 2)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다함께돌봄센터 대상 이용 아동은 20명(A센터 8명, B센터 12명)이며, 각 센터당 돌봄교사 1인을 대상으로 한 참여자 일반적 특성은 표8 과 같

다. 먼저 대상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여아가 12명이며 남아가 8명으로 총 20명이다. 4학년은 9명, 5학년은 6명, 6학년은 5명으로 나타났으며, 종교는 기독교 3명, 무교가 16명, 불교 1명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모두 맞벌이가정으로 그중에서도 한부모 가정이 2가정, 다문화가정이 1가정, 다자녀가정이 2가정, 주말부부 2가정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 중에 각각 부자가족이 1가족, 모자가족 1가족으로 나타났다. 동거 가족의 현황은 부모와 동거하는 아동은 모두 해당되며, 부모와 조모가 함께 동거하는 가족은 1가족으로 나타났다.

〈표 8〉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아동의 일반적 특성							
사례	아동	성별	나이	가족형	구성원	종교	근무형태
1	A	여	13	맞벌이	부모, 언니(15)	기독교	주 5일
2	B	여	13	취업 한부모	아빠, 남동생(12)	무교	교대근무
3	C	여	12	맞벌이	부모, 여동생(11)	무교	주 7일
4	D	여	12	취업 한부모	엄마	무교	주 5일
5	E	남	12	취업 한부모	아빠, 누나(13)	무교	교대근무
6	F	남	12	맞벌이/ 다자녀	부모, 형(21), 누나(18)	무교	주 6일
7	G	남	12	맞벌이/ 다문화	부모, 조모	무교	모:주 6일 부:주 7일
8	H	여	11	맞벌이	부모, 남동생(8)	무교	주 5일
9	I	여	13	맞벌이/ 다자녀	부모, 여동생2(3,7)	무교	부:주 6일
10	J	여	13	맞벌이/ 주말부부	부모	무교	주 6일
11	K	남	11	맞벌이	부모	무교	모:주 6일 부:교대근무
12	L	남	11	맞벌이/ 주말부부	부모, 누나(19)	무교	주 5일
13	M	여	11	맞벌이	부모, 언니(15)	무교	모:주 5일 부:주 7일
14	N	여	12	맞벌이	부모, 남동생(5)	불교	모:주 5일 부:교대근무

15	O	남	11	맞벌이	부모, 형(14)	무교	모: 주 5일 부:교대근무
16	P	남	11	맞벌이	부모, 동생()	무교	모:프리랜서 부:교대근무
17	Q	여	11	맞벌이	부모, 동생(7)	무교	모: 주 5일 부: 주 6일
18	R	여	11	맞벌이	부모, 오빠(13)	기독교	모: 주 5일 부: 주 6일
19	S	여	13	맞벌이	부모, 남동생(11)	기독교	주 5일
20	T	남	11	맞벌이	부모	무교	모: 주 5일 부:주 6일
돌봄교사의 일반적 특성							
센터	직급	연령	성별	돌봄교사 근무경력		면담일자	
				총경력	현기관경력		
A	교사	55	여	6년 5개월	2년 1개월	2023.06.	
B	교사	40	여	5년 2개월	2년 4개월	2023.07.	

### 3. 자료 수집

본 연구는 대상자와의 심층 면접 과정을 통해 대화의 내용을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자료수집 도구로는 녹음기, 면접 기록지 그리고 아동의 일과표 등으로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지 개발은 2023년 1~2월에 이루어졌으며, 대상자 섭외는 5월 그리고 면접을 통한 자료수집은 6월에 이루어졌다. 면담 진행 시, 충실도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모두 녹음기로 녹취하였으며, 면접을 통해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개인마다 1~2회 심층 면접을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접 장소는 아동의 안전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내 교실에서 이루어졌다.

### 4. 자료 분석 절차 및 방법

#### 1) 분석 절차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연구를 위한 면담 질문지는 학생과 돌봄교사로 구분하였다.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질문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면접 참여자의 기본적인 사항과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고학년 아동의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일상생활 분석을 위해 가정생활, 학교생활, 다함께돌봄센터 및 학원생활,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의 내용으로 총 27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아동의 주중·주말 일과표를 구성하였다. 아동의 주중·주말 일과표는 24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시간대별로 아동이 누구와 무엇을 하며, 어디에 있으며, 부모와는 함께 있는지, 그리고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의 존재 여부를 표로 작성하여 아동의 전반적인 일상생활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참여자의 응답에 따라 사용한 시간의 평균을 계산하여 하루 중 돌봄공백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아동의 가족 레질리언스 분석을 위해 Walsh(1998)가 제시한 레질리언스 관점을 기반으로 가족신념체계, 조직과정, 의사소통과정의 3개의 요소와 각각의 하위영역에 따른 요소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선행 논문(여수분, 2013)을 참고하여 인터뷰 질문을 작성하였으며, 지도교수의 피드백을 받아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가족신념체계로는 9문항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관, 신념, 태도 등을 측정하기 위한 내용이며, 조직유형에는 15문항으로, 가족의 구조와 역할 및 상호작용 등을 측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의사소통과정에는 6문항으로 가족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방식, 내용, 빈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총 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돌봄교사의 경우에는 돌봄교실 아동의 선정부터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면담이 이루어졌다. 면접 자료는 검토하여 사례별 특성을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Walsh(1998)의 가족 레질리언스의 이론을 참고하여, 공통점이나 유의미한 내용을 주제별로 범주화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 2) 자료 분석 및 해석

심층면접 종료 후 녹취록과 기록을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반복적인 녹취와 기록 확인을 통해 주제를 구분하였고 주제별 세부 항목을 구성하였다. 심층 면접을 통하여 나온 자료는 면접을 마치고 동시에 녹음된 면접내용을 전사하여 합의적 질적 연구(CQR)의 분석 방법에 따라 사례분석, 교차분석, 쓰기의 과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성하였다. 1단계로 녹음된 면접내용을 글로 옮기는 작업으로 녹음된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파악하여 작성하여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2단계로 주제가 연구의 목적과 관련이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의하고자 전사한 내용을 반복해서 들으며 주제를 구분하였다. 3단계로 구분한 세부 항목을 주제별로 구성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4단계로는 합의적 질적 연구(CQR)의 분석 방법에 따라 사례분석, 교차분석, 쓰기의 과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명확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문제의 답이 되는 결과에 초점을 맞춰 기술하는 단계를 통해 연구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 5. 연구 절차에 대한 평가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링컨과 거바(Lincoln & Guba, 1985)가 제시한 네 가지 기준, 즉 진실성(truth value), 적용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첫째, 진실성(truth value)은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검토하는 요소로, 연구참여자의 인터뷰 자료의 진실성을 훼손하지 않고 높이기 위해 연구자의 주관적인 관점을 최소화하고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그들이 전하는 그대로 수집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 과정에서 최대한 연구참여자와 rapport를 형성하여 사실적인 자료를 수집하고자 노력하였다. 추가로 인터뷰 내용을 기록한 후에 연구참여자에게 다시 확인하는 과정 또한 거침으로 연구의 진실성을 더욱 높일 수 있었다.

둘째, 연구의 적용성(applicability)은 연구 결과가 연구 이외의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연구 결과를 읽는 독자들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의 대상과 방법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연구 결과 또한 다양한 맥락에서 적용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자료가 충분히 수집될 때까지 노력하였다.

셋째, 연구의 일관성(consistency)은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와 분석 결과가 일관성의 여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 방법, 분석 과정, 자료 수집 과정을 꼼꼼히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질적 연구로 가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2인에게 자문을 통해 지도·감독을 받았으며 인터뷰 내용을 피드백 받아 수정함으로써 일관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넷째, 연구의 중립성(neutrality)은 연구 과정에서 결과와 편견이 배제되지 않고, 연구자의 의도대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어떠한 의도와 결과에 대한 예측 없이 임하였으며, 자료에 나타난 실재에 따라 수행하고자 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의 일상생활 분석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맞벌이 가족 자녀 아동의 24시간 일상생활을 알아보기 위해 면접내용을 토대로 하여 작성된 아동의 평일·주말 일과표를 활용하였다.

아동의 평일·주말 일과표는 시간대별 아동의 생활을 나타낸 것으로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그 시간에 부모와 함께인지 그리고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가 존재하는지 등을 나타내어 아동의 전반적인 생활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24시간 분석을 토대로 돌봄의 공백을 확인하고자 하며, 일상생활이 항상 규칙적으로 일어날 수 없으므로 참여자의 응답에 따라 사용한 시간의 평균을 계산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아동의 일상생활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4가지 범주인 가정, 학교, 다함께돌봄센터 및 학원,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에 관한 내용은 총 27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아동의 평일·주말 일과표를 구성하였다. 아동의 보호체계는 돌봄공백이 발생할 때, 아동에게 적절한 보호자 또는 지역사회의 돌봄서비스 기관이 대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된다. 평일·주말 일과표는 모두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의 면접내용을 바탕으로 사례별 아동 단위로 작성하였으며, 평일·주말 일과표에 설명된 내용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가족 레질리언스를 분석할 때, 부가적 설명하거나 활용하였다.

#### 1) 사례 1 : 아동 A의 일상생활

아동 A의 평일은 부모님의 늦은 퇴근으로 인해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적고, 언니와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부모님을 기다린다. 주말에 아버지는 주로 취미생활로 나가시고 어머니와 언니와 함께 교회에서 시간을 보낸다. 주말 저녁식사를 위해 함께 모여 그 시간에 대화를 나눈다. 학교가 끝나면 센터로 이동하여 간식을 먹고 친구들과 만나며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센터에서 뮤지컬 준비로 노래와 춤을 배우는 시간을 보내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아동의 보호체계는 가정, 학교, 센터, 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중에는 센터가 주말에는 가정과 교회가 보호체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 (1) 가정생활

아버지와 어머니, 언니(15)와 함께 살고 있으며, 부모님 모두 직장생활을 한다. 아버지는 보통 9시가 넘어서 퇴근하시며, 어머니는 이르면 7시, 보통의 퇴근 시간은 10시이다. 평일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은 퇴근 이후의 시간으로 아동과 함께하는

시간이 매우 적다. 언니는 중학생으로 학교를 마치면 집으로 오는데, 부모님이 없는 시간을 언니와 함께 집에서 보낸다. 상황에 따라 각자 방에서 온라인강의를 듣고 저녁을 먹기도 하고 강의 전에 먹기도 한다. 햄스터를 키우고 있으며 가족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없는 시간에 햄스터를 돌보는 등 시간을 보낸다. 주중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없으므로 짧게 아동이 하루에 있었던 일들로 대화를 나눈다. 부모님이 아동이 시간대별로 무엇을 하는지는 알고 있었다. 주말에는 어머니, 언니와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으며, 아버지는 낚시를 가신다고 한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주말 저녁 식사 시간이 유일하며 그 시간에 대화를 나눈다. 아버지와 대화는 이전에는 많았었는데 지금은 아동이 사춘기라고 표현하기도 하면서 많이 줄었다고 한다.

(2) 학교생활

등교 시간부터 14시까지 학교에 있으며 수업, 점심, 친구들과의 시간을 가진다. 정규수업이 끝난 후 다함께돌봄센터로 이동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 생활

14시부터 18시까지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에서 지내며 간식과 친구들과 자유시간을 가지며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을 받기도 한다. 또한 센터 친구들과 뮤지컬 준비로 노래와 춤을 배우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4)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아동의 보호체계는 가정과 학교, 센터, 교회이며 주중에는 가정 다음으로 센터가, 주말에는 가정과 교회가 보호체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표 9-1〉 아동 A의 주중 일과표

시간	0-7	7-8	8-14	14-18	18-22	22-24
누구와	부모, 언니	부모, 언니	교사, 친구	교수, 친구	언니	부모, 언니
무엇을	취침	기상, 식사, 등교	공부, 식사	놀이, 간식, 공부, PG	식사, 숙제, 온라인강의	취침
어디서	집	집	학교	센터	집	집
부모	○	○	X	X	X	○
보호체계	○	○	○	○	X	○
24시간분석	7시간	1시간	6시간	4시간	4시간	2시간

〈표 9-2〉 아동 A의 주말 일과표

시간	0-9	9-14	14-18	18-19	19-22	22-24
누구와	부모, 언니	모, 언니	모, 언니	부모, 언니	부모, 언니	부모, 언니
무엇을	취침	종교활동, 식사	TV시청, 놀이	식사	TV시청, 숙제	취침
어디서	집	교회	집	집	집	집
부모	○	○	○	○	○	○
보호체계	○	○	○	○	○	○
24시간분석	9시간	5시간	4시간	1시간	3시간	2시간

2) 사례 2 : 아동 B의 일상생활

아동 B는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사고로 1년 전에 돌아가셨으며, 현재 한부모가정으로 아버지 그리고 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 아버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돌봄의 공백은 조모가 가까이 거주하여 평일 저녁 식사를 챙겨주고 있다. 학교, 방과 후 돌봄이 끝나면 센터로 이동한다. 센터에서 간식을 먹고 끝나는 시간까지 머물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아동의 보호체계는 가정, 학교 센터 그리고 조모로 구성되어 있으나, 조모는 함께 거주하지 않아서 식사만 챙길 수 있는 정도며 아버지의 근무형태에 따른 공백 또한 여전히 발생되고 있어 보호체계가 미흡한 수준이다.

(1) 가정생활

아버지와 남동생(12)과 함께 살고 있으며, 어머니는 1년 전 사고로 돌아가셨다. 어머니의 부재를 조모가 채우고 있다. 아버지는 교대근무로 아버지가 없는 집에서 의 시간은 동생과 함께 보낸다. 조모의 집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으며, 평일 저녁 식사를 챙겨준다.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아버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최대한 식사 시간을 지켜 대화의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편안한 대화는 유지되고 있으며, 대화의 내용은 아동의 하루 일상을 나눈다.

(2) 학교생활

등교시간부터 14시까지 학교에 있으며, 정규수업이 끝난 이후에는 방과 후 돌봄에 참여한다. 요일에 따라 학교 복지실에서 이루어지는 댄스 및 배구를 배운다.

(3) 다함께돌봄센터 생활

15시부터 18시까지 센터에 있으며, 요일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본인이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센터에서 진행되는 스포츠 프로그램이 즐거우며, 영어 뮤지컬을 준비 중으로 노래 연습을 한다.

(4)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아동의 보호체계는 가정과 학교, 센터이며 가정은 사실상 보호체계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 조모가 식사 등 긴급할 시, 돌봄의 공백을 채우고 있으며, 평소의 일상에서는 함께 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버지가 출근하지 않은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은 보호체계가 없는 상황이다.

〈표 10-1〉 아동 B의 주중 일과표

시간	7	7-8	8-14	14-15	15-18	18-19	19-21	21-24
누구와	부, 동생	동생	교사, 친구	교사, 친구	교사, 친구	조모, 동생	동생	부, 동생
무엇을	취침	기상, 식사, 등교	공부, 식사	방과후 돌봄	놀이, 간식, 공부, PG	식사	숙제, TV시청	취침
어디서	집	집	학교	학교	센터	조모집	집	집
부모	○	○	X	X	X	X	X	○

보호체계	○	○	○	○	○	○	X	○
시간분석	7시간	1시간	6시간	1시간	3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표 10-2〉 아동 B의 주말 일과표

시간	9	9-10	10-17	17-18	18-21	21-24
누구와	부, 동생	동생	친구	동생	동생	부, 동생
무엇을	취침	기상, 식사	식사, 놀이	식사	TV시청	취침
어디서	집	집	야외 등	집	집	집
부모	○	X	X	X	X	○
보호체계	○	X	X	X	X	○
시간분석	9시간	1시간	7시간	1시간	3시간	3시간

### 3) 사례 3: 아동 C의 일상생활

아동 C는 평일과 주말 모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는데, 이는 부모 모두 주 7일 근무이기 때문이다. 부모가 없는 시간에는 동생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토요일은 어머니가 5시에 마치고 때문에 공원에서 만나서 걷기 운동을 한다. 그 시간에 주로 대화의 시간을 가진다. 센터가 끝난 이후의 시간은 학원을 간다. 아동의 보호체계로는 학교, 센터, 학원 그리고 가정이 있으며, 주말 오전에는 보호체계가 부재한 상황으로 동생과 시간을 보낸다. 특히 주말의 아침과 점심은 간단히 해결하고 저녁에 부모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다가 먹는다고 한다.

#### (1) 가정생활

부모, 여동생(11)과 함께 살고 있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부모님의 퇴근 시간 이후부터 다음날 등교 전까지이며, 부모 모두 주 7일 근무로 주말 또한 함께하는 시간이 적다. 주말에는 어머니가 오후 5시에 마치고, 공원에서 만나 함께 걷기 운동을 한다. 걸으면서 대화를 나눈다.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은 주말 저녁이 유일하지만, 대화는 잘 통한다고 한다.

#### (2) 학교생활

정규수업 한 시간 전에 등교하여 아침 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정규수업을 듣는다. 이후 방과 후 수업에 참여하여 실험과학, 방송 댄스를 배운다.

#### (3) 다함께돌봄센터 및 학원생활

15시에서 18시까지 센터에 있으며, 간식 및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센터가 끝나면 학원으로 이동하며, 18시에 20시까지 학원에서 영어 및 토론수업에 참여한다. 마치면 학원 차로 귀가한다.

#### (4)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로는 학교, 센터, 학원 그리고 가정이며 주말 오전에서 어머니가 퇴근하기 이전까지는 보호체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 시간에 동생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표 11-1〉 아동 C의 주중 일과표

시간	6	6-7	7-14	14-15	15-18	18-20	20-22	22-24
누구와	부모, 동생	부모, 동생	교사, 친구	교사, 친구	교사, 친구	교사, 친구	부모, 동생	부모, 동생
무엇을	취침	기상, 식사, 등교	공부, 식사	방과후 돌봄	놀이, 간식, 공부	영어, 토론	식사, 숙제	취침
어디서	집	집	학교	학교	센터	학원	집	집
부모	○	○	X	X	X	X	○	○
보호체계	○	○	○	○	○	○	○	○
시간분석	6시간	1시간	7시간	1시간	3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표 11-2〉 아동 C의 주말 일과표

시간	9	9-12	12-17	17-18	18-19	19-21	21-24
누구와	동생	동생	동생	모, 동생	모, 동생	부모, 동생	부모, 동생
무엇을	취침	기상, 간식	TV시청, 폰	운동	식사	숙제	취침
어디서	집	집	야외 등	공원	집	집	집
부모	X	X	X	○	○	○	○
보호체계	X	X	X	○	○	○	○
시간분석	9시간	3시간	5시간	1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 4) 사례 4 : 아동 D의 일상생활

아동 D는 취업 한부모가정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으며, 센터 운영시간과 보호자의 근무시간이 동일하여 함께 귀가하여 많은 시간을 보낸다. 학교 이후에는 센터에서 시간을 보낸다. 보호체계는 가정, 학교, 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부모가정 이지만 근무시간의 변동이 없는 직장으로 보호체계는 항상 존재한다.

##### (1) 가정생활

취업 한부모가정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어머니의 퇴근 시간은 센터가 마치는 시간보다 조금 일찍 마친다. 마치고 항상 데리러 오며 함께 집으로 귀가한다. 어머니와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대화의 시간은 식사 시간에 많이 나누는 편이다. 평소 대화의 내용은 주로 하루의 일과에 대해서 나누는 편이며, 평일, 주말 혼자 있는 시간은 거의 없다. 친구와 고민을 먼저 나누긴 하지만 심각한 고민은 어머니와 상의하고 해결한다.

##### (2) 학교생활

등교 시간부터 14시까지 학교에 있으며 수업, 점심, 친구들과의 놀이의 시간을 가진다.

(3) 다함께돌봄센터 생활

정규수업이 끝나면 센터를 같이 다니는 언니와 버스를 타고 함께 센터로 간다. 센터에서는 14시에서 18시까지 있으며, 간식과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상담은 필요한 경우에 받으며, 뮤지컬 준비로 춤과 노래 연습도 함께 한다.

(4)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아동의 보호체계는 항상 있으며 가정과 학교, 센터이다. 한부모가정이지만 모의 근무시간의 변동이 거의 없어 보호체계가 항상 존재한다.

〈표 12-1〉 아동 D의 주중 일과표

시간	7	7-8	8-14	14-18	18-22	22-24
누구와	모	모	교사, 친구	교사, 친구	모	모
무엇을	취침	기상, 식사, 등교	공부, 식사	놀이, 간식, 공부, PG	식사, TV시청	취침
어디서	집	집	학교	센터	집	집
부모	○	○	X	X	○	○
보호체계	○	○	○	○	○	○
시간분석	7시간	1시간	6시간	4시간	4시간	2시간

〈표 12-2〉 아동 D의 주말 일과표

시간	9	9-10	10-17	17-18	18-21	21-24
누구와	모	모	친구	모	모	모
무엇을	취침	기상, 식사	간식, 놀이	식사	숙제, TV시청	취침
어디서	집	집	야외	집	집	집
부모	○	○	X	○	○	○
보호체계	○	○	X	○	○	○
시간분석	9시간	1시간	7시간	1시간	3시간	3시간

5) 사례 5 : 아동 E의 일상생활

아동 E는 취업 한부모가정으로 아버지 그리고 누나와 함께 살고 있다. 센터가 끝나면 할머니택으로 이동하여 누나와 함께 식사 시간을 가진다. 교대근무로 아버지 보다는 누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으며, 고민은 누나와 먼저 나눈다. 학교가 끝나면 센터로 이동하며, 친구들과 자유시간 및 학습활동 시간을 갖는다. 주말은 누나의 개인 활동으로 인해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으며, 그 시간을 숙제 또는 티비를 보면서 보낸다. 평일에는 조모가 대신하여 돌봄을 제공하고 있으나 함께 거주하지 않아 주말에는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1) 가정생활

취업 한부모가정으로 아버지, 누나(13)와 함께 살고 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머니는 부재하며 이를 대신해 조모가 식사를 챙긴다. 주중에는 누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지내며, 주중 저녁 식사는 할머니 집으로 방문하여 먹는다. 아버지가 집에 계실 때는 직접 저녁을 챙겨주신다. 교대근무로 아버지 보다는 누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 누나가 제일 편하며 고민이 생기면 먼저 누나와 상의한다. 아버지와 대화의 시간이 많은 편은 아니나 필요하다면 편하게 말한다.

(2) 학교생활

등교 시간부터 14시까지 학교에 있으며 수업, 식사, 친구들과 놀면서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며, 정규수업이 끝난 후 다함께돌봄센터로 이동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 생활

14시에서 18시까지 센터에 있으며 누나도 함께 다니고 있다. 간식과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학습지도를 받는다. 학습지도는 도움이 되며 야외에서 진행되는 스포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4)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로는 학교, 센터, 조모, 그리고 가정이다. 보호체계로의 가정은 주중, 주말 모두 아버지의 근무상황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모가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표 13-1〉 아동 E의 주중 일과표

시간	7	7-8	8-14	14-18	18-19	19-21	21-24
누구와	부, 누나	누나	교사, 친구	교사, 친구	조모, 누나	누나	부, 누나
무엇을	취침	기상, 식사, 등교	공부, 식사	놀이, 간식, 공부, PG	식사	숙제, 공부	취침
어디서	집	집	학교	센터	조모 집	집	집
부모	○	○	X	X	X	X	○
보호체계	○	○	○	○	○	X	○
시간분석	7시간	1시간	6시간	4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표 13-2〉 아동 E의 주말 일과표

시간	9	9-10	10-17	17-18	18-21	21-24
누구와	부, 누나	누나	-	누나	누나	부, 누나
무엇을	취침	기상, 식사	TV, 유튜브	식사	숙제, TV시청	취침
어디서	집	집	집	집	집	집
부모	○	X	X	X	X	○
보호체계	○	X	X	X	X	○
시간분석	9시간	1시간	7시간	1시간	3시간	3시간

6) 사례 6 : 아동 F의 일상생활

아동 F는 아버지, 어머니, 형(21), 누나(18)와 함께 살고 있으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적다. 부모님은 평일, 주말 출근하며 형은 군인으로 군대에 있다. 평일에는 누나가 저녁을 챙겨주며 각자의 시간을 보내며 부모님을 기다린다. 필요한 부분은 통화로 해결한다. 학교가 끝나면 센터로 이동하여 간식을 먹고 교과목 학습 및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센터에서 배운 내용을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어 좋다고 말한다.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로는 가정, 학교, 센터가 있으나 평일 저녁과 주말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누나와 집에는 함께 있지만, 각자의 시간을 갖는다.

(1) 가정생활

맞벌이가정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형(21), 누나(18)와 함께 살고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주중, 주말 늦게까지 일하고 계시며 형은 군대에 있어 누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거의 없으며, 필요한 부분은 부모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해결한다. 저녁 식사는 누나가 차려주고 함께 먹는다. 그리고 각자 방에서 시간을 보낸다. 주로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면서 부모님이 퇴근하실 때까지 기다린다. 본인이 집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부모님은 모르시며, 부모님이 오시면 기다렸다가 그때 잠을 잔다. 대화는 주로 아동이 필요한 것을 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 학교생활

등교 시간부터 14시까지 학교에 있으며 수업, 식사, 친구들과 놀면서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며, 정규수업이 끝난 후 다함께돌봄센터로 이동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 생활

14시에서 18시까지 센터에서 시간을 보낸다. 영어 뮤지컬을 해 본 경험이 있고 또 다른 무대 준비를 위해 연습에 있다. 숙제 및 학습지도를 받고 있으며, 센터에서 배운 내용을 학교에서 적용한다. 또한 센터 내에서 요리 프로그램이 좋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4)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로는 가정, 학교, 센터이며 주중에는 저녁 시간과 주말에는 오전부터 저녁 시간까지 보호체계가 없다. 보호체계가 없는 시간에는 주로 누나와 함께 집에 있으며 혼자서 시간을 보낸다.

<표 14-1> 아동 F의 주중 일과표

시간	7	7-8	8-14	14-18	18-19	19-23	23-24
누구와	부모, 누나	부모, 누나	교사, 친구	교사, 친구	누나	누나	부모, 누나
무엇을	취침	기상, 식사, 등교	공부, 식사	놀이, 간식, 공부, PG	식사	게임, 놀이	취침

어디서	집	집	학교	센터	집	집	집
부모	○	○	X	X	X	X	○
보호체계	○	○	○	○	X	X	○
시간분석	7시간	1시간	6시간	4시간	1시간	4시간	1시간

〈표 14-2〉 아동 F의 주말 일과표

시간	9	9-21	21-23	23-24
누구와	부모, 누나	-	누나	부모, 누나
무엇을	취침	식사, 게임	전화, 게임	취침
어디서	집	집	집	집
부모	○	X	X	○
보호체계	○	X	X	○
시간분석	9시간	12시간	2시간	1시간

## 7) 사례 7 : 아동 G의 일상생활

아동 G는 어머니가 결혼이주민 여성으로 다문화가정이며,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부모 모두 늦게 퇴근하며, 주말에도 출근한다. 이를 조모가 대신하여 공백을 채우고 있으나 소통의 교류는 거의 없다. 학교가 끝나면 센터로 이동하여 시간을 보내고 태권도 학원이 끝나면 학원 차량으로 이동하여 집으로 간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도 각자 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부모가 아동의 생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평일, 주말 모두 보호체계는 존재하나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은 거의 없으며 조모와의 시간이 심심하여 친구 집에서 1박으로 자고 오는 경우가 빈번하다.

### 1) 가정생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으며, 어머니는 결혼이주민 여성으로 다문화가정이다. 맞벌이가정이며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은 퇴근 이후로 함께하는 시간은 거의 없다.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대부분이며, 가족이 함께 있을 때에는 아버지는 방에서 TV를 보거나 거실에서 할머니와 TV를 보며 어머니는 요리 등 집안일을 한다. 그리고 아동은 자신의 방에서 게임을 한다. 부모와의 대화는 거의 없으며 부모가 아동의 생활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 (2) 학교생활

등교 시간부터 14시까지 학교에 있으며 수업, 식사, 친구들과 놀면서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며, 정규수업이 끝난 후 다함께돌봄센터로 이동한다.

### (3) 다함께돌봄센터 및 학원생활

14시에서 18시까지 센터에 있으며, 간식을 먹고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그리고 18시에 태권도 학원으로 이동하며 19시 30분까지 수업에 참여한 후 학원 차량으로 집

으로 간다.

(4)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는 가정과 학교, 센터, 학원으로 볼 수 있다. 주중과 주말 모두 부모의 늦은 퇴근 시간으로 조모가 보호체계의 역할을 한다. 주중, 주말 모두 조모와 함께는 있지만 각자 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부모님 허락하에 친구 집에서 1박으로 자고 오는 경우도 빈번하다.

〈표 15-1〉 아동 G의 주중 일과표

시간	6	6-8	8-14	14-18	18-19	19-22	22-24
누구와	모, 조모	조모	교사, 친구	교사, 친구	교사, 친구	부모, 조모	부모, 조모
무엇을	취침	기상, 식사, 등교	공부, 식사	놀이, 간식, 공부, PG	태권도	식사, 게임	취침
어디서	집	집	학교	센터	학원	집	집
부모	○	X	X	X	X	○	○
보호체계	○	○	○	○	○	○	○
시간분석	6시간	2시간	6시간	4시간	1시간	3시간	2시간

〈표 15-2〉 아동 G의 주말 일과표

시간	6	6-12	12-13	13-22	22-24
누구와	모, 조모	조모	조모	조모	부모, 조모
무엇을	취침	게임	식사	게임	취침
어디서	집	집	집	집	집
부모	○	X	X	X	○
보호체계	○	○	○	○	○
시간분석	6시간	6시간	1시간	9시간	2시간

8) 사례 8 : 아동 H의 일상생활

아동 H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8)과 살고 있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은 주중 밤부터 부모님이 출근하기 전까지로 적다. 남동생과 함께 준비하며, 가족 간 대화는 많지도 적지도 않고 각자 방에서 시간을 주로 보낸다. 주말에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거의 없으며 현재 부모님의 다툼으로 더욱 각자의 시간을 보낸다. 할아버지와는 정서적 교류가 많았으나 현재는 안 계셔서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한다. 센터가 끝나면 태권도 학원으로, 그리고 집으로 간다. 평일 등교 전 부모님의 이른 출근으로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주말에는 긴 시간 존재하지 않는다.

(1) 가정생활

맞벌이가정으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8)과 살고 있다.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은 주로 주중에는 밤부터 부모님이 출근 전까지로, 남동생과 함께 학교 갈 준비를 한다. 부모님과 대화는 많이 하지도 적게 하지도 않고 각자 방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다. 주말 또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거의 없으며 현재 부모님의 다툼으로 더욱 각자의 방에서 시간을 보낸다. 할아버지가 함께 계셨는데 몇 주 전에 돌아가셨으며, 할아버지와 가까웠고 애착이 깊어 현재 아들은 매일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한다.

(2) 학교생활

8시부터 14시까지 학교에 있으며 점심을 먹고 공부하는 등 친구들과 시간을 함께 보낸다. 정규수업이 끝나면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에 참여하여 줄넘기, 컴퓨터를 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 및 학원생활

15시에서 18시까지 센터에서 지낸다.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숙제를 한다. 18시에 태권도학원으로 이동하며 20시에 끝나면 집으로 간다.

(4)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아동의 보호체계는 가정과 학교, 센터 그리고 학원이다. 주중에 부모님의 이른 출근으로 인해 등교하기 전에 보호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표 16-1〉 아동 H의 주중 일과표

시간	6	6-8	8-14	14-15	15-18	18-20	20-22	22-24
누구와	부모, 남동생	남동생	교사, 친구	교사, 친구	교사, 친구	교사, 친구	모, 남동생	부모, 남동생
무엇을	취침	기상, 식사, 등교	공부, 식사	방과후 돌봄	놀이, 간식, 공부, PG	태권도	식사, 숙제	취침
어디서	집	집	학교	학교	센터	학원	집	집
부모	○	X	X	X	X	X	○	○
보호체계	○	X	○	○	○	○	○	○
시간분석	6시간	2시간	6시간	1시간	3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표 16-2〉 아동 H의 주말 일과표

시간	12	12-20	20-22	22-24
누구와	부모, 남동생	친구	부모, 남동생	부모, 남동생
무엇을	취침	식사, 놀이, 게임	식사, 숙제, TV시청	게임
어디서	집	야외	집	집
부모	○	X	○	○
보호체계	○	X	○	○
시간분석	12시간	8시간	2시간	2시간

9) 사례 9 : 아동 I의 일상생활

아동 I는 아버지, 어머니, 두 여동생(2,6)과 함께 살고 있으며,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은 일요일 오후부터 저녁이다. 어머니는 동생이 어려서 근무시간이 짧은 직장으로 이직하여 평일, 주말 보호체계는 항상 존재한다. 그러나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은 늘었으나 부모와 함께 나누는 시간은 줄었다. 학교수업이 끝나면 센터로 이동하여 끝나는 시간까지 센터에서 보낸다. 센터가 끝나면 집으로 가는데, 저녁을 먹고 동생을 돌보면서 시간을 보낸다.

(1) 가정생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두 여동생(2, 6)과 함께 살고 있으며, 맞벌이가정이다. 아버지는 주중, 주말 모두 일로 바쁘시며, 어머니는 막내 여동생이 어려서 근무시간을 짧은 직장으로 옮겼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은 일요일 오후부터 저녁까지이다. 어머니는 집안일과 동생들을 보살피느라 바쁘시고 아동은 그런 동생들과 놀아주고 숙제를 봐주는 등의 시간을 보낸다. 함께하는 시간은 많으나 정서적인 교류는 적다.

(2) 학교생활

등교 시간부터 13시까지 학교에 있으며 수업, 식사, 친구들과 놀면서 시간을 보내고 정규수업이 끝난 후에는 센터로 친구와 함께 이동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 생활

13시부터 18시까지 센터에서 지내며, 간식 또는 자유시간을 가진다.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합창 단원으로 노래 부르는 연습을 한다.

(4)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아동의 보호체계는 가정, 학교, 센터이며 주중, 주말 모두 보호체계가 항상 존재한다.

〈표 17-1〉 아동 I의 주중 일과표

시간	7	7-8	8-13	13-18	18-22	22-24
누구와	부모,동생2	부모,동생2	교사, 친구	돌봄교사, 친구	부모,동생2	부모,동생2
무엇을	취침	기상,식사,등교	공부,식사	놀이,학습,간식	식사, 숙제,동생돌봄	취침
어디서	집	집	학교	센터	집	집
부모	○	○	X	X	○	○
보호체계	○	○	○	○	○	○
시간분석	7시간	2시간	4시간	5시간	4시간	2시간

〈표 17-2〉 아동 I의 주말 일과표

시간	9	9-13	13-22	22-24
누구와	부모, 동생2	모, 동생2	부모, 동생2	부모, 동생2
무엇을	취침	식사, 대청소	식사, 놀이, 숙제,	취침
어디서	집	집	집	집
부모	○	○	○	○
보호체계	○	○	○	○
시간분석	9시간	4시간	9시간	2시간

10) 사례 10 : 아동 J의 일상생활

아동 J는 주말부부의 가족이면서 외동으로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다. 아버지는 빠르면 목요일, 금요일마다 오며 도착하는 시간이 이르면 센터로 방문하여 함께 집으로 간다. 어머니는 일이 늦게 마치며 센터가 끝나는 시간 이후의 공백은 아이돌보미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주중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은 어머니 퇴근 이후의 시간이며, 아동의 하루 중 일상생활에 관한 얘기를 나눈다. 아버지는 토요일 오전에 아동과 함께 꼭 산책하는 시간을 갖는다. 학교를 마치면 센터로 이동하여 숙제 및 간식을 먹고 태권도 학원으로 이동한다. 아동의 보호체계는 가정, 학교, 센터 그리고 아이돌보미이며, 주말에는 공백이 발생한다.

(1) 가정생활

맞벌이가정이면서 주말부부로 평일엔 어머니와 함께 지낸다. 어머니가 퇴근하기 전까지는 아이돌보미와 함께 저녁을 먹고 시간을 보낸다. 주중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은 어머니 퇴근 이후의 시간이며 아동의 하루 중 일상생활에 관한 얘기를 나눈다. 아버지는 빠르면 목요일, 금요일마다 수원에서 울산으로 와 센터에 아동을 데리러 오며 함께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토요일 오전에는 아동과 함께 꼭 산책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때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토요일 오전에는 가족과 함께 아침을 먹고 어머니가 간식을 준비해주신다. 오후에는 아버지, 어머니 모두 일하러 가며 늦어도 7시 이전에는 집으로 와서 함께 저녁을 먹는다. 혼자서 있는 시간이 익숙하며, 독서를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2) 학교생활

등교 시간부터 13시까지 학교에 있으며 수업 및 식사, 친구들과의 시간을 보내고 정규수업이 끝나면 다함께돌봄센터로 이동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 및 학원생활

13시부터 17시까지 센터에 있으며, 숙제 및 간식을 먹는다. 17시가 되면 근처에 있는 태권도 학원으로 이동하며 친구와 함께 도보로 귀가한다.

(4)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아동의 보호체계는 가정, 학교, 센터 그리고 아이돌보미이다. 토요일 오후부터 저녁 시간까지를 제외하면 항상 보호체계가 있으며, 주중에는 어머니와 아이돌보미가 보호체계의 역할을 한다. 보호체계가 없는 시간에는 주로 독서를 하며 시간을 보낸다.

〈표 18-1〉 아동 J의 주중 일과표

시간	7	7-8	9-13	13-17	17-18	18-20	20-21	21-24
누구와	모	모	교사, 친구	돌봄 교사, 친구	강사	아이돌보미	모	모
무엇을	취침	기상, 식사, 등교	공부, 식사	놀이, 학습, 간식	태권도	식사, 독서	대화	취침
어디서	집	집	학교	센터	학원	집	집	집
부모	○	○	X	X	X	X	○	○
보호체계	○	○	○	○	○	○	○	○
시간분석	7시간	2시간	4시간	4시간	2시간	2시간	1시간	3시간

〈표 18-2〉 아동 J의 주말 일과표

시간	7	7-8	8-12	12-14	14-18	18-20	20-24
누구와	부모	부	부모	부	-	모	모
무엇을	취침	산책	식사, 대화	대화	독서	식사, 대화	취침
어디서	집	동네	집	집	집	집	집
부모	○	○	○	○	X	○	○
보호체계	○	○	○	○	X	○	○
시간분석	7시간	2시간	3시간	2시간	4시간	2시간	4시간

11) 사례 11 : 아동 K의 일상생활

아동 K는 평일 일찍 출근하는 부모를 대신해 조모가 함께 식사와 학교 갈 준비를 돕는다. 아버지의 퇴근 시간이 일정치가 않아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외동으로 부모님 모두 토요일 오전에 일하고 있어 혼자서 시간을 보내며 어머니를 기다린다.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학교가 끝나면 센터로 이동하며 친구들이 있어 재밌다고 한다. 끝나면 학원으로 이동하여 집으로 간다. 아동의 보호체제로 평일에는 가정, 학교, 학원, 센터이며 부모 대신 조모가 아동을 보호하며 주말 오전에는 보호체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강아지(땡구)랑 함께 보낸다.

(1) 가정생활

맞벌이가정으로 평일 일찍 출근하는 부모를 대신해 조모가 함께 식사와 학교 갈 준비를 한다. 평일엔 아버지의 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고 뽕구(강아지)가 있어 시간을 함께 보낸다. 토요일 오전은 부모님 모두 일을 하여 집에 없다. 어머니는 오후 1시쯤 퇴근하며 아버지는 일정하지 않다. 일요일은 모두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야외로 활동을 가거나 집에 있는 경우에는 함께 보드게임을 한다.

(2) 학교생활

등교 시간부터 13시까지 학교에 있으며 수업, 식사,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정규수업이 끝난 후 다함께돌봄센터로 이동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 및 학원생활

13시부터 17시까지 센터에서 지내며 간식 또는 친구들과 놀면서 자유시간을 가진다. 17시부터 18시까지는 스포츠센터로 이동하며 차량으로 귀가한다.

(4)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아동의 보호체계는 가정, 학교, 학원, 센터이며 주중에는 부모 대신 조모가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토요일 오전에는 보호체계가 없으며, 없는 시간에는 뽕구(강아지)와 시간을 보낸다.

〈표 19-1〉 아동 K의 주중 일과표

시간	7	7-8	8-13	13-17	17-18	18-22	22-24
누구와	부모	조모	교사, 친구	돌봄교사, 친구	강사	부모	부모
무엇을	취침	기상, 식사, 등교	공부, 식사	놀이, 학습, 간식	스포츠	식사, 숙제, 미디어	취침
어디서	집	집	학교	센터	학원	집	집
부모	○	X	X	X	X	○	○
보호체계	○	○	○	○	○	○	○
시간분석	7시간	2시간	4시간	4시간	1시간	4시간	2시간

〈표 19-2〉 아동 K의 주말 일과표

시간	8	8-13	13-17	17-20	20-24
누구와	부모	-	모	부모	부모
무엇을	기상, 식사	TV시청, 게임	식사, 숙제, 기타활동	식사, 대화, 보드게임	취침
어디서	집	집	집	집	집
부모	○	X	○	○	○
보호체계	○	X	○	○	○
시간분석	8시간	5시간	4시간	3시간	4시간

12) 사례 12 : 아동 L의 일상생활

아동 L은 주말부부로 평일에는 어머니 그리고 누나와 함께 지내고 있으며 아버지는 금요일 오후 또는 토요일 오전에 집에 오신다. 주말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아버지와 게임하는 시간이 재밌어 주말이 기다려진다. 학교를 마치면 센터로 이동하여 센터로 이동하며 간식 먹고 휴식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바로 학원으로 이동한다. 아동의 보호체계는 가정, 학교, 학원, 센터이며 보호체계는 항상 존재한다.

(1) 가정생활

주말부부로 평일엔 어머니, 누나와 함께 지내고 있으며 아버지는 금요일 오후 또는 토요일 오전에 집으로 오신다. 어머니가 퇴근하고 오시면 식사를 챙겨주시고 숙제를 봐주신다. 주말은 아버지가 오시며 주말만큼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주로 토요일엔 야외로 아동이 좋아하는 인라인을 함께 하며 시간을 보내며 일요일엔 집에서 게임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일요일 오후가 되면 아버지는 직장 수원으로 떠난다.

(2) 학교생활

등교 시간부터 13시까지 학교에 있으며 수업, 식사,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정규 수업이 끝난 후 다함께돌봄센터로 이동한다. 이전에는 방과 후 돌봄을 이용했었는데, 학교 내부공사로 인해 현재는 다함께돌봄센터를 다닌다.

(3) 다함께돌봄센터 및 학원생활

13시부터 16시까지 센터에서 지내며 간식 또는 친구들과 놀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16시부터 19시까지는 영어, 태권도, 피아노학원 순으로 이동한다. 이동은 도보로 하며 피아노학원을 마치면 차량으로 이동해 집으로 간다.

(4)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아동의 보호체계는 가정, 학교, 학원, 센터이며 주중에 어머니가 늦게 퇴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체계가 존재하며, 없는 시간에는 혼자서 시간을 보낸다.

〈표 20-1〉 아동 L의 주중 일과표

시간	7	7-8	8-13	13-16	16-18	19-22	23-24
누구와	모, 누나	모	교사, 친구	돌봄교사 친구	강사	모, 누나	모, 누나
무엇을	취침	기상,식사, 등교	공부, 식사	놀이,학습, 간식	영어, 피아노, 태권도	식사, 숙제	취침
어디서	집	집	학교	센터	학원	집	집
부모	○	○	X	X	X	○	○
보호체계	○	○	○	○	○	○	○
시간분석	7시간	1시간	5시간	3시간	3시간	3시간	1시간

〈표 20-2〉 아동 L의 주말 일과표

시간	9	9-12	12-18	18-22	22-24
누구와	부모, 누나	부모	부모	부모, 누나	부모, 누나
무엇을	기상, 식사	게임, 식사	인라인, 외부활동	식사, TV시청, 대화	취침
어디서	집	집	집 또는 외부	집	집
부모	○	○	○	○	○
보호체계	○	○	○	○	○
시간분석	9시간	3시간	6시간	4시간	2시간

### 13) 사례 13 : 아동 M의 일상생활

아동 M은 아버지, 어머니, 언니(15)와 살고 있다. 평일에는 아버지의 근무로 인해 어머니와 언니랑 시간을 주로 보낸다. 저녁 식사 시간에 주로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며, 그 이후의 시간은 TV를 보거나 언니와 놀면서 시간을 보낸다. 정규수업이 끝나면 센터로 이동하여 간식을 먹고 쉰다. 그리고 학원으로 이동한다. 주중, 주말 모두 보호체계는 존재한다.

#### (1) 가정생활

평일에는 아버지가 늦게 퇴근하시며 어머니와 언니(15)랑 주로 보낸다. 저녁을 먹으면서 어머니, 언니와 대화를 주로 하는 편이다, 식사 후엔 혼자서 TV 시청 또는 언니와 놀면서 시간을 보낸다. 주말에도 아버지는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으로 집에 없는 경우가 많으며 어머니와 언니와도 야외활동 보다는 집에서 언니랑 그림 그리기 등 미술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가끔 아버지가 주말에 쉬는 경우, 함께 야외로 나가서 시간을 보낸다.

#### (2) 학교생활

등교 시간부터 13시까지 학교에 있으며 수업, 식사,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정규수업이 끝난 후 다함께돌봄센터로 이동한다.

#### (3) 다함께돌봄센터 및 학원생활

13시부터 16시까지 센터에서 지내며 간식 또는 친구들과 놀면서 휴식시간을 가진다. 16시부터 18시까지는 영어 및 태권도 학원으로 이동하며 도보로 귀가한다.

#### (4)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아동의 보호체계는 가정, 학교, 학원, 센터이며, 주중과 주말 모두 보호체계가 존재한다.

〈표 21-1〉 아동 M의 주중 일과표

시간	7	7-8	8-13	13-16	16-18	18-21	21-24
누구와	부모, 언니	모	교사, 친구	돌봄교사, 친구	강사	부모, 언니	부모, 언니
무엇을	취침	기상, 식사, 등교	공부, 식사	놀이, 학습, 간식	영어, 태권도	식사, TV시청	취침
어디서	집	집	학교	센터	학원	집	집
부모	○	○	X	X	X	○	○
보호체계	○	○	○	○	○	○	○
24시간분석	7시간	1시간	5시간	3시간	2시간	3시간	3시간

〈표 21-2〉 아동 M의 주말 일과표

시간	8	8-13	13-18	18-22	22-24
누구와	부모, 언니	모	모	부모, 언니	부모, 언니
무엇을	기상, 식사	TV시청, 핸드폰게임	식사, 미술 및 기타활동	식사, 대화, TV시청	취침
어디서	집	집	집	집	집
부모	○	○	○	○	○
보호체계	○	○	○	○	○
24시간분석	8시간	5시간	5시간	4시간	2시간

14) 사례 14 : 아동 N의 일상생활

아동 N의 평일은 부모 모두 정시퇴근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식사를 마치면 주로 어머니는 집안일을 하시고 아동은 동생이 어려서 동생을 돌본다. 주말에는 부모 모두 출근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부모를 만나러 가서 자고 온다. 학교를 마치면 센터로 이동하여 많은 시간을 보낸다. 아동의 보호체계는 가정, 학교, 센터, 조부모이며 주말에는 조부모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1) 가정생활

평일엔 부모 모두 정시퇴근으로 오후 6시 이후로는 함께 지낸다. 평일에 식사를 마치면 어머니는 주로 집안일을 하시고 아동은 동생(5)이 어려서 그 시간동안에 동생을 돌본다. 주말에 부모 모두 출근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부모를 만나러 이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동생과 분리되어 주말을 보낸다.

(2) 학교생활

등교 시간부터 13시까지 학교에 있으며 수업, 식사,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정규 수업이 끝난 후 다함께돌봄센터로 이동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 생활

13시부터 18시까지 센터에서 지내며 간식 또는 친구들과 놀면서 휴식시간을 가진다.

(4)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아동의 보호체계는 가정, 학교, 센터, 조부모이다. 주말에는 주로 조부모와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등 조부모가 보호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표 22-1〉 아동 N의 주중 일과표

시간	7	7-8	8-13	13-18	18-22	22-24
누구와	부모, 동생	모	교사, 친구	돌봄교사 친구	부모, 동생	부모, 동생
무엇을	취침	기상, 식사, 등교	공부, 식사	놀이, 학습, 간식	식사, 숙제 TV시청	취침
어디서	집	집	학교	센터	집	집
부모	○	○	X	X	○	○
보호체계	○	○	○	○	○	○
24시간분석	7시간	2시간	4시간	3시간	2시간	3시간

〈표 22-2〉 아동 N의 주말 일과표

시간	7	7-18	18-22	22-24
누구와	부모	조부모	부모, 동생	부모, 동생
무엇을	취침	식사, 폰게임, TV시청	식사, 대화, 동생 놀아주기	취침
어디서	집	집	집, 야외	집
부모	○	X	○	○
보호체계	○	○	○	○
24시간분석	7시간	11시간	4시간	2시간

15) 사례 15 : 아동 O의 일상생활

아동 O의 평일은 부모의 이른 출근으로 형(14)과 함께 등교를 준비한다. 형과 보내는 시간이 많으며, 주로 형과 대화를 많이 한다. 부모님과 시간은 적으며, 형과 게임 하는 시간이 많다. 일요일은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야외로 많이 나가는 편이다. 학교가 끝나면 센터로 이동하며 간식 먹고 휴식을 취한다. 그리고 바로 학원으로 이동한다. 평일 등교 전 1시간을 제외하면 항상 보호체계는 존재한다.

(1) 가정생활

평일에 부모님의 이른 출근으로 형(14)과 함께 학교 갈 준비를 한다.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은 저녁부터 다음날 등교 전까지이다. 형과 주로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며, 부모와 대화의 시간은 적은 편이다. 가족이 함께 있을 시간에는 형과 함께 게임을 하며 지내는 편이다. 토요일에는 아버지가 출근하시고 아들은 어머니와 형과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 아버지가 계신 일요일은 야외로 나가며, 자전거 또는 농구를 함께하며 시간을 보낸다.

(2) 학교생활

등교 시간부터 13시까지 학교에 있으며 수업, 식사,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정규 수업이 끝난 후 다함께돌봄센터로 이동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 및 학원생활

13시부터 16시까지 센터에서 지내며 간식 또는 친구들과 놀면서 휴식시간을 가진다. 16시부터 17시까지 피아노학원으로 이동하며 학원 차량으로 귀가한다.

(4)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아동의 보호체계는 가정, 학교, 센터, 학원이다. 주중에 오전 1시간을 제외하면 항상 보호체계가 있으며 보호체계가 없는 시간에는 형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표 23-1〉 아동 O의 주중 일과표

시간	7	7-8	8-13	13-16	16-17	17-21	22-24
누구와	부모, 형	형	교사, 친구	돌봄교사 친구	강사	부모, 형	부모, 형
무엇을	취침	기상, 식사, 등교	공부, 식사	놀이, 학습, 간식	피아노	식사, 게임	취침
어디서	집	집	학교	센터	학원	집	집
부모	○	X	X	X	X	○	○
보호체계	○	X	○	○	○	○	○
시간분석	7시간	1시간	5시간	3시간	1시간	4시간	2시간

〈표 23-2〉 아동 O의 주말 일과표

시간	7	7-13	13-21	21-24
누구와	부모, 형	부모	부모, 형	부모, 형
무엇을	기상	식사, 자전거, 농구	식사, TV시청, 폰게임, 대화	취침
어디서	집	집, 놀이터	집	집
부모	○	○	○	○
보호체계	○	○	○	○
시간분석	8시간	5시간	5시간	4시간

16) 사례 16 : 아동 P의 일상생활

아동 P의 평일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부모의 이른 출근으로 할머니가 등교 및 식사를 준비한다. 아버지는 교대근무이며 어머니는 프리랜서로 일의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그 시간은 조모가 아동과 시간을 함께 보낸다. 대화의 시간은 적으며 혼자 숙제하고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학교 센터 그리고 학원으로 이동한다. 아동의 보호체계는 가정, 학교, 학원, 센터이다. 평일과 주말은 조모가 부모를 대신하며 공백을 채우고 있다. 그 외 시간은 보호체계가 존재한다.

(1) 가정생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과 함께 살고 있으며, 평일, 주말 모두 부모의 이른 출근으로 할머니가 등교 및 식사를 준비한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은 저녁부터 다음날 등교 전까지이다. 아버지는 교대근무이고, 어머니는 프리랜서로 일의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그 시간에는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어머니가 평일 저녁에 강의 준비로 바쁜 날이 많아 함께 대화하는 시간보다는 혼자서 숙제와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2) 학교생활

등교 시간부터 13시까지 학교에 있으며 수업, 식사,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정규 수업이 끝난 후 다함께돌봄센터로 이동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 및 학원생활

13시부터 17시까지 센터에서 지내며 간식 또는 친구들과 놀면서 휴식시간을 가진다. 17시부터 18시까지 피아노학원으로 이동하며 학원 차량으로 귀가한다.

(4)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아동의 보호체계는 가정, 학교, 학원, 센터이다. 주중과 주말에는 가정, 조모가 보호체계를 이루며 주말 오후부터 저녁까지를 제외하면 항상 보호체계가 존재한다. 보호체계가 없는 시간에는 조모와 함께 있거나 친구와 함께 놀면서 시간을 보낸다.

〈표 24-1〉 아동 P의 주중 일과표

시간	7	7-8	8-13	13-17	17-18	18-22	22-24
누구와	부모, 동생	조모	교사, 친구	돌봄교사, 친구	강사	부모, 동생	부모, 동생
무엇을	취침	기상, 식사, 등교	공부, 식사	놀이, 학습, 간식	피아노	식사, 숙제, 게임	취침
어디서	집	집	학교	센터	학원	집	집
부모	○	X	X	X	X	○	○
보호체계	○	○	○	○	○	○	○
시간분석	7시간	1시간	5시간	4시간	1시간	4시간	2시간

〈표 24-2〉 아동 P의 주말 일과표

시간	8	8-13	13-16	16-18	18-21	21-24
누구와	부모, 동생	조모, 모	친구	부모, 동생	부모, 동생	부모, 동생
무엇을	취침	식사, TV시청	자전거, 폰게 입	식사, 대화	숙제, 독서	취침
어디서	집	집	집, 놀이터	집	집	집
부모	○	○	X	○	○	○
보호체계	○	○	X	○	○	○
시간분석	8시간	5시간	3시간	2시간	3시간	3시간

17) 사례 17 : 아동 Q의 일상생활

아동 Q의 평일은 어머니와 주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아버지는 퇴근이 늦어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어 교류가 거의 없다. 주말은 어머니, 조부모, 고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아버지는 출근 또는 야구 동호회에 참석한다. 학교가 끝나면 센터로 이동한다. 센터에서는 간식을 먹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다 학원으로 이동한다. 아동의 보호체계는 주중, 주말 모두 존재하며, 친인척에 의한 돌봄 제공은 주말에 존재한다.

(1) 가정생활

평일에는 어머니와 주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아버지는 퇴근이 늦어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어 교류가 거의 없다. 주말은 어머니, 조부모, 고모와 함께 만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고 아버지는 토요일에 출근하며 일요일은 야구 동호회 참석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없다. 가끔 평일에 어머니 또한 부재일 경우, 조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2) 학교생활

등교 시간부터 13시까지 학교에 있으며 수업, 식사,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정규 수업이 끝난 후 다함께돌봄센터로 이동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 및 학원생활

13시부터 15시까지 센터에서 지내며, 간식 또는 친구들과 놀면서 휴식 시간을 가진다. 15시부터 18시까지 영어, 학습지, 피아노학원 순으로 이동하며 도보로 귀가한다.

(4)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아동의 보호체계는 가정, 학교, 학원, 센터이며 주중·주말 모두 보호체계가 존재한다. 주중에는 주로 어머니와 조모가 함께하며, 주말은 어머니, 조모, 고모와 함께한다.

〈표 25-1〉 아동 Q의 평일 일과표

시간	7	7-8	8-13	13-15	15-18	18-21	21-24
누구와	부모, 동생	모, 동생	교사, 친구	돌봄교사, 친구	강사	모, 동생	부모, 동생
무엇을	취침	기상, 식사, 등교	공부, 식사	놀이, 학습, 간식	영어, 피아노, 학습지	식사, 숙제	취침
어디서	집	집	학교	센터	학원	집	집
부모	○	○	X	X	X	○	○
보호체계	○	○	○	○	○	○	○
시간분석	7시간	1시간	5시간	2시간	3시간	3시간	3시간

〈표 25-2〉 아동 Q의 주말 일과표

시간	8	8-13	13-18	18-21	21-24
누구와	부모	모	모, 조부모, 고모	모	부모, 동생
무엇을	취침	식사, 독서	TV시청, 장난감	식사, 대화	취침
어디서	집	집	집	집	집
부모	○	○	○	○	○
보호체계	○	○	○	○	○
시간분석	8시간	5시간	5시간	3시간	3시간

18) 사례 18 : 아동 R의 일상생활

아동 R의 평일은 어머니와 오빠(13)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아버지와 함께 하는 시간은 적다.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은 많으나 함께 무언가를 하는 시간은 적다. 학교가 끝나면 센터로 이동한다. 학원에 갔다가 다시 센터로 복귀한다. 아동의 보호체계는 평일, 주말 다 존재하며 주말에는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1) 가정생활

평일에는 주로 어머니와 오빠(13)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아버지는 퇴근이 늦어 함께 하는 시간이 적다. 어머니는 식사 후엔 집안일로 바빠서 오빠랑 함께 놀면서 시간을 보낸다. 주말에도 아버지가 출근이라 교류가 거의 없다. 어머니와 오빠 그리고 조카랑 시간을 보낸다.

(2) 학교생활

등교 시간부터 13시까지 학교에 있으며 수업, 식사, 친구들과 놀며 시간을 보내고 정규수업이 끝난 후 다함께돌봄센터로 이동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 및 학원생활

15시부터 18시까지 센터에서 지내며 간식 또는 친구들과 놀면서 자유타임을 가진다. 13시부터 15시까지 태권도, 피아노학원 순으로 이동하며 다함께돌봄센터로 이동한다.

(4)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아동의 보호체계는 가정, 학교, 학원, 센터, 교회이다. 주말 오전 시간을 제외하면 항상 보호체계가 있으며, 교회는 주말의 보호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표 26-1〉 아동 R의 주중 일과표

시간	0-7	8	9-13	13-15	15-18	18-21	21-24
누구와	부모, 오빠	부모, 오빠	교사, 친구	강사	돌봄교사, 친구	모, 오빠	부모, 오빠
무엇을	취침	기상, 식사, 등교	공부, 식사	태권도, 피아노	놀이, 학습, 간식	식사, 놀이	취침
어디서	집	집	학교	학원	센터	집	집
부모	○	○	X	X	X	○	○
보호체계	○	○	○	○	○	○	○
시간분석	7시간	1시간	5시간	2시간	3시간	3시간	3시간

〈표 26-2〉 아동 R의 주말 일과표

시간	7	7-11	11-13	13-17	17-20	20-24
누구와	부모	오빠	오빠	모, 조카	부모, 오빠	부모, 오빠
무엇을	취침	식사, 독서	공부방, 예배, 식사	놀이, TV시청	식사, 대화	취침
어디서	집	집	교회	집	집	집
부모	○	X	X	○	○	○
보호체계	○	X	X	○	○	○
시간분석	7시간	4시간	2시간	4시간	3시간	4시간

19) 사례 19 : 아동 S의 일상생활

아동 S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11)과 함께 지낸다. 주중에는 아버지가 늦게 퇴근하시며 주말에는 출근하지 않는다. 주중 함께하는 시간은 적으나 주말에는 가족회의 시간을 가지면서 대화를 많이 한다. 주말에는 교회에서 일정한 시간을 매주 보낸다. 학교를 마치면 센터로 이동하여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그리고 학원으로 이동하며 끝나면 집으로 간다. 아동의 보호체계는 주중, 주말 모두 존재하며 특히 주말에는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1) 가정생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11)과 함께 지낸다. 맞벌이가정이며 어머니는 비교적 근무시간이 길지 않아서 아동이 모든 일과가 끝난 시간과 같다. 아버지는 평일은 10시에 마치며 주말은 근무하지 않는다. 교회는 가족 모두 함께 참여하며, 토요일에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공부방에 참여한다.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함께 간다. 아버지의 컨디션에 따라 야외로 놀러 가기도 하는데 평소에 가고 싶은 곳을 말하면 함께 가기도 한다. 평일엔 부모님이 바빠서 못하는 고민과 이야기 등은 매주 토요일 가족회의 시간을 통해 전달한다. 가족회의 내용은 숙제 강도와 동생에 관한 내용 등으로 구성된다. 어머니는 집안일로 바빠서서 아버지가 숙제를 봐주시기도 한다.

(2) 학교생활

등교 시간부터 13시까지 학교에 있으며 수업, 식사, 친구들과 놀며 시간을 보내고 정규수업이 끝난 후 다함께돌봄센터로 이동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 및 학원생활

13시에서 17시까지 센터에 있으며, 간식과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숙제 지도가 필요할 땐 요청하여 해결한다. 이후 17시에 피아노학원으로 이동하여 18시에 마치면 걸어서 집으로 간다.

(4)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로는 가정, 학교, 센터, 학원이며 주중, 주말 모두 보호체계가 존재한다. 특히 교회는 주말의 중요한 보호체계이다.

〈표 27-1〉 아동 S의 평일 일과표

시간	7	7-8	8-13	13-17	17-18	18-22	22-24
누구와	부모,동생	부모,동생	교사, 친구	돌봄교사, 친구	강사	모, 동생	부모,동생
무엇을	취침	기상,식사, 등교	공부, 식사	놀이,학습, 간식	피아노	식사, 숙제, 놀이	취침
어디서	집	집	학교	센터	학원	집	집
부모	○	○	X	X	X	○	○
보호체계	○	○	○	○	○	○	○
시간분석	7시간	1시간	5시간	4시간	1시간	4시간	2시간

〈표 27-2〉 아동 S의 주말 일과표

시간	9	9-11	11-14	14-20	20-21	21-24
누구와	부모, 동생	부모, 동생	부모, 동생	부모, 동생	부모, 동생	부모, 동생
무엇을	취침	식사, 미술활동	공부방, 예배, 식사	놀이, 식사	가족회의	취침, 숙제
어디서	집	집	교회	집	집	집
부모	○	○	○	○	○	○
보호체계	○	○	○	○	○	○
시간분석	9시간	2시간	3시간	6시간	1시간	3시간

20) 사례 20 : 아동 T의 일상생활

아동 T는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으며 외동으로 일과가 끝난 이후에는 가족과 식사한 후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주말에는 야외로 주로 나간다. 학교가 끝나고 센터로 이동하며 끝나면 학원으로 간다. 아동의 보호체계는 항상 존재한다.

(1) 가정생활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살고 있으며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은 저녁부터 다음날 등교 전까지이다. 식사 시간 이후 숙제 및 받아쓰기 연습을 어머니와 함께 보내며 끝난 이후에는 아버지와 일상생활 등 많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자주 갖는다. 주말에 아버지가 함께 있는 날은 야외로 나가서 시간을 가족과 보낸다.

(2) 학교생활

등교 시간부터 13시까지 학교에 있으며 수업, 식사, 친구들과 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정규수업이 끝난 후 다함께돌봄센터로 이동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 및 학원생활

13시부터 17시까지 센터에서 지내며 간식 또는 친구들과 놀면서 자유시간을 가진다. 17시부터 18시까지 태권도학원으로 이동하며 친구와 함께 도보로 귀가한다.

(4)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아동의 보호체계는 가정, 학교, 센터이며 주중과 주말 모두 보호체계가 항상 존재한다.

〈표 28-1〉 아동 T의 주중 일과표

시간	7	7-8	8-13	13-17	17-18	18-22	22-24
누구와	부모	부모	교사, 친구	돌봄교사, 친구	강사	부모	부모
무엇을	취침	기상, 식사, 등교	공부, 식사	놀이, 학습, 간식	태권도	식사, 숙제,	취침
어디서	집	집	학교	센터	학원	집	집
부모	○	○	X	X	X	○	○
보호체계	○	○	○	○	○	○	○
시간분석	7시간	1시간	5시간	5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표 28-2〉 아동 T의 주말 일과표

시간	0-9	9-18	18-21	21-24
누구와	부모	모	부모	부모
무엇을	취침	식사, 놀이, 학습	식사, 놀이, 친구	취침
어디서	집	집	집, 야외	집
부모	○	○	○	○
보호체계	○	○	○	○
시간 분석	9시간	9시간	3시간	3시간

본 연구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일상생활을 가정, 학교, 센터 및 학원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들의 보호 체계와 돌봄 공백을 확인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맞벌이가정의 자녀들로, 이들의 부모의 퇴근 시간까지 주로 형제자매, 조부모,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아이돌보미를 이용하고 있었다. 더불어, 학교에서는 방과 후 돌봄교실과 연계하여 돌봄을 제공하며,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아동들에게 숙제 및 교과목지도,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동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었다. 평일에는 학교, 센터, 가정이 아동을 보호하는 주된 보호 체계이며, 주말에는 가족이나 친인척, 종교활동 등 비공식적인 돌봄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다함께돌봄센터가 맞벌이가정의 아동들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부모의 출퇴근 시간과 센터 운영시간의 불일치, 가족 형태와 구성원에 따른 돌봄 공백 등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모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돌봄센터의 운영시간 확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운영 제공, 통합돌봄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 2.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의 가족 레질리언스 분석

가족 레질리언스는 가족이 역경을 긍정적으로 대응하며, 서로 지지하고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는 과정적 능력을 말한다. 이는 가족이 경험하는 변화를 하나의 과정으로 인정하며, 가족의 형태나 구조보다는 대처 및 해결 능력에 초점을 맞춘다. 가족이 경험하는 변화를 하나의 과정으로 인정하며, 가족의 형태나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대처 및 해결 능력에 초점을 두며, 원가족에서 경험했던 위기와 극복의 과정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나타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가족 레질리언스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이용 아동의 위기 경험은 다음과 같다.

### 1) 위기 경험

#### (1) 부모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

나홀로 아동의 증가로 인한 현대사회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홀로 아동에게 부모의 부재는 한 가족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힘든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 29〉 위기 경험 - 부모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

#### 발췌문

센터 끝나면 집으로 바로 가요. 집에 가면 언니가 와요. 언니가 중학생이라서 5시 넘으면 집에 오거든요. 오면 언니가 저녁 챙겨줘요. 그리고 각자 방에 들어가서 온라인수업 들어요. 언니도 온라인 들어서요. 언니가 늦을 때도 있는데 그때는 그냥 먼저 온라인수업 듣다가 나중에 같이 저녁 먹어요. 엄마가 한 번씩 5시 넘어서 올 때가 있는데.. 그러면 좋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기다렸다가 엄마, 아빠 오시면 그때 자요. 일찍 마치면 좋아요.... [사례 1]

엄마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빠가 집에 안 계실 때에는 할머니 집으로 가서 동생이랑 같이 저녁 먹어요. 평일에는 웬만하면 가요. 아빠 일하는 시간이 때면 달라서요.. 동생이랑 집에서 같이 있어요. 각자 방에서요. 아빠가 오는 날에는 같이 저녁 먹고.. 아빠가 요리도 해주세요. 같이 밥 먹으면 같이 얘기도 하고.. 잘 들어주시고..그래요. [사례 2]

저희 집은 넓어요. 집은 넓은데.. 같이 하는 건 없어요. 심심해요.

주말에는 엄마가 5시쯤 마치거든요. 오기 전까지는 배고픈 생각이 없어서 그냥

---

바나나 하나 먹고 자요. 그러면 엄마가 오시거든요. 동생도 같이 바나나 먹어요. (배는 안 고파?) 네 생각이 없어요. 근데 저녁 되면 엄청 배고파요. 그래서 그때는 많이 먹어요. 엄마 오시니깐...[사례 3]

아빠가 교대근무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일찍 나가시거나 늦게 오시거나 늦게 나가시거나 일찍 들어오세요. 아빠 출근하시면 주말에 누나는 맨날 놀러 나가요. 그래서 저 혼자 집에 있어요. 그냥 혼자 아빠가 김치찌개 같은 거 해놓고 가시면.. 그거 먹고 있어요. [사례 5]

형은 군대 갔어요. 엄마랑 아빠랑 늦게 마치고 오시니깐. 저녁은 누나가 차려줘요. 누나가 늦으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배달시켜 먹어요. 시켜 먹어서 좋을 때도 있지만 싫을 때가 많아요. 혼자서 먹으면... 그냥 그래요. [사례 6]

부모님이 바쁘세요. 저희는 식사할 때만 만나요. 다들 바빠요. 주말에는 할머니랑 있는데, 할머니는 방에만 계시니깐. 그래서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올 때도 있어요. [사례 7]

언제는 제가 아픈데 혼자 집에 있었던 적도 있어요. 학교도 못 갔어요. 별로 안 아파서 괜찮아요. 엄마는 출근하고 저는 혼자 있었어요. 익숙해서 괜찮아요. [사례 12]

좋은데 엄마가 회사를 다니다 보니깐 시간을 못 지키는 약속이 있어서 그게 힘들어요. 여름에는 엄마가 회사 갔는데 나오라 할 때 바로 못 나와서 덥고 힘들었어요. [사례 13]

엄마랑 아빠랑 바쁘세요. 일 때문에 바쁘시거든요. 그래서 동생이랑 저랑 갈라질 때가 많아요. 외할머니는 방어진에 있고 친할머니는 양산에 있거든요. 저는 양산에 가고 동생은 방어진에 가요. 이제는 적응돼서 괜찮아요. 친할머니는 원래 부산에 사셨다가 양산으로 오셨거든요. 금요일에 엄마, 아빠랑 같이 양산에 같이 갔다가 다시 일하러 가세요. 예전부터 할머니집에 많이 있어 서서...엄마, 아빠랑 같이 뭘 해본 게 없어요. 사실 그게 좀 불만이에요. 근데 적응됐어요. [사례 14]

형이랑 엄마 퇴근할 때까지 기다려요. [사례 15]

---

5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매일 매일 귀신 꿈을 꿔요. 저는 약간 잠을 낮에 안 자는 야행성 같은 거라. 이틀씩 밤샘 거라고. 최고 기록은 새벽 4시 아니면 5시예요. 왜냐하면 엄마랑 너무 같이 자고 싶어서 기다렸어요. 근데 그 시

---

---

간이 새벽 4시였어요. 그래서 제 최고 기록은 새벽 4시 아니면 5시예요. 근데 요즘엔 절대 안 그래요. 그냥 같이 있으면 좋겠어요. [사례 16]

---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많다고 생각해요. 오빠 있으면 오빠랑 같이 놀거나 책 보거나 그래요. 아니면.. 저 혼자 피아노치고 놀아요. [사례 18]

---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가지는 어려움 가운데 부모의 부재로 인해 오는 어려움을 주로 호소하였으며, 아동의 일과가 끝난 후 아동이 홀로 보내는 시간에서의 외로움과 의식주 문제 등을 어려움으로 나타냈다. 대상자 모두 맞벌이가정으로 자녀들과 주중에 함께하는 시간이 적으며 각자 해야 할 일을 하는 등 서로 간의 교류가 적음을 알 수 있으며, 주말 또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여 아동들은 외로움 등의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 (2) 부모의 관계로 인한 어려움

부모의 관계 악화와 단절로 인한 어려움은 가족구조 및 극단적인 감정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및 갈등을 불러오기도 한다. 부모의 관계로부터 온 환경에 대한 부적응은 가족 내 긴장과 갈등을 높이고 외로움과 상실감으로 인해 아동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

### 〈표 30〉 위기 경험 - 부모의 관계로 인한 어려움

#### 발췌문

제가 자고 있을 때, 엄마랑 아빠랑 엄청 싸웠어요. 살짝 울고 있었는데.. 너무 놀라서요. 갑자기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가 너무 화나서 옷 장문 열다가 힘 조절을 못해서... 모르고 유리창을 깬 거예요... 다음날 뭐지? 했는데 유리창이 깨져있는 거예요. 그때 엄청 무서웠어요. 엄마랑 아빠랑 싸울 때마다 속상해서 방에서 울었어요. 이혼할까 봐요... [사례 1]

엄마가 화나면 아빠한테 엄마가 소리 질러요. 화풀이 하던데요? 그래서 그냥 듣고 있어요. [사례 3]

엄마랑 아빠랑 자주 싸우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따로 지내고 있어요. 저는 엄마랑 같이 지내고 있고 아빠랑은 연락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사례 4]

아빠가 예전에 제가 놀던 장난감이 있거든요. 그거 아빠가 찾아서 꺼내줬는데 아빠가 꺼내주고 술을 드셨어요. 한... 몇 시간 뒤에.. 저 자려고 엄마한테 갔는데.. 엄마가 다시 거실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실에 있는 장난감 보고 아빠한테 이거

---

---

뭐냐고 하니깐 아빠가 자기가 꺼내 준거라고 해서... 엄마가 화나서 아빠랑 싸웠어요. 저 때문에 싸운 것 같아서 속상했어요. 그 이후로 아무 대답 안 하시다가 아빠가 엄마한테 돈 주니깐 그때 화가 풀렸어요. 슬펐어요. 화는 풀리셨는데 속상했어요. [사례 7]

---

본 연구대상자들의 어려움으로 부모의 관계로 인한 어려움에는 부모의 갈등과 잦은 싸움으로 아동이 겪게 되는 심리적 외로움과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자녀는 부모님의 싸움으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꼈으며, 부모님의 잦은 싸움으로 인해 따로 지내게 되면서 상처는 있으나 현재는 괜찮다고 한 사례, 아빠가 술을 마시고 아동의 장난감을 꺼내준 것 때문에 엄마와 다투고 되었고 아동 자신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여 속상함을 느끼는 등을 확인하였다.

### (3) 가족 내 다양한 갈등

가족 내 갈등의 내용에는 가족 간 불화, 조부모님의 남아선호사상, 부모님의 일방적 의사소통 등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가족 관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표 31> 위기 경험 - 가족 내 다양한 갈등

##### 발췌문

동생이 말을 안 들어요. 그냥 짜증 나요. 하지 말라하고 그냥 놔둬요. [사례 2]

아빠는 누나가 저 때릴 때는 뭐라고 안 하시는데 제가 누나를 때리면 혼나요. 장난으로 해도 그래요. [사례 5]

우리 집에서는 엄마가 제일 목소리가 커요. 엄마는 화나면 때리고 해요. 저 때릴 때도 있고 아빠한테도 그럴 때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도 소리 지를 때 있어요. 화나면 때려요.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사례 7]

외할머니가 저의 집에 오셨는데요. 동생이 저를 먼저 때리는 거예요. 제가 동생을 툭 터치했는데 외할머니가 동생한테 가까이 오니깐 넘어지는 척하고, 절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할머니는 저한테 혼내고 저는 아빠한테 가서 울었는데 할머니는 동생만 믿어요. 남동생이 가족 중에 제 동생밖에 없어서 할머니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할머니가 큰 외삼촌이 있는데요. 그 딸내 보다 제 동생을 더 좋아해요. 남자라서 좋아하고 한 명밖에 없어서 좋아해요. 그게 너무 화가 나고 서운해요. 동생한테 사과받고 싶은데 동생이 사과를 안 해요. [사례 14]

---

---

시아(동생)가 저의 집에서 1등이에요. 맨날 저 때려요. 저는 5살 때부터 철이 들었는데. 밖에서는 소심한데 안에서는 저희를 만만하게 봐요. 원래는 착했었는데 점점 약간 변해서 너무 힘들어요. 말을 해도 해도 안 들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동생한테 받는 게 절반이에요. [사례 16]

엄마 아빠한테 혼나서 쫓겨났어요. 오빠랑 장난 치다가 크게 싸워서요. 속상했어요. 그때 엄마한테 매달려서... 한 번만 기회 준다고 해서 들어왔어요. 노력하고 있는데 또 쫓겨날 것 같아요. 오빠랑 계속 싸워요. [사례 18]

---

본 연구대상자들의 어려움으로 가족 내 다양한 갈등에는 동생이 말을 듣지 않고 짜증을 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엄마와 할머니가 화를 내면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불만인 경우, 외할머니가 동생만 편애하는 것이 속상한 사례 등이 있다.

#### (4)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

예상치 못한 가족 구성원의 사건, 사고 등은 가족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가족 구성원의 사망과 부모의 사건·사고, 부모님의 질병으로 인한 건강 악화 등에 따른 자녀의 돌봄, 가사 활동 등 가족 구성원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가족 구성원들의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 〈표 32〉 위기 경험 -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

##### 발췌문

엄마가 작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너무 슬펐어요. 지금은 생각 안 해요. 생각 하면 모두가 힘들니까요. 여기 센터에서 상담도 해주셨는데 지금은 안 해요. 하고 싶지 않아서요. [사례 2]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누나랑 같이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가 많이 도와주세요. [사례 5]

엄마가 다리를 다쳐서 깁스를 했어요. 슬펐어요. 아주 많아요. 엄마가 못 움직이니깐 제가 아빠가 만든 밥을 쟁반에 들고 엄마한테 가져다줬어요. 일도 못 가셨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슬퍼요. [사례 6]

아빠가 일하시다가 벽에 등이 부딪혔대요. 집 와서 밥도 안 먹고 이틀 동안 피곤하다고 주무셨어요. 밥도 안 먹고 병원만 가고... 속상했어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사례 7]

---

맨날 기분이 안 좋아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저~저~저번 주예요. 제가

---

---

할아버지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존경하는 사람이 저희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는 저한테 매일 매일 예쁘다고 해 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같이 놀아줬어요. 엄마, 아빠보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요. 평소에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누워있고 그러셨는데 갑자기 호흡이...안되서...돌아가셨어요. 아니 이걸 꿈인 것 같았는데 꿈이 아니어서 속상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아요. [사례 8]

제가 왕따를 당했거든요. 저는 예전에 어둠에 뒤덮인 적이 있지만, 사이에 작은 빛으로 극복하고 살아 나가는 사람이예요. 평범한 것 같지만 평범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예요. 평범하지 않은 인생은... 제가 왕따를 당한 거 말이에요. 친구들이 저희 집 보고 쓰레기라고 놀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방과 후 돌봄 선생님께 말씀드렸는데 수업하기 전이고 애들이 돌아다니고 그래서 제 얘기를 못 들은 건지 저한테 무관심한 건지는 모르겠어요...[사례 9]

처음에 00에 올 때,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엄마랑 단둘이 살아야 하고 아빠랑 고모랑 다 떨어져야 돼서요. 00 온 지 1년 하고 한 2개월 됐어요. 주말마다 아빠가 내려오신다고 해서 그 말 듣고... 서울 올라갈 때도 고모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사례 10]

갑자기 아빠가 수원에 일하러 갔어요. 아빠랑 꽤 많은 대화를 하거든요. 좀 많이 서운했어요. [사례 12]

아빠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상처나고 그래서.. 속상했어요. 그냥 치료 받았어요. 계속... [사례 13]

할아버지가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아프셨거든요. 심장병인가? 못하고셨거든요. 결국엔 돌아가셨어요. 잘 해주셨는데...[사례 16]

---

#### 〈표 33〉 위기 경험

- 부모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 [사례 1, 2, 3, 5, 6, 7, 12, 14, 16]
  - 부모의 관계로 인한 어려움 [사례 1, 3, 4, 7]
  - 가족 내 다양한 갈등 [사례 2, 5, 7, 14, 16]
  -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 [사례 2, 5, 6, 7, 8, 9, 10, 12, 16]
- 

본 연구대상자들의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에는 가족 구성원의 사망, 부상, 이별 등으로 인한 상실과 슬픔, 스트레스 등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가족들은 서로 지지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경험을 종합해보면, 본 연구대상자들은 부모의 부재, 부모의 관계, 가족 내 갈등,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부모의 부재로 인해 아동은 외로움과 의식주 문제 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부모의 관계 악화 및 단절로 가족 내 긴장과 갈등이 높아지면서 아동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가족 내 갈등은 가족 간 불신 및 불화, 조부모님의 남아선호사상, 부모님의 일방적인 의사소통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족관계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는 가족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가족 구성원의 사망, 부모의 사고, 부모님의 질병으로 인한 건강 악화 등이 있다.

본 연구대상자들은 맞벌이가정의 아동으로 부모와의 시간이 부족하며, 자녀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들은 외로움과 불안감을 느끼며,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례에서 아동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불평하기보다는 적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혼자서 밥을 차려 먹거나, 할머니 댁에 가는 것에 익숙하다고 말하며, 부모님이 바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또한, 누나, 언니가 아동의 저녁을 챙겨주며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하여 수행함으로써 가족 구성원 간 상호작용을 통하여 아동이 느끼는 정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가족 레질리언스 관점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이해, 그리고 서로를 지지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맞벌이가정의 아동은 부모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만, 가족 레질리언스 관점에서 이러한 위기와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다.

## 2) 가족 레질리언스 하위요인

위와 같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원가족에서 다양한 위기의 경험이 있었다. 이러한 가족 위기 경험에 대해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여 극복하는 과정을 Walsh의 가족 레질리언스 영역인 가족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과정의 하위영역별로 범주화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1) 가족신념체계

가족신념체계는 모든 가족 기능의 핵심이며, 레질리언스의 강력한 힘으로 가족은 위기를 경험할 때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더욱 강해지기도 한다. 가족들은 신뢰를 바탕으로 가족에게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상호·협력하고, 그 위기를 함께 해결하면서 위기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정서를 공유하기도 한다.

본 연구 사례의 가족들은 가족의 위기 경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대상자 가족들은 위기를 통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가족 구성원의 소중함을 알고, 현재 놓인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며 도움을 주려는 과정에서 느껴 온 정서가 공유되어 가족 간 높은 신뢰가 형성된다. 또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등 지지자로서 구성원을 인식해 나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족신념체계의 하위영역은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긍정적 시각, 초월과 영성이며 먼저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에 대해 범주화하고 요약한 것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는 가족들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역경의 의미는 가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여과되며, 가족 레질리언스에서 가족의 위기상황에 대한 이해와 의미부여는 중요하다. 따라서 가족이 과거에 역경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경험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가족이 유사한 위기 혹은 변화를 극복하는 데 성공한 경험이 있다면, 그러한 기억은 현재 상황에서 더 큰 자신감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표 34〉 가족신념체계 -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 발췌문

엄마가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1년 전예요. 슬펐어요. 집에서 서로 엄마에 대해서는.. 말은 안 해요. 아빠가 힘들어하실까 봐..돌봄센터에서 상담도 받고 그랬는데 이제는 안 해요 생각나니깐. 근데 아빠가 많이 달라졌어요. 요리도 해주시고... 만두도 만들어서 센터에 가져다주셨어요. 엄마는 타이트하게 하라고 딱

---

그랬었는데 아빠는 안 그래서 좋아요. 많이 달라졌어요. 그건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사례 2]

엄마랑 아빠랑 자주 싸우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따로 지내고 있어요. 저는 엄마랑 같이 지내고 있고 아빠랑은 연락 안 해요. 그때는 좀.. 힘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괜찮아요. 오히려 지금이 더 좋은 거 같기도 해요 [사례 4].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아빠랑 누나가 있어서 괜찮아요. 아빠가 잘 챙겨주시고 할머니 집도 가깝고 그래서 필요하면 가도 돼요. 모르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괜찮아요. 아빠랑 누나가 있어서요. [사례 5].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왕따를 당한 거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힘이 되어주셨어요. 엄마랑 아빠가 해 준 말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그 상황을 이겨낸 저 덕분에 아니면 하느님이 도와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사례 9]

처음에 울산에 올 때 제일 힘들었어요. 주말마다 아빠가 내려오신다고 해서 그 말 듣고 서울 올라갈 때도 고모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은 엄마랑 단둘이 사는 게 익숙해졌고, 그리고 이제는 아빠도 일주일에 한 번만 내려오셨는데 이제는 일이 있으셔서 목요일에도 내려와요. [사례 10]

학교에 남자들 이간질 때문에 친구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너무 고약하고 유치하고 한심해서... 맨날 유치한 말만 하고 그래서 말을 안 섞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기도했어요.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괜찮다고 친구들끼리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잘 들어줬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사례 19]

---

본 연구대상자는 엄마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가족들이 슬픔을 겪지만, 아빠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며 가족들이 서로를 지지하고 있으며, 부모와의 갈등으로 분리되어 지내지만, 이를 받아들이고 현재 상황에 적응하며 지내고 있다. 또한 왕따를 경험한 적이 있지만, 부모님의 지지와 종교적 믿음을 통해 극복하고 있다. 이처럼 가족들은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지내며,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는 포기하고 수용하는 방법을 터득하여 사용한다. 가족 구성원들은 역경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여 서로를 지지하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 ② 긍정적 시각

탄력적인 사람들은 위기 또는 실패를 도전이나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고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용기, 인내, 희망과 같은 강점으로 접근하며 가족 레질리언스에서 긍정적 시각과 인내는 매우 중요하며 핵심 요소이다. 희망은 역경이 클수록 역경은 해결해 나가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며,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희망을 통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 의지할 수 있게 된다.

### 〈표 35〉 가족신념체계 - 긍정적 시각

#### 발췌문

집에서는 저 애교 많아요. 애교 부려요. 언니가 사춘기거든요. 딱 정색하고 표정도 야기 같지 않고 욕심도 많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애교 많이 부려요. 엄마, 아빠 기분 좋아지라고. [사례 1]

사실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멘탈이 최고예요. 어려운 게 있어도 흔들리지 않으니깐요. 흔들리지 않는 힘은 가족이니깐요. [사례 2]

일해서 오히려 좋아요. 유튜브를 많이 볼 수 있으니깐요. 그리고 엄마가 일 끝나면 같이 호수공원도 다니고 운동도 되고 좋아요. 귀찮을 때도 있지만요.. [사례 3]

저는 집에서 즐거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집에서 자주 웃어가지고... [사례 5]

엄마랑 아빠는 일하시니깐... 누나는 방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심심하기도 하고 근데 아빠, 엄마 둘 다 돈 많이 벌어서 맛있는 거 많이 사주려고... 생각해서..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요. [사례 6]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숙제는 혼자서 해요. 부모님이 바쁘셔서요. 이제는 혼자서도 잘해요. 방학 때에 밀린 숙제 혼자서 새벽 4시까지 했어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어요. 다 끝내서 뿌듯했어요. [사례 7]

저희 엄마는 베트남 사람이거든요. 아빠는 바빠서 못 갔는데요.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어서 베트남에 다녀온 적 있어요. 그때 좋았어요. 형들이랑 같이 뒷마당에서 닭도 잡고 놀았어요. 그리고 집도 넓고 수영장도 있고 좋았어요. 친구들한테 자랑했더니 이제는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기분 좋았어요. [사례 7]

지금이 더 나은 거 같아요. 노는 것도 좋지만 계속 놀기만 하면 그러면... 건강이랑 머리가 나빠지고.. 여기(센터)에 다니면 재미있고 공부도 알려주시고.. 지금이

---

좋아요. [사례 8]

제가 오형이라 금방 친해져요. 그래서 센터 친구들이랑도 친해요. [사례 9]

일요일에도 일하러 가세요. 엄마 직업이 일이 안 끝나는 직업이세요. 저는 딱히  
섭섭하지 않아요. 식사할 때나 산책할 때 대화를 해서 대화가 적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례 10]

아빠가 주말에 오시면 오히려 좋아요. 아빠가 오면은 별로 안와서 맛있는거 많이  
사줘요. 원래는 치킨이랑 콜라는 잘 안 사주는데... 그리고 주말에는 무조건 야외  
로 나가요. [사례 12]

---

엄마 좋아요. 아빠 좋아요. 그냥 좋아요. [사례 16]

---

본 연구대상자들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고, 각자의 역할을 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동생은 부모님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한 애교를 부리며, 언니의 사춘기로 인한 부모님의 어려움을 덜어준다. 가족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지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유지하고자 노력한다. 부모님이 일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함께 운동하며 시간을 보내는 등 가족 간의 소통과 유대감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가족들은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지내며,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앞으로의 더 나은 상황을 위해 희망을 품고, 극복해 나가고 있다.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포기하고 수용하는 방법을 터득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 ③ 초월과 영성

초월과 영성은 회복, 치유, 레질리언스를 위한 강력한 치료적 자원이며, 여러 가지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는 특성을 가진다. 기능이 잘 되는 가족의 경우, 문제의 원인을 순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며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며 미래의 일들을 계획하거나 사회적 행동을 실행한다. 본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들이 보고한 초월과 영성은 다음과 같이 영성 관련, 역할모델과 삶의 영웅으로 나타났다.

### ㉠ 영성관련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나누는 의식 또는 종교활동은 위기를 경험할 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하며 마음의 평안을 준다. 가족은 포기하지 않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극복해 나갈 수 있으며 보다 큰 가치와 삶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췌문

일요일 날에 교회 가요. 엄마랑 언니랑 같이 가요. 아빠는 교회를 안 다니세요. 예배를 드리고 와요.... 집에서 혼자 슬픈 일 있을 때마다 제발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마음이 좀 안심이 되고 나아져요. 근데 실제로 기도한 순간 엄마 아빠가 안 싸워요. 마음이 많이 안정돼요. 필요한 순간에 기도를 하거든요. [사례 1]

종교는 지금 없어요. 예전에는 있었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아예 안가서요... 일어서 있을 때 다리가 너무 아팠어요. 갈수록... 귀찮아서 안 갔어요. 그래도 한 번씩 생각은 해요. [사례 5]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하느님한테 기도는 해요. [사례 9]

종교 없어요. 예전에 교회 다녔는데 이제는 안 다녀요. 예전에는 다 같이 다녔는데 이제는 안 다녀요. 절대요. 이야기만 하고 너무 지루해요. [사례 12]

아빠랑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불교예요. 자주는 못 갔어요. 절가면 맛있는 거 먹고 재밌어요. [사례 14]

예전에 엄마랑 이모랑 같이 교회에 다녔어요. 동구에서... 지금은 안 가요... 떨어져서.. [사례 16]

일요일에는 교회를 가야 돼요. 교회에서 찬양하고 공부하고 밥 먹고 바로 와요. 교회에 안 갈 때에는 집에서 기도해요. 기도하면 마음이 편찮아지고 기도하면은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또 안 좋아져요. 그 일만 해결돼요. [사례 18]

교회를 가면 좋아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끝날 때 거기에도 친구들이랑 선생님들이 좋고... 하는 프로그램도 많아서 재밌어요. 말씀으로 퀴즈 내고 맞추면 상품도 줘요. 재밌고 좋아요. 아빠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서 아빠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가족들끼리 놀이공원 가게 해주세요.. [사례 19]

본 연구대상자들은 가족이 함께 교회를 다니며, 기도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었다. 특히, 기도를 통해 부모님의 싸움이 줄어들어는 경험을 하면서 기도의 힘을 믿고 있었다. 현재 종교가 없거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기도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거나, 감사함을 표현하거나, 소원을 비는 등의 행동이 나타났다. 이처럼 가족 구성원들은 종교활동이나 기도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있으며, 서로를 지지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었다.

㉠ 역할 모델과 삶의 영웅

가족에 속한 구성원들은 직접적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게 되는데, 이때 훌륭한 삶의 모델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경험하고 발전할 수 있다. 주변 사람의 성공과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정신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표 37〉 가족신념체계 - 역할 모델과 삶의 영웅

발췌문

유관순. 어린대도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외치고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용기 있게 싸우는 게. 저도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남을 위해 돕고 싶어요. [사례 1]

저희 반 선생님이요. 선생님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싶어요. 긍정적이셔가지고... 그냥... 음... 약간 일상생활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넘 좋아요. 눈물이 왈칵 나는 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례 2]

누나. 누나는 말을 잘해요. 어떤 면에서는 누나는 저한테 큰 사람이예요. 배울 점이 많아요. [사례 5]

저희 아빠요! 리더십이 강하고 그래서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사례 6]

저는 커서 아빠처럼 용기 있고 상대방 배려해 주는 모습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례 7]

존경하는 외할아버지요. 맨날 예쁘다 해주시고 잘 놀아주셨어요. 엄마, 아빠보다 더... [사례 8]

서후언니(다함께돌봄센터 언니)요. 언니는 그림도 잘 그리고 똑똑해요. 무엇보다 저는 하고 싶으면 생각 없이 하는데. 언니는 미리 생각하고 정해놓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공간이 재밌으면 가는데 언니는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안 가거든요. [사례 9]

---

태권도 관장님이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위협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고 제 몸을 지킬 수도 있어서요. [사례 12]

의사. 아픈 아이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요. 오빠가 많이 다쳐서 병원 갔는데 오빠도 치료해주시고... 거기 아픈 애들이 많아서요. [사례 18]

저는 엄마요. 엄마는 엄청 열심히 일해서 적은 돈을 받는 사람 보다 엄청 적에 일해서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교회에서도 엄마가 선생님이어서 토요일 저녁에 말씀을 미리 준비하고 그래요. 멋있어요. [사례 19]

---

〈표 38〉 가족신념체계 : 초월과 영성 - 역할 모델과 삶의 영웅

---

- 가족 [사례 5, 6, 7, 8, 18]
  - 위인 [사례 1]
  - 교사 [사례 2, 12]
  - 기타 [사례 9, 18]
- 

본 연구대상자들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역할모델로 삼아, 그들의 행동과 태도를 본받으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유관순을 역할모델로 삼아 용기와 희생정신을 배우고자 하며, 선생님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본받고자 하였다. 누나의 말씀씨와 판단력을 존경하며, 아빠의 리더십과 용기 그리고 배려심을 닮고자 하였다. 외할아버지의 자상함과 애정을 소중히 여기며, 돌봄센터 언니의 신중함과 조심성을, 태권도 관장님의 용기와 타인에 대한 배려, 엄마의 성실함과 열정을 존경하며 부모의 가치관을 따르고자 하는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가족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은 가족 레질리언스를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며, 가족으로부터 배운 가치와 신념은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 삶의 역할모델이나 영웅을 가족 내에서 찾거나 외부에서부터 힘을 얻어 그 역할모델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내면화하는 과정을 통해 진심으로 배우고 따르고자 하였다.

가족신념체계를 요약하면, 역경에 대한 의미 부여로 가족들은 역경을 도전이나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긍정적 시각으로 극복하는 과정에서 희망을 갖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었으며, 초월과 영성으로 구성원들은 종교활동이나 역할모델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삶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족신념체계는 가족 레질리언스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가족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관과 믿음은 가족의 응집력을 높이고, 위기 상황에 대처 능력을 향상시킨다.

## (2) 조직유형

가족의 조직유형은 가족 단위의 통합을 지지하는 것으로 관계를 정의하고 행동을 규제하며 내·외적인 규범을 유지하는 등 문화 및 가족의 신념체계에 의해 강화된다. 이는 가족의 역할 안정성과 융통성, 연결성, 가족의 사회·경제적 자원을 통해 형성된다. 하위 개념의 이해를 통해 조직유형 과정이 어떻게 가족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 ① 융통성

융통성이란 안정성과 변화의 균형을 의미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른 도전에 적합하도록 복귀하고 재조직하고 적응하는 것이다. 가족 체계 안에서의 융통성은 회복력을 수반하지는 않으나 개인 또는 가족이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도록 돕기 위해 재조직하도록 돕는다. 가족 구성원은 위기와 도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안정성과 변화의 균형을 유지하며 적합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 ㉠ 규칙·약속 및 역할 안정성

가족 레질리언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합의된 규칙을 준수하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도록 약속한다. 또한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수행한다.

〈표 39〉 조직유형 - 융통성 - 규칙·약속 및 역할 안정성

#### 발췌문

사생활 지켜주기. 방에 노크하고 들어가야돼요. 언니가 마음대로 방에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폰 시간제한 있어요. 1시간이요. 필요하면 말하는데 엄마가 들어보고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1시간 추가로 더 풀어주세요. [사례 1]

네. 핸드폰 같은 거 너무 오래 하면 안 돼요. 아빠한테 말하면 한 시간 정도는 들어주세요. [사례 2]

저희는 있어요. 인스타나 틱톡 같은 건 안돼요. 그리고 말 안하고 밖으로 나가면 혼나요. 그리고 엄마가 유튜브만 보래요. 제가 예전에 틱톡 계정으로 사고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된대요. 틱톡 계정으로 현질했어요. 그래서 지키고 있어요. [사례 3]

딱히 없는데. 위험한 것만 안 하면 돼요. 불량난 같은 거요. 그리고 따로 제안권 없어요. [사례 4]

---

네. 우선 늦게 자면 안 돼요. 스스로 공부를 챙겨서 해야 돼요. 그리고 밥 먹을 때에는 식탁에서... [사례 5]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10층이다 보니깐 소음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막 뛰지 않고 얇전히 다니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을 에너지를 아끼고 세 번째로는 나쁜 말 쓰지 않기. [사례 8]

정했는데... 동생들이 어려서 서로 까먹고 안 지켜요. [사례 9]

가족회의는 안 해요. 정한 적은 없지만 저희 집은 그냥 엄마 아빠가 대체적으로 욕을 안 하셔가지고 일단 욕을 안 한다는 규칙이 있어요. 규칙 하나 더 있긴 한데, 학교 숙제로 나왔는데 서로한테 이거 하지마라 저거 하지마라 명령어는 금지하기로 정한 적은 있어요. [사례 10]

쓰레기 버리기. 일찍 자기. [사례 12]

네 있어요. 짜증 내지 않기. 소리 지르지 않기. [사례 18]

욕하지 않는다. 욕을 계속하면 반성문 쓰기예요. 너무 심한 욕이 아니라면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5줄이면 되는데 심한 욕이면 15줄은 적어야 돼요. 폰 하면서 짜증 내지 않기. 밥 먹을 때 티비 보지 않기. 회의할 때 규칙을 바꾼 적은 없는데 추가한 적은 많아요. [사례 19]

---

#### <표 40> 조직유형 - 융통성 - 규칙·약속 및 역할 안정성

---

- 사생활 지켜주기. [사례 1]
  - 휴대폰 사용시간 지키기. [사례 2]
  - 틱톡 하지 않기. [사례 3]
  - 위험한 장난 하지 않기. [사례 4]
  -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사례 5]
  - 욕설 및 소리 지르지 않기. [사례 10, 18, 19]
  - 기타(쓰레기 버리기, 에너지 아끼기) [사례 8, 9]
- 

위 사례를 분석해보면,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의 사생활을 지켜주기 위해 방에 들어갈 때 노크를 하고, 핸드폰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규칙을 정하고 있다.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고, 서로에게 명령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쓰레기를 버리는 등의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가족회의를 통해 규칙을 수정하거나 추가하기도 한다. 일상생활 규칙과 도덕적인 약속, 그리고 자신의 역할수행에 대해

강조하고 있으며, 구성원들은 이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 ㉔ 변화와 적응

가족에게 위협이나 생활상의 변화가 생기면 가족 구성원들은 변화된 상황에 적응을 위해 필요에 따라 가족생활을 재조직하거나 구성원의 역할 변화를 도모하게 된다. 위기 상황에서 대부분 가족은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표 41〉 조직유형 - 융통성 - 변화와 적응

#### 발췌문

엄마가 돌아가시고 마음이 힘들었어요.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선생님 덕분에 그래도 잘 적응하고 있어요. 아빠도 안 하던 요리도 해주시고 제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할머니도 고모도 가까이 있어서 언제든 가도 돼요. [사례 2]

엄마는 안 계시지만 누나랑 아빠랑 같이 잘 지내고 있어요. [사례 5]

엄마가 일하다가 다쳐서 다리에 깁스했었는데 너무 슬펐어요. 엄마가 못 움직이니깐 아빠가 만든 밥을 쟁반에 들고 엄마한테 가져다줬어요. 그리고 형이랑 누나도 물도 가져다주고 집안일도 했어요. 다 같이 나눠서 했어요. 엄마가 다 나왔을 때 너무 신나고 기뻐했어요. [사례 6]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어서 베트남에 다녀온 적 있어요. 속상한 것도 있었어요. 베트남에서 다쳤거든요. 너무 아팠어요. 베트남 모기가 한국 모기보다 더 독하잖아요. 손에 물려서 엄청 고생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엄마가 베트남 약국 가서 약 사서 모기 물린 곳 다 발라줬어요. 그때 일이 벌어졌을 때는 막 속상했는데, 엄마가 약도 발라주고 옆에서 계속 챙겨주시는 거 보니까 좋았어요. 엄마랑 같이 있어서 그냥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사례 7]

동생들이 어리고 엄마가 돈도 많이 들어서 저는 학원을 끊었어요. 둘째는 태권도 다니고 저는 미술학원을 끊었어요. 속상하긴 해요. 근데 센터에서 미술 프로그램도 있고 또 자유시간에 그림 그릴 수 있도록 해줘서 센터에서 그리고 싶은 그림 다 그려요. 그리고 같이 다니는 언니가 그림을 잘 그려요. 그래서 같이 그려요. 재밌어요. [사례 9]

울산 왔을 때에는 일단 아빠도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빠가 급하게 찾아본 게 돌봄센터였는데 제가 다니는 학교랑 사는 지역이 못 다니는 거였는데... 두 번

---

제로 들어왔어요. 센터를 다니지 않았다면 혼자 있었을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없어진 것 같고.. 제가 원래 혼자 있는 시간에 책 읽는걸 좋아하는데... 여기에서는 수업도 하니깐 확실히 시간 개념도 생기고 좋은 것 같아요. [사례 10]

학교 방과 후 돌봄이 신청이 어려워서 여기 센터에 신청했었어요. 엄마가요. 친구들이 있어서 방과 후에 가고 싶었는데... 지금은 여기에 형들이랑 너무 친해져서 계속 다니고 싶어요. 헤어지기 싫어요. [사례 11]

저랑 동생이랑 갈라질 때가 많아요. 동생은 방어진 가고 저는 양산에 가요. 동생이랑 있는 시간은 학교 마치고 할머니집에 있는 시간 빼고는 같이 있어요. 이제 적응이 돼서 괜찮아요. 부산에 사셨다가 양산으로 오셨거든요. 적응돼서 괜찮아요. [사례 14]

엄마가 가보자고 해서 센터에 왔어요. 좋아요. 엄마, 아빠가 맞벌인데 엄마 아빠가 없을 때 저를 맡아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좋아요. [사례 18]

---

〈표 42〉 조직유형 - 융통성 - 변화와 적응

-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가족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사례 2, 5, 6, 7]
  - 현실적인 조건으로 인한 상황을 최대한 수용하고자 함. [사례 9]
  - 원하지 않았던 기억(이사)을 좋은 경험으로 적응하고자 함. [사례 10]
  - 예측되지 못한 상황으로부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자 함. [사례 11, 14, 18]
- 

위 사례를 분석해보면,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도 가족과 선생님의 지지로 학교생활에 적응한 경우, 부재한 엄마의 역할을 누나와 아빠가 대신하며 잘 지내는 경우,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사랑을 느끼며 베트남에서의 추억을 쌓은 경우, 동생과 떨어져 지내는 일상에 적응하여 안정감을 찾은 경우, 맞벌이 부모님을 대신하여 센터가 안전한 보호자 역할을 해주어 만족하는 사례 등이 있다. 이는 다양한 가족 구성원과 상황 속에서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적응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 ② 연결성

조직유형의 두 번째 요소는 연결성이다. 연결성은 가족 구성원 간의 차이를 적절히 구분하는 분리와 어려운 시기에 연합될 수 있는 균형을 강조한다. 기능을 잘하는 가족은 가족 구성원 간의 분리와 연합과의 균형을 잘 수행할 수 있으며 체계와

경계가 명료하다. 본 연구대상자의 가족에서 나타나는 연결성 측면을 범주화하여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㉔ 연합과 분리의 균형

가족 내 연합과 분리의 균형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지지하고 협력하는 것으로, 강력한 정서적 연대감을 유지하면서도 개별적인 독립과 정서적 분리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표 43〉 조직유형 : 융통성 - 연합과 분리의 균형

발췌문

부모님이 두 분 다 바쁘세요. 일하시느라. 저희는 가족여행 가거나 해외여행 갈 때 같이 모여서 계획 짜요. 그리고 같이 모일 때는 같이 공부해요. 숙제를 봐주시거나... 바빠도 그럴 땐 모여요. [사례 3]

형이 군대에 있거든요. 휴가 나올 때나 설날이거나 할 때 같이 모여요.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할머니댁도 가고 그래요. 할머니댁 가면 좋아요. 형이 휴가 나오면 더 좋구요. 같이 모여서 놀러도 가거든요. [사례 6]

돌봄센터는 고모가 알려줬어요. 한 2학년 때부터 공부가 뒤쳐진다고 그래서.. 근처에 있는 센터에 다니라고 해서 여기에 오게 됐어요. 다녀보니깐 도움은 좀 되는 것 같아요. [사례 7]

놀러갈 때, 캠핑 한 번씩 갔었어요. 카라반도요. 그때 같이 얘기해요. 제일 신나요. [사례 8]

센터에서 합창대회 나갔었는데. 저희 둘째 동생이랑 아버지가 빛나는 너를 응원해가 적혀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왕관을 가져왔어요. 그날은 엄마랑 셋째 동생도 왔어요. 그래서 기뻐어요. [사례 9]

엄마가 찾아서 센터에 왔어요. [사례 14]

엄마가 가 보자고 해서 센터에 오게 됐어요. [사례 18]

〈표 44〉 조직유형 : 융통성 - 연합과 분리의 균형

- 가족의 휴가 또는 명절에 가족들이 주로 화합이 잘 됨. [6]
- 무슨 일이 있으면 부모님이 검색하고 알아보고 해결함. [14, 18]
- 가족과 함께 여행계획 짤 때 화합이 잘 됨. [3, 8]
- 좋은 일이 있을 때 화합이 잘 됨. [9]

위 사례를 분석하면, 가족에게 갑작스러운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평소보다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불평하지 않고 가족의 어려움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맡으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족 내 리더십 공유

조직유형 중 유통성은 가족 내 리더십 공유를 말하며, 이는 가족 구성원들이 상황에 따라 리더십을 발휘하고,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표 45〉 조직유형 : 유통성 - 가족 내 리더십 공유

발췌문

아빠요. 집에서 가장이기도 하고 나이가 제일 많고 밥 먹을 때마다 수저를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들어요. 그리고 아빠가 남자이기도 하고 가장이기도 해서요. [사례 1]

아빠는 저희를 돌봐주시기도 하고. 중요한 결정은 아빠랑 상의해서 결정해야 되거든요. [사례 2]

엄마예요. 엄마는 제일 목소리가 커요. 집에서. 엄마가 말하면 웬만하면 다 따라가요. [사례 3]

엄마. 엄마가 대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엄마가 날 낳기도 했고...저랑 엄마 들어서 있으니깐요. 모든 면에서 이끌어 주니깐.. [사례 4]

아빠요. 왜냐하면 아빠랑 엄마랑 둘 다 돈 많이 벌어주고 맛있는 거 많이 사주는 데요. 나이가 아빠가 엄마보다 더 많거든요. 그래서 아빠요. [사례 6]

엄마요. 엄마는 목소리가 커요. 엄마는 화나면 때리고 하니깐. 엄마가 주로 결정해요. [사례 7]

지금은 엄마요. 엄마랑 같이 있기도 하고 엄마랑 대화도 많이 해요. 그리고 엄마가 결정하면 따라요. [사례 10]

엄마. 아빠가 가장이긴 한데요. 아빠가 밥 해주는 사람이 짱이라고 그랬어요. 엄마한테 말하면 빠르게 해결돼요. [사례 18]

〈표 46〉 조직유형 : 융통성 - 가족 내 리더십 공유

-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끄는 힘은 아버지임. [사례 1, 6]
- 가정을 이끄는 힘은 어머니임. [사례 3, 4, 7, 10, 18]
- 한부모가족으로 인해 한쪽 부모가 가정을 이끄심. [사례 2, 4]

위 사례를 분석하면, 가정유형은 모두 맞벌이가정으로 연구대상자와 함께 거주하는 양육자가 가정의 리더자로 나타나고, 취업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현재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로 나타났다. 또는 가족 내에서 아빠와 엄마가 상황에 따라 리더십을 발휘하고,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 레질리언스 조직유형 중 융통성에 해당하며 가족 구성원들이 상황에 따라 역할을 바꾸고, 서로를 지지하며 협력한다.

③ 사회 및 경제적 자원

조직유형의 세 번째 요소는 사회, 경제적 자원으로 가족이 위기 상황에서 내·외적 환경자원을 얼마나 잘 조직하고 있는가와 관련이 있으며, 가족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나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수용하고 사회, 경제적 자원을 동원하는 가족은 기능적인 가족이라 할 수 있다.

〈표 47〉 사회 및 경제적 자원

발췌문

방과 후 끝나고 센터에 있다가 집에 가요. 집에 가면 언니랑 같이 저녁 먹고 온라인수업을 각각 들어요. 부모님은 일하고 계세요. 평일에는 1(시쯤 퇴근해서 오시면 얼굴 보고 자요. [사례 1]

방과 후 수업 듣고 나면 센터에 가요 센터에 오후 6시까지 있다가 동생이랑 같이 아버지가 없는 경우에는 할머니집에 가서 저녁을 먹어요. 아니면 아빠가 차려주시고 같이 먹어요. [사례 2]

학교를 등교하면 수업하기 전에 방과 후 수업으로 아침 체육에 가요. 정규수업 이후 오후 방과 후 수업(방송댄스, 실험과학) 갔다가 센터에 가요. 센터가 끝나서 집에 가면 동생이랑 엄마 기다려요. 센터는 부모님의 권유로 왔고... [사례 3]

정규수업이 끝나면 센터에 같이 다니는 언니랑 버스 타고 센터로 와요. 6시에 엄마가 데리러 오세요. [사례 4]

학교 끝나면 센터에 와요. 6시까지 센터에 있어요. 누나도 같이 다녀요. 끝나며

---

누나랑 같이 집으로 가요. 저녁은 아빠가 차려주거나 아빠가 회사 가면 할머니니가 차려줘요. [사례 5]

학교 끝나면 버스 타고 센터로 이동해요. 보통 6시까지 센터에 있어요. 끝나면 엄마나 친구 부모님 아니면 택시 타고 집에 가요. 집에 가면 부모님이 계실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저녁은 누나가 차려줘요. 엄마 아빠는 10시 좀 넘어서 오세요. 저는 게임 하면서 기다려요... 제가 혼자 있는게 무섭다고 하니깐 엄마가 찾아서 여기 센터에 다니게 됐어요. 좋아요... [사례 6]

학교수업이 끝나면 요일에 따라 방과 후를 갔다가 센터를 가기도 하고..아니기도 해요. 센터에서 있다가 6시에 끝나면 태권도 가요. 태권도 차량 타고 집에 가요. [사례 7]

방과 후로 컴퓨터, 줄넘기 배워요. 끝나고 태권도 학원 가요. 그리고 센터로 가는데 6시까지 센터에 있다가 월, 화, 목, 금은 태권도 가가지고... 집에 가면 8시 30분쯤 돼요. [사례 8]

학교 끝나면 센터에 6시까지 있다가 집에 가요. [사례 9]

태권도 끝나면 센터로 와요, 6시까지 있다가 집에 가면 엄마는 일하시고 아빠는 수원에서 직장에 다니고 계셔서... 센터장님 추천 받아서 한 분이 계세요 아이돌 보미 선생님이랑 같이 엄마 올 때까지 있어요. 엄마는 7시 30분 늦으면 8시에 오세요. [사례 10]

학교 마치고 센터에 있다가 스포츠 학원에 갔다가 집에 가요.[사례 11]

학교 마치면 바로 센터에 가서 좀 있다가 학원에 가요. 영어, 피아노, 태권도 갔다가 집에 가요. [사례 12]

학교 마치면 센터로 와서 간식 먹어요. 그리고 조금 쉬다가 학원에 가요. [사례 13]

학교 끝나면 센터에 와요. 6시까지 있다가 집에 가요.  
주말에도 가끔 엄마랑 아빠랑 출근해서 같이 출근할 때도 있어요. 방어진에 외할머니 있고 친할머니는 양산에 있어요..저랑 동생이랑 갈라질 때가 많아요. 동생은 방어진에 가고 저는 양산에 가요. [사례 14]

---

학교에 공사해서 방과 후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끝나면 바로 센터로 와요. 끝나면 피아노학원 가야죠. [사례 15]

학교 마치면 센터 갔다가 피아노학원 가요. 그리고 집에 가요. [사례 16]

방과 후 수업은 학교에 석면 공사 때문에 못 가서 여기 센터로 왔어요. 센터에 있다가 영어, 피아노, 학습지 하러 가요. [사례 17]

학원 끝나면 센터로 가요. (시까지 있어요. [사례 18])

학교 끝나고 센터에 가요. 그리고 피아노도 가고... [사례 19]

센터에 학교 끝나고 와요. 시간 되면 태권도 가야 돼서..

집에 갔을 때 엄마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그러면 친구가 우리집에 와서 같이 있거나 친구가 같은 아파트고 친구의 엄마가 저희 엄마랑도 잘 아는 사이라서요. 친구 집에서 기다리기도 해요. [사례 20]

---

#### 〈표 48〉 사회 및 경제적 자원

---

- 다함께돌봄센터, 돌봄교실 이용.  
[사례 1, 3, 6, 7, 8, 9, 11, 12, 13, 15, 16, 17, 18, 19]
  - 가족의 도움을 받음. [사례 2, 5, 4]
  - 가족이나 친구, 주민의 도움을 받음. [사례 20]
  - 기타(아이돌보미) [사례 10]
- 

위 사례를 분석해보면, 가족이 이용한 사회·경제적 자원으로는 개인적 자원으로 친구, 친지 등이 있었고, 사회적 자원으로 학교, 다함께돌봄센터, 학원, 아이돌보미 등이 있었다. 연구대상자 대부분이 나홀로 아동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자원들은 아동에 대한 보호 체계로서의 중요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 평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가족의 어려움을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분 완화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조직유형을 요약하면, 가족 내 규칙과 약속, 그리고 역할 안정성은 가족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가족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변화와 적응은 가족의 유연성을 증진하고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이며, 연결성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지지와 협력을 촉진하여 가족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 경제적 자원은 가족의 자원을 풍부하게 하고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3) 의사소통과정

가족 레질리언스의 세 번째 하위 요소는 가족의 의사소통과정이다. 가족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를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가족의 의사소통과정에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명료성, 개방적 정서 표현, 상호 협력적 문제해결이다. 이 요소들은 가족의 기능을 활성화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① 명료성

가족 내에서 명확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가족이 잘 기능하는 데 필수적으로 특히 위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첫 번째 요소인 명료성은 가족 구성원들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들은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 또한 가족 구성원들이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공유된 이해와 인정은 가족의 적응과 대처에 매우 중요하다.

〈표 49〉 의사소통과정 : 명료성

#### 발췌문

엄마랑 아빠랑 제가 잘 때 싸운 적이 있는데 다음 날 일어나서 무서웠지만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싸웠냐고 물었고 그렇다고 엄마가 말해줬어요. 지금은 괜찮다고. [사례 1]

그냥 저는 아빠랑 동생이랑 대화할 때,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냥 솔직하게 기분이 나쁘면 나빴던 일 말하고 좋았으면 좋았던 일 말하고... [사례 2]

평소에는 두 분 다 바쁘셔서요. 제가 스스로 해결하거나 금방 해결되는 고민들은..제가.. 알아서 친구들이랑 해결해요. 해결 안 되면 그때는 말해요. 딱 잘라서 필요한 것만 딱 잘라서... [사례 3]

친구한테 먼저 말하고 심각하면 엄마한테 말해요. 엄마랑 대화는 잘 통해서 보통은 해결이 잘 됐어요. [사례 4]

누나한테 먼저 얘기해요. 얘기를 잘 들어주는 건 아니라서. 빠르고 간결하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누나도 저한테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엔 필요하면 아빠한테 말해요. 아빠도 잘 들어주세요. [사례 5]

---

고민이 생기면 저는 아빠한테 말해요. 아빠가 제일 잘 들어주거든요. 그리고 공감도 잘해줘요. 그래서 내 속마음을 솔직하게 아예 다 얘기해요. 그럼 마음이 편해요. [사례 7]

원래는 할아버지한테 말 다 했었는데. 돌아가셔서. 지금은 혼자서 해결하고 있어요. 필요하다면 엄마한테 얘기는 하죠 [사례 8]

말했어요. 솔직하게. 속상하실까 봐 고민하다가. 왕따를 당한거... 엄마랑 아빠가 잘 들어주셨고 괜찮다고 말해줬어요. 친구들이 잘못된거라고... [사례 9]

센터 프로그램에 엄마가 참여하지 말라고 해서 못 갔는데. 두 명 빼고 다 가니깐 속상해서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가 다음에도 하게 되면 신청해주신대요. [사례 10]

대화를 많이 했는데. 엄마가 동생을 돌보니깐... 잘 못해요. 동생이 어려서. 그래서 빨리... [사례 14]

---

〈표 50〉 의사소통과정 : 명료성

- 문제가 생겼을 때 간단명료하게 이야기함. [사례 3, 4, 5, 8, 10, 14]
  - 가족 간 솔직하게 이야기함. [사례 1, 2, 7]
  - 힘든 일이 생기면 다 같이 이야기하지만 심각한 문제는 부모님만 이야기함. [사례 9]
- 

본 연구 사례에서는 자녀가 부모의 갈등을 인지하고, 부모에게 직접 물어보며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가족과 소통한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혼자 해결하고 그렇지 않은 문제는 가족과 나누는 방식, 왕따를 당한 사실을 부모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하여 부모의 지지를 받은 것,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여 속상함을 표현하고, 엄마가 다음 기회를 약속한 것이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났다. 엄마가 동생을 돌보느라 바쁘지만, 대화를 시도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가족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이는 가족 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성원들이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상황을 파악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공통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제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다. 특히 사례 1, 9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사례 7에서는 아빠가 자녀의 고민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자녀의 성장에 도움임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 ② 개방적 정서표현

개방적인 정서표현은 즐겁고 행복한 감정에서 화나고 고통스러운 감정까지 허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감정공유를 뜻한다. 긍정적인 감정의 개방적 표현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서로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상호 간에 긍정적 감정이 개방적으로 활발히 표현되는 것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감소시키며 유머는 위기와 역경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 〈표 51〉 의사소통과정 : 개방적 정서표현

#### 발췌문

평소에 아빠랑 저랑 취향도 비슷하고 해서 아빠랑 이런 저런 얘기하면 잘 풀려요. [사례 1]

밥 먹을 때 아빠랑 얘기를 주로 하는 편인데, 저희가 필요한 게 뭔지를 많이 물어보시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나 주로 그런 거 물어보세요. 한번씩 할머니랑 얘기해요. 고마운거나. 먹는거나... [사례 2]

그냥 불편함 없이 얘기해요. 뭐든. [사례 4]

누나한테 다 말해요. 너무 제가 말을 많이 해서 귀찮아할 때도 있지만 중요한 얘기는 집중해서 들어줘요. [사례 5]

누나랑 형이랑은 고민은 얘기 안 하고.. 게임 같은거 하거든요. 그래서 게임 얘기를... 재밌고 좋아요. [사례 6]

동생이 제가 폰을 보고 있으면 딱 옆에 붙어요. 그리고 괴롭혀요. 계속 괴롭혀요. 이제 몸무게 차이도 별로 안 나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했어요. 동생들 때문에 힘들 때 참다가 엄마한테 얘기해요. 그러면 엄마가 혼내주거든요. [사례 9]

### 〈표 52〉 의사소통과정 : 개방적 정서표현

- 일상생활에서의 여러 가지를 이야기함. [사례 5, 6, 7, 8, 18]
- 고마움을 표현함. [사례 1]
- 속상하고 힘들 때 이야기함. [사례 2, 12]

본 연구 사례에서는 가족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나 속상하고 힘든 이야기를 가족과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등 개방적인 정서 표현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지만, 함께 있을 때는 주로 자녀가 부모에게 자신의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평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여 자녀가 느꼈던 외로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족 간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솔직하게 이야기하여 도움을 받아 해결한다.

### ③ 상호 협력적 문제해결

가족 간의 상호 협력적인 문제해결은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문제를 공유하고,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탄력적인 가족은 문제가 없는 가족이 아니라, 문제나 갈등을 잘 다루는 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표 53〉 의사소통과정 : 상호 협력적 문제해결

#### 발췌문

아빠가 일하시다가 벽에 부딪혀서 다치신 적이 있는데... 아빠가 밥도 안 먹고 피곤하다고 잠만 주무셔서.. 옆에서 말도 같이 하고. 아프지 말라고도 얘기했어요. [사례 7]

각자 방에서 폰 봤어요. 엄마랑 아빠랑 싸워서요. 그래서 힘들었는데... (어떻게 했어?) 대화로 해요. 대화로요. [사례 8]

힘들었어요. 그때 서로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노력하면서... 해결하기는 했어요. 조금씩은 하고 있어요. [사례 9]

아직은 크게 힘든 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속상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서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먼저 물어도 봐주고 아니면 제가 말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도 얘기해주시고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 주시고 제가 스스로 해야되는 부분은 제가 찾아서 스스로 해결하기도 해요. [사례 10]

속상하거나 힘든데 일하시느라 없으면 영상통화로 해결해요. [사례 18]

〈표 54〉 의사소통과정 : 상호 협력적 문제해결

- 사건이 발생하면 가족 모두 함께 이야기함. [사례 7, 8]
- 문제에 대해 서로 노력하고 해결함. [사례 9, 10, 18]

본 연구 사례에서는 아빠가 다쳤을 때 자녀가 옆에서 말동무가 되어주고, 위로해 준 것, 부모님이 싸웠을 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격려하고, 속상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속상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영상통화를 통화하는 등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는 가족 구성원 간의 협력적인 해결 과정의 모습으로 볼 수 있으며, 부모의 갈등으로 인한 싸움이나 개인적인 걱정, 그리고 가족에게 닥친 힘든 일을 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의사소통과정을 요약하면, 가족 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성원들이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상황을 파악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자녀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가족은 일상 대화로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고,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여 해결하고 있으며, 구성원 간 협력적 해결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본 연구대상자들은 부모의 부재, 관계 악화, 가족 내 갈등,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가족 구성원들의 소통과 이해, 지지를 통해 가족 레질리언스를 강화하였다. 가족들은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긍정적 시각, 초월과 영성을 통해 가족신념체계를 강화하였으며, 규칙과 약속, 역할 안정성, 변화와 적응, 연결성, 사회·경제적 자원을 활용하여 조직유형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성, 유연성, 결속력을 향상시켰다. 이러한 요소들은 아동이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으며, 특히 맞벌이가정 아동이 부모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가족 자녀의 일상생활과 가족 레질리언스를 분석하였으며,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일상생활 분석결과, 평일에는 학교, 센터, 가정이 주된 보호 체계로 작용하며, 주말에는 가족이나 친인척, 종교활동 등 비공식적인 돌봄이 주를 이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모의 출퇴근 시간과 센터 운영시간의 불일치로 인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들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보호와 교육을 제공하지만, 돌봄 공백과 불일치 문제가 여전히 존재했다.

가족 레질리언스 분석결과, 가족들은 소통과 이해, 지지로 레질리언스를 강화하였으며,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긍정적 시각, 초월과 영성을 통해 가족신념체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규칙과 약속, 역할 안정성, 변화와 적응, 연결성, 사회·경제적 자원을 활용하여 가족의 조직유형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맞벌이가정의 시간적 여유 부족으로 인해 부모-자녀 간 질적인 대화가 어려워 아동의 내면적인 대화가 부족하였고, 가족 레질리언스 요소 중 의사과정이 취약하였다.

이러한 일상생활 분석결과와 가족 레질리언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함께돌봄센터

의 보호 체계는 아동의 안정성과 성장을 지원하지만, 돌봄 공백 문제는 가족 레질리언스에 도전 과제를 제시한다. 부모의 출퇴근 시간과 센터 운영시간의 불일치는 가족 내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가족 레질리언스를 약화시킬 수 있다. 맞벌이가정의 아동들은 부모와의 질적인 대화 시간이 부족하여 가족 레질리언스 요소 중 의사과정이 취약하므로, 부모-자녀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부모교육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정책적 지원, 돌봄센터의 운영시간 확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가족 레질리언스를 강화할 수 있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 방과 후 돌봄교실, 아이돌보미 등 사회적 자원의 활용은 맞벌이가정 아동의 생활 안정성에 기여하며, 이러한 자원들의 효과적인 활용이 아동의 일상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족 레질리언스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3. 다함께돌봄센터 돌봄 프로그램 분석

본 연구는 다함께돌봄센터의 돌봄 프로그램이 맞벌이 가족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들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맞벌이 가족 자녀의 일상생활과 가족 레질리언스를 분석하여 돌봄서비스의 효과를 규명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며 아동의 안전과 발달을 지원하고 가족 레질리언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지역 내 대표적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는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가 있다. 이들 중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하는 돌봄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5>와 같다.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만, 프로그램의 초점과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주로 일반아동의 돌봄 공백을 지원하며, 맞벌이가정을 우선순위로 돌본다. 이 센터는 수익자 부담 구조를 채택하고 프로그램 운영의 개방성을 유지하며, 일시돌봄 기능도 제공한다. 학습지원과 창의적 놀이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학습지원, 독서 활동, 창의적 놀이 및 체험 활동, 방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지만,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해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에 한계가 있다. 특히 방학 동안 운영시간에 제약이 있으며, 서비스 연계 측면에서 이동의 문제도 있다. 또한, 지역마다 운영 주체와 예산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의 질과 양에 편차가 있으며, 전문인력 부족 문제도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취약계층 아동의 돌봄 공백을 지원한다.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방과 후 학습지원, 생활지도, 심리 상담, 문화 및 예체능 활동, 급식 제공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러나 프로그램 운영이 경직되어 있고, 재정적 지원이 불안정하여 지속·가능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이용자의 낙인 효과가 우려되며, 서비스 연계 측면에서 이동의 문제가 있다. 많은 센터가 좁은 공간에서 낙후된 시설로 운영되며, 재정적 지원이 일회성으로 그치거나 불안정한 상황이다.

방과후 돌봄서비스 모두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 이동 문제 등 운영에 공통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자체 직영 운영으로 예산이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지역아동센터는 재정 구조가 열악해 안정성을 보장받기 어렵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중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높은 만족도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은정, 2019). 다함께돌봄센터는 학습지원과 창의적 놀이활동에 중점을 두며, 지역아동센터는 학습지원, 생활지도, 심리 상담, 문화 및 예체능 활동에 중점을 둔다.

〈표 55〉 지역사회 기반 돌봄서비스의 특성 비교

구분	프로그램	한계
다함께 돌봄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숙제 도와주기, 기초 학습 강화 프로그램.</li> </ul> </li> <li>◦ 독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서 시간 운영, 책 읽어주기 활동.</li> </ul> </li> <li>◦ 놀이 및 체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창의적 놀이, 미술, 음악, 체육 활동.</li> </ul> </li> <li>◦ 방학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학 중 특별활동 프로그램, 현장 학습 등.</li> </ul> </li> </ul>	<p>자원 부족 지역 편차 전문인력 부족</p>
지역 아동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과 후 학습지원, 보충 수업.</li> </ul> </li> <li>◦ 생활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 생활 습관 교육, 예절 교육.</li> </ul> </li> <li>◦ 심리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서적 지원, 개별 상담 및 집단 상담.</li> </ul> </li> <li>◦ 문화 및 예체능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악, 미술, 체육 등 다양한 취미 활동.</li> </ul> </li> <li>◦ 급식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녁 식사 및 간식 제공</li> </ul> </li> </ul>	<p>취약계층 집중 공간 및 시설 부족 지속적인 지원 부족</p>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본 연구에서는 각 센터당 돌봄교사 1인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두 센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A센터의 지역 인구 및 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센터는 산업단지 유입로에 위치해 있어 맞벌이 가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지만, 아이들의 수는 적은 편이다. 관내 초등학교의 전교생은 150명 정도로 소규모이며, 주변에 학원이 없어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되면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돌봄 인프라로 센터는 학교와의 연계성이 높아 학교 방과 후 돌봄의 참여도 또한 높으나 주변에 학원이 없어 센터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물리적 환경으로 인해 센터 내 프로그램 제공에 제약이 있으며, 건물 옥상에 펜스를 높게 설치하여 야외 스포츠를 지원하고 있었다. 이는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A센터는 기초 학습활동인 교과연계 학습지도를 중점으로 학원을 대신하여 기초 또는 선행교육이 진행되고 있었다.

둘째, B센터의 지역 인구 및 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센터는 대도시 중심가에 위치하며, 주변에는 학원이 많은 편이고 초등학교가 과밀학급에 해당, 이에 학부모의 학

구열이 매우 높은 편이다. 둘째, 돌봄 인프라로 센터는 학원이 많아 이동이 잦은 편으로 틈새돌봄의 기능이 강하다. 지역사회 연계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적, 물적 자원 연계를 통해 특별활동으로 예체능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제공된다. 셋째, 물리적 환경이 센터에서 제공되는 지침의 기준에 적합하여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안전하게 제공하고 있었다. B센터는 사교육이 높은 편으로 최대한 센터에서는 쉬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며,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체능을 다양하게 접하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정서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었다.

맞벌이 가족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과 프로그램 개선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돌봄 프로그램은 한계가 있는데 A 센터는 학원 부족으로 기초 학습활동에 집중하지만 물리적 환경 제약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이 어렵고 B 센터는 학부모의 학구열과 과밀학급 문제로 아동들이 충분히 쉴 시간이 부족하고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개선 및 향상을 위해 맞춤형 교육 및 소통 프로그램, 정서적 지원 및 쉬의 공간 제공,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부모와 자녀 간 소통을 증진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가족 내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유대감을 강화한다. A 센터는 물리적 환경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실내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B 센터는 과도한 학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쉬의 공간을 제공하며 예체능 프로그램으로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한다. 각 센터는 지역적 조건과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동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킨다. A 센터는 기초 학습활동 외에도 놀이와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활동을 추가하고 B 센터는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정서적 안정을 위한 쉬의 공간과 활동을 늘린다.

이처럼 센터에서 부모-자녀 간의 소통 증진, 부모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아동의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아동들의 일상생활과 가족 레질리언스를 개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맞벌이 가족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일상생활과 가족 레질리언스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수행된 질적 연구이다. 이는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 놓인 환경과 상황을 질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연구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 1. 결론 및 논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일상생활은 어떠한가의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아동의 가정생활은 학원 또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종료된 시간부터 다음날 등교 전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본 연구대상자 20가족 모두 맞벌이 가족으로 각 보호자의 퇴근 시간이 아동의 돌봄 공백의 시간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과 보호자와의 시간 또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호자 모두 늦은 시간에 근무가 마치는 가정의 경우에는 형제, 자매 또는 부모의 허락하에 친구와 있거나 가족과 같은 비공식 돌봄 제공자들과 함께하는 경우가 많았다. 첫 번째로, 형제 또는 자매와 보호자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경우로 사례 [A, B, C, E, F, H, O, R] 가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로는 가족과 같은 비공식 돌봄 제공자들로 사례 [K, G, N] 으로 많았다. G사례는 동거하는 조모가 돌봄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 K, N 사례는 동거하지 않는 조모가 돌봄을 제공하고 있었다. 세 번째로는 부모의 허락하에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사례 [D, P] 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부모와 아는 사이로 편하게 왕래를 하는 사이인 경우로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사례 [J] 는 아이돌보미를 활용하여 간헐적으로 돌봄의 공백을 채우고 있었다. 그 밖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은 사례로 [I, L, M, S, T] 는 5명의 아동이 해당되며, I의 경우에는 동생이 태어나면서 어머니의 직장을 이직(파트타임)함으로써 공백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동생을 돌보는 시간을 중점적으로 할애함으로써,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적은 편이다. 사례 L, M, S, T는 부모 둘 중 아동이 센터 또는 학원이 마치는 시간에 맞춰 퇴근하여 공백이 발생 되지 않았다.

활동의 내용으로는 주로 TV를 보거나 숙제하기, 동생과 놀기, 게임, 독서 등의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린 집안일로 시간을 보내는 등 정서적인 교류의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맞벌이가정이면서 주말부부 그리고 자녀가 혼자인 상황에서는 부모가 자녀와 사전 연락을 통해 혼자 간식을 먹고 부모를 기다리거나 독서, 숙제 등의 시간으로 보내고 있

었으며 긴급한 경우 공적 돌봄서비스인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했다.

둘째, 아동의 학교생활은 기존 방과 후 돌봄교실을 다니고 있었으나 B학교의 내부공사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어 학교로부터 다함께돌봄센터를 안내받아 이용하고 있으며 센터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A학교를 제외한 방과 후 돌봄을 이용하는 아동은 총 3명으로 평균 1시간을 이용하고 있었다. 정규수업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면 보호자가 없는 시간이 존재함으로써 학교와 방과 후 돌봄교실은 나홀로 아동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다함께돌봄센터 생활은 학교의 정규수업과 방과 후 돌봄교실을 마치고 동시에 학원 또는 센터로 이동한다. 총 20명의 아동이 센터에 있는 시간을 평균 3.6시간으로 나타냈으며 학기 중으로 센터의 표준 운영시간을 감안하면 많은 시간을 센터에서 보내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센터에서는 학기 중으로 간식만 제공되고 있었으며 교과목지도, 숙제지도,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고 있어 센터에 머무는 시간에 따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는 맞벌이가정에서 엄마가 집에 있었다면 해주었을 일상에서 필요한 돌봄을 센터에서 대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아동이 학원을 이동하기 전후의 짧은 시간 동안에도 본 센터의 돌봄을 받을 수 있어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이 제공되고 있었다.

넷째, 아동의 학원생활은 아동 스스로 도보가 가능한 10분 이내의 위치에 있는 학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학원을 다니고 있는 아동은 총 13명이며, 이 중에 학원에 머무르는 시간은 평균 1.6시간으로 나타났다. 13명 중 3명을 제외한 10명의 아동은 센터 친구들과 함께 도보로 이동하고 있었으며, 3명은 학원 차량을 이용해 귀가하고 있다. 맞벌이가정으로 보호자가 근무지에 있을 시간이므로 아동의 거리를 최소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부모님께 받은 일정표에 따라 시간을 기록하여 센터에서 학원까지 안전한 이동 및 귀가를 보장하는 역할을 지원하고 있었다.

다섯째,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로 평일에는 학교와 센터 그리고 가정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다함께돌봄센터가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주말인 경우, 가족이나 친인척 등에 의한 비공식 돌봄과 종교가 주를 이루었다.

아동의 보호체계가 없는 시간은 부모의 이른 출근으로의 공백 또는 학원 그리고 센터가 종료되는 시간 이후부터이며, 이는 맞벌이가정 특성상 부모의 출·퇴근 시간이 아동이 방치되는 시간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이 방치되는 시간을 분석한 결과, 평일의 경우 부모가 부재하며 다른 보호체계로 대체하는 시간은 평균 11.3이며, 주말의 경우에는 평균 5.4시간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일과 주말에 보호체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시간을 분석한 결과, 돌봄 공백에 노출된 아동은

총 20명 중 평일 6명, 평균 2.6시간, 주말은 10명, 평균 8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보호체계가 없는 시간으로, 부모의 이른 출근으로 인한 공백 또는 학원, 그리고 센터가 종료되는 시간 이후부터이며, 이는 맞벌이 가정의 특성상 부모의 출·퇴근 시간이 아동이 방치되는 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가족의 형태 및 구성원에 따른 방치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맞벌이가정 중 한부모가족이 2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으로 모자가족의 경우에는 근무일의 변동이 없어 돌봄의 공백은 없으나 부자가족의 경우에는 근무형태가 교대근무로 공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경우 조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조모가 계심으로 부모 모두 평일, 주말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으로 아동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가족은 평균 평일 2시간, 주말 12시간으로 보호체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은 시간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경우 평일과 주말에 부모가 부재한 시간은 평균 평일 13시간, 주말 16시간이지만 조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보호계는 존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말부부의 가족은 2가족으로 두 가족 모두 아버지가 타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에는 2가족 모두 보호체계가 존재하고 있으나 부모가 부재한 시간은 평균 11.3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주말에는 부모가 부재하면서 보호체계 존재하지 않는 시간으로 평균 4시간이 나타났다.

평일 다함께돌봄센터가 끝나는 시간 이후에도 공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다함께돌봄센터가 맞벌이가정 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각 보호체계가 존재함에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통해 돌봄센터가 끝나는 시간 이후에도 가족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시간을 보호자의 근무시간을 포괄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여 표준화된 운영시간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운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즉 맞벌이가정의 보호자를 위한 실질적 운영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긴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간대나 아동이 서비스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 중에도 발생 가능한 돌봄 공백을 중단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통합 돌봄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함께돌봄센터가 맞벌이가정 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부모들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시간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가족 레질리언스는 어떠한가의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대상자인 아동들 모두 맞벌이가정으로 이들의 위기 경험은 부모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 부모의 관계로 인한 어려움, 가족 내 다양한 갈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재로 인한 어려움 [사례 1, 2, 3, 5, 6, 7, 12, 14, 16] 과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 [사례 2, 5, 6, 7, 8, 9, 10, 12, 16] 를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먼저 보호자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에는 형제 또는 자매와 보호자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경우와 친척 또는 비공식 돌봄 제공자들에 의한 돌봄 등이 해당된다. 또한 취업 한부모가족 또는 주말부부 가족의 아동이 집에 홀로 남겨지는 상황에서의 이들이 겪게 되는 의식주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홀로 아동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아동의 증가는 현대사회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나홀로 아동에게 부모의 부재는 한 가족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장애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로 부모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부재 또한 큰 어려움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족 간 역할의 변화에서 오는 어려움을 원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예상치 못한 사건과 사고에 직면하면서도, 낙담하기보다는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러한 과정에서 가족들은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가족 레질리언스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가족신념체계는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사례 2, 4, 5, 9, 10, 19] 로 나타났다. 가족에게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고 적응하는 과정은 힘들었으나 부모님과 친인척 등과 같은 비공식 돌봄 제공자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가족 관계 개선으로 이어졌다. 역경의 극복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사례 1, 2, 3, 5, 6, 7, 8, 9, 10, 12, 16] 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고, 현재의 힘든 상황을 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 더 나은 상황을 위해 극복해 나가고 있었다. 해결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대화를 통해서 가족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수용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자 하였다. 초월과 영성 [1, 5, 9, 12, 14, 16, 18, 19] 에서의 신앙활동은 안정적인 가족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를 가진 연구대상자들은 종교 생활을 하거나 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과거의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신념으로 해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신념은 연구대상자들에게 심리적,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제공하였으며, 초등학생 고학년인 대상자들은 아직 신의 존재를 인식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자신만의 신념을 통해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셋째, 조직유형에서의 융통성은 연구대상자 대부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칙 [사례 1, 2, 3, 4, 5, 8, 9, 10, 12, 18, 19] 이 많이 나타났으며 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또한 나타났다. 한편 가족 중에서도 부모와의 교류가

적어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가족은 정해진 규칙이나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약속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변화와 적응 [사례 2, 5, 6, 7, 9, 10, 11, 14, 18] 으로는 가족에게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가족들이 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화를 시도하거나 현실적인 조건으로 인한 상황에서도 최대한으로 수용해서 변화에 적응하고자 하였다. 새로운 환경으로 변화되었을 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넷째, 본 대상자 가족의 의사소통과정에서는 개방적 정서표현 [사례 1, 2, 5, 6, 7, 8, 12, 18] 이 많이 나타났다. 아동의 일상생활에 대한 대화를 많이 나누었으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솔직하고 간단명료 [사례 1, 2, 3, 4, 5, 7, 8, 9, 10, 14] 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대상자 가족들이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주말부부 가족,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을 때 아동들은 주로 부모에게 자신의 일상생활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며 소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부족으로 인한 외로움의 발로로 볼 수 있었다.

다섯째, 본 연구를 통해 발견된 가족 레질리언스는 가족들이 위기를 경험할 때,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현재의 힘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더 나은 상황을 위해 희망을 품고 극복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대부분은 사회 및 경제적 자원의 지원(개인적 자원으로 친구와 친지, 사회적 자원으로 학교와 방과 후 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기타 아이돌보미 등)을 받고 있어 학교, 센터 그리고 가정에서 벗어나지 않고 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 진다. 연구대상자 모두 맞벌이가정으로 아동과 부모와의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실질적으로 아동이 생활에 필요한 질문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자녀 간 소통에 있어서 질적으로 높은 대화가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아동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 등 내면적인 대화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가족 레질리언스 요소 중 의사과정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며 자녀와 부모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강화하고 가족에게 다양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제공되는 돌봄 프로그램의 내용을 논의하고자 한다.

맞벌이 가족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과 프로그램 개선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A센터와 B센터는 각각의 지역적 특성과 한계로 인해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 및 소통 프로그램, 정서적 지원 및 쉼의 공간 제공, 그리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A센터는 산업단지 유입로에 위치해 맞벌이 가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나, 아이들의 수가 적고 주변에 학원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기초 학습활동에 집중하고 있으나, 물리적 환경의 제약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이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내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놀이와 창작 활동을 추가하고, 제한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반면, B센터는 대도시 중심가에 위치하여 학원이 많고 초등학교가 과밀학급인 상황이다. 학부모의 학구열이 높아 아동들이 충분히 쉴 시간이 부족하다. 따라서 B센터는 쉼의 공간을 제공하며 예체능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과도한 학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맞춤형 교육 및 소통 프로그램의 강화를 들 수 있다. 부모와 자녀 간 소통을 증진하고 가족 내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부모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소통의 기회를 늘리고, 가정 내에서의 협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둘째,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쉼의 공간을 마련하고, 예체능 및 창의적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센터는 기초 학습활동 외에도 놀이와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활동을 추가하고, B센터는 정서적 안정을 위한 쉼의 공간과 활동을 늘려야 한다. 셋째, 각 센터는 지역적 조건과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동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A센터는 학습지도 외에도 다양한 놀이와 창의적 활동을 제공하고, B센터는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정서적 안정을 위한 쉼의 공간과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방안을 통해 다함께돌봄센터가 가지는 기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 즉, 다함께돌봄센터 프로그램의 개선과 함께 맞벌이가정 아동의 일상생활이 더욱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가족레질리언스가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함께돌봄센터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부모-자녀 간 소통증진, 부모와의 협력 강화, 아동의 정서적 지원 향상,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내용 증가 등과 같은 개선이 이루어질 때 맞벌이 가족의 돌봄공백 최소화,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등이 가능해질 것이다.

## 2. 제언

첫째, 본 연구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보호체계의 일부만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보호체계 서비스의 이용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여, 현재 우리나라 아동의 보호체계에 따른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동의 환경과 생활에 적합한 보호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통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호체계 서비스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호체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와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필요하며,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호체계 서비스를 개선하고, 아동의 보호와 성장에 더욱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가족 고유의 레질리언스를 깊이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한계점이 있었다. 가족 레질리언스는 아동의 개인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가족의 문화와 가치관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동과 그 가족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과 가족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가족의 문화와 가치관, 가족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족 레질리언스를 분석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가족 레질리언스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동의 개인만이 아닌 가족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한 가족 레질리언스 분석은 더 의미 있는 연구로 결과가 도출되어 질 것이다.

차후 연구에서는 아동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맞벌이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보다 포괄적인 건강가족 관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도출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수택. (1997). 일상생활의 개념과 일상 생활론의 역사. **사회과학연구**, 15, 115-130
- 강현정. (2005). **초등학교 아동 아동의 일과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 [석사학위논문,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경상남도교육청. (2024). 2024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 교육부. (2018a). 온종일 돌봄 선도사업, 10개 시·군·구 공모. 교육부 보도자료.
- 교육부. (2018b). 2018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교부 보고. 교육부.
- 교육부. (2018c). 돌봄서비스 연차별 확대계획. 교육부.
- 교육부. (2020).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개정판).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 (2021). 온종일돌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국무조정실. (2023). 제 17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보도자료.
- 김경옥. (2018.). “‘새 초등돌봄 대책도 역부족’ 사표 쓰는 직장맘들.”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7573.html](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7573.html)
- 김은정·홍진주·정세미·김현진. (2019). 지역사회 초등돌봄 체계구축을 위한 사회적경제 모델 연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김진숙. (2013). 애착 이론의 내적 작동 모델과 상담적 적용점. **상담학연구**, 14(4), 2485-2507.
- 김경순. (2010). **이혼여자 한부모 가족의 가족레질리언스가 모의 심리적 안녕 및 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모자보호시설 입소자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김미애. (2021). **은퇴한 교장 생애에 나타난 역경과 개인 및 가족 레질리언스 행 복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 김미옥. (2001). 장애아동의 가족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7, 34-70. <http://www.kasw.org>
- 김보경. (2003). **고등학생들의 소비문화취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선혜. (2015). 초등학교 돌봄서비스의 목적 논의: 공공성과 아동 자기결정의 자유에 근거하여. **한국초등교육**, 26(4), 515-535.
- 김수미. (2018). **사회복지기관의 윤리경영이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노인장기요양시설 종사자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김안자. (2009). 가족레질리언스가 가족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27, 73-101. DOI : 10.16975/kjfs.w.2009..27.003
- 김영란·조선주·선보영·배호중·김진석·정영모. (2018). 초등학생 돌봄 실태 및 수요조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윤채. (2001). **초등학교 아동의 일상과 생활공간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은정. (2007). **가족레질리언스가 위탁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김은정·장수정·정영모·오신휘. (2019).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공급 체계 분석과 정책 과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종식. (2000). **창원지역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의 학교 외 활동 분석**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 김주현. (1994). **도시지역 [자기보호아동](Latchkey child) 을 위한 방과후 탁아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지경·김균희. (2013).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공백 유무 및 일수의 결정요인**.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4(1), pp.51-70.
- 김현욱. (2008). **초등학생 별명문화와 또래관계 유형 및 또래지위와의 관계 분석**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김현정a. (2003). **우리나라 유아의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현정b. (2023). **화가 이중섭 생애에 나타난 작품경향과 생태체계 및 가족레질리언스 연구** [박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대학원].
- 김희강. (2018). **돌봄: 헌법적 가치**. 한국사회정책, 25(2), 3-29.
- 노방환. (2013). **노인복지관의 실내외 환경적 요인이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서비스 품질의 매개효과 분석** [박사학위논문, 서남대학교 대학원].
- 노성향. (2016). **초등돌봄 연구 경향 분석**. 아동중심실천연구 13(1), 55-74.
- 류연규. (2012). **가족의 돌봄 공백에 대응하는 돌봄의 사회화 정책의 성격 규명**. 비판사회정책, 3(7), 113-153.
- 류정희·이상정·전진아·박세경·여유진·이주연·이봉주. (2019). **아동종합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숙재·윤소영. (2003). **맞벌이 주말부부의 생활시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213- 220.
- 박무성·정민자. (2015). **이혼 예방을 위한 예비부부교육 요구도 분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4(3), 263-295.
- 박혜란·전귀연. (2012). **가족 레질리언스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현황과 과제**. 한국생활과학회지, 21(6), 1059-1081. DOI : 10.5934/KJHE.2012.21.6.1059
- 방과후학교포털시스템. (2021). <https://www.afterschool.go.kr/intro/care/careInfo1s2.d>
- 방현주·윤경자. (2006). **기혼 남녀의 레질리언스 (Resilience) 예측성 연구: 부부폭력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4(12), 127-137.

- 배순오. (2000). **초등학교 아동의 방과후 시간 활용 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광주대학교 경상대학원].
- 배은경·김성완·김정화. (2017).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 관련 외상경험 및 소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 (resilience)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회복탄력성(resilience)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5(1), 63-89.
- 백경흔. (2015). 여성주의 논의 확장을 통한 ‘아동중심적’ 아동돌봄 제도로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 **아동과 권리**, 19(1), 1-25.
- 변기찬. (1998).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파리지역 노동자 가족의 일상생활. **중앙사론**, 11, 533-558.
- 변영인. (2006). 현대가정의 역기능성 문제와 그 회복. **지역사회**, 54, 30-35.  
<http://www.riss.kr/link?id=A76461202>
- 보건복지부. (2018a). 다함께돌봄 4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 자료집.
- 보건복지부. (2018b). 2018년도 아동종합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2021a).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
- 보건복지부. (2021b). 2021년 지역아동센터지원 사업안내a.
- 보건복지부. (2021c). 2021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22a). 2022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23a). 2023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23b). 2023년 학교돌봄터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23c). 2023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24). 2024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 서울시교육청. (2002). 2022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a.
- 서혜전. (2012). 방과 후 방치와 아동의 공격성, 위축, 우울과의 관계에서 독서의 매개효과. **아동복지연구**, 10(3), pp.25-41
- 성태숙. (2021). 아동 돌봄 영역의 커뮤니티어 정책 고찰.
- 송다영·장수정·백경흔. (2017). 희망서울 행복가족: 서울가족보고서.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송순인. (2010). **정신장애인 가족스트레스와 가족 적응간의 가족탄력성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송혜림. (2012). 남성의 일-가정 양립 실태와 요구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2).1-18
- 송혜림. (2014).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정 균형 실태: 초등학교 저학년생 자녀를 둔 가정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3), 41-59.
- 송혜림. (2015). 일-가정 균형감과 행복도: 영유아기 자녀를 둔 기혼취업여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9(3), 81-99.
- 시사경제신문. (2022). 저출산해법·③ 출산·육아정책 “공적돌봄 의지 없으면 미래도

- 없다”. 시사경제신문 (sisanews.kr).  
<https://www.sisa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90095>
- 신정순·신유리·곽경희·한익희·이태영·오판식·박진숙. (2020). 돌봄교실의 효과적 운영 방안.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 신호정. (2016).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후 시간이 가지는 의미. *방과후아동지도연구*, 13(2), 25-43.
- 아동권리보장원. (2022). 2021년 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 아동권리보장원. (2023a). <https://dadol.or.kr/>
- 아동권리보장원. (2023b). 2022년 12월말 기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현황 보고서.
- 아동권리보장원. (2023c). 2023년 학교돌봄터 사업안내.
- 아동권리보장원. (2024).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 안순옥. (2008). **가족탄력성이 재혼가족 부부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안연선·전혜정. (2010). 알코올 중독자 가족의 가족탄력성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3), 155-174. UCI : G704-001334.2010.15.3.008
- 양인실. (2009). **중학교 학생들의 사교육 문화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여성가족부. (2024). 2024년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침.
- 여수륜. (2013).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일상생활과 가족 레질리언스에 대한 질적 분석[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 오승아. (2002). 장애아동 가족의 수입, 내구력, 누적 스트레스, 의사소통, 가족적응에 대한 구조모델검증.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0(9), 175-189. UCI : G704-000012.2002.40.9.012
- 오시영, & 전주성. (2016). 초등돌봄교실 전담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 분석. *한국교육문제연구*, 34(3), 177-197.
- 유계숙·최연실·성미애. (1999). **가족학 이론**. 서울: 문음사.
- 유순희·정민자. (2013).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가족 레질리언스에 대한 질적분석. *Human Ecology Research(HER)*, 51(6), 603-612. DOI : 10.6115/fer.2013.51.6.603
- 유영아. (2007). **또래문화가 중학생의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상징적 상호작용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 유용식. (2007). 치매노인가족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38, 31-50. DOI : 10.21194/kjgsw.38.200712.31
- 육아정책연구소. (2021). 코로나19 대응 초등돌봄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 윤수희. (2004). **가족 탄력성이 치매노인 부양가족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윤옥분. (2023). **초등돌봄서비스의 거점통합 모델 사례 분석:경상남도교육청 거점 통합돌봄센터 ‘늘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정책전문대학원].
- 이경미. (2009).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가 경험하는 하루 일과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금희. (2005). **청소년 놀이문화에 대한 이해: 여수 지역 중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여수대학교].
- 이미애. (2018). **지역아동센터이용자의 실태와 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 이민아. (2006). **가족탄력성이 정신분열병 환자 가족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이봉주·조미라. (2011). 방과후 방치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36, pp.7-33.
- 이봉주·조아라. (2011). 방과후 방치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36, 7-33.
- 이상우. (2009). **중소도시 사립중학교 학생들의 순응, 저항 그리고 희망 : 학생문화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접근**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 이선애. (2004). **만성질환아동가족의 가족탄력성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이수민. (2019). “전업맘은 수시로 만나 친분 쌓던데...우리 애만 소외될까 워킹맘은 불안해요” 서울경제. 10면.
- 이은희. (2000).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맞벌이 남녀의 대처전략과 결혼만족도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5, 288-314. <http://www.kasw.or>
- 이은희. (2009). 생활스트레스에 대한 결혼이민자 여성의 적응 연구: 탄력모델을 적용하여. **한국가족복지학**, 14(1), 73-94. UCI : G704-001932.2009.14.1.007
- 이재희·김근진·엄지원. (2017). **초등자녀 양육지원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재희. (2018). **초등 자녀 방과후 돌봄 지원방안**. 이슈페이퍼 2018-02.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혜숙·이영숙. (2021).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사업의 서울시 운영 전략**. 서울연구원.
- 임유미. (2007). **이혼 여성 한부모가족의 가족탄력성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임혜정. (2017a). 패널순서형로짓모형을 이용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방과후 돌봄 공백 영향요인 분석. **보건사회연구**, 37(4), pp.510-534.
- 임혜정. (2017b). 패널순서형로짓모형을 이용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방과후 돌봄 공백 영향 요인분석. **보건사회연구**, 37(4), 510-534.
- 장수정. (2020). **초등 돌봄 서비스에 대한 분석-돌봄 민주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67(1), 125-152.

- 장혜경·황정임·최인희·김영란·주재선·김소영·김수지. (2015). 2015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계획. 보도자료
- 정경필. (2004). **초등학생 게임문화의 성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 정민자. (2013). 나홀로 아동(청소년)의 보호체계와 지역사회네트워크.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 정민자. (2016). 저소득층 조손가족의 십대 손자녀가 지각한 역경과 가족 레질리언스에 관한질적 분석. **복지상담교육연구**, 5(1), 21-41.
- 정민자·윤경원. (2016).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위인의 최근 동향 분석.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16(11), 1311-1336. DOI : 10.22251/jlcci.2016.16.11.1311
- 정민자·윤선아. (2014). 다문화가정의 모의 특성과 가정환경변인이 유아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84, 259-282.  
UCI : G704-000724.2014..84.009
- 정부 24. (2023). 돌봄서비스 소개
- 정수경. (2010). 가족 레질리언스: 역경을 이기는 힘. **사회과학논총**, 26(1), 1-15.  
UCI I410-ECN-0102-2012-300-001756736
- 정영모. (2019). 초등돌봄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월간 복지동향**. 25(2). 13-18.
- 정영모. (2021). 정부 부처 ‘간’ 온종일 돌봄 정책 비교 및 시설 연계 강화 방안. **문화와 융합**, 43(2), 691-703.
- 정책브리핑. (2022). [www.korea.kr](http://www.korea.kr).
- 조영선. (2005). **치매노인 부양가족의 부적응에 관한 연구: 가족탄력모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정미라. (2018). 비밀보장 갈등상황에서 전문상담교사의 대처행동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A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on the coping behavior of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s in confidential conflict situations.
- 주은선. (2014). 노동인가, 돌봄인가, 여가인가? -전일제 임노동자 맞벌이 부모의 시간배분에 대한 젠더 영향과 학력의 조절효과. **사회복지연구**, 45(3), 5-34.
- 주은선. (2016). 합의적 질적 연구-사회과학 현상 탐구의 실질적 접근. 서울: 학지사.
- 최영규. (2021). **사회적기업 종사자의 사회적 가치, 시장지향성이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영향: 협조적 행동 매개효과와 변혁적 리더십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신라대학교 대학원].
- 최영. (2019). 문재인 정부 방과후 초등돌봄 정책의 개편 내용 및 방향. 참여연대 월간복지동향(2019.).
- 최옥채·박미은·서미경·전석균. (2015).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경기: 양서원.
- 최은지. (2020). 라면 화재 형제는 돌봄 공백 문제...교육복지사 늘려야. 연합뉴스

- 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
- 통계청. (2019a). 2019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통계청.
- 통계청. (2019b). 방과 후 나홀로 실태. <https://kosis.kr/statHtml/>.
- 통계청. (2020a).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http://mdis.kostat.go.kr>.
- 통계청. (2020b). '자녀돌봄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평일시간대(복수응답)'.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154001\\_083&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154001_083&conn_path=I2)
- 통계청. (2024). 2023년 출생·사망통계(잠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7). 근로환경조사 보고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초등학교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의 돌봄 공백 실태와 정책적 대응 방안.
- 한선영. (2015). **회복탄력성, 일-삶 균형과 직무만족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홍나미·정익중. (2019).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시론. **사회복지연구**, 50(3), 5-31.
- 홍우림. (2007). 초등학교의 일생생활 구조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한국초등교육연구**, 18(1), 268-287.
- 홍정남. (2007). **알코올중독자가 지각하는 가족탄력성이 회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대학원].
- 황동섭. (2013). **알코올중독자 가족의 스트레스와 가족적응에 관한 연구: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위덕대학교 대학원].
- Antonovsky, A. & Sourani, T. (1988). Family sense of coherence and family adapt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1), 79-92.
- Barnard, C. P. (1994). Resiliency: A shift in our perception?.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2(2), 135-144
- Berger & Luckman. (1966).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in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A Treatise in the Sociology of Knowledge*.
- Black, S. W., Grych, J. H., McDaniel, M. A., & Conger, R. D. (2008). Resilience processes in families: Development and preliminary validation of the Family Resilience Scal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5), 726-737.
- Cambridge Dictionary.  
<https://dictionary.cambridge.org/ko/%EC%82%AC%EC%A0%84/%EC%98%81%EC%96%B4-%ED%95%9C%EA%B5%AD%EC%96%B4/care>
- Casper, L. M., & Smith, K. E. (2004). Self-care: Why do parents leave their children unsupervised?. **Demography**, 41(2), pp.285-301
- Cowen, C. P., & Hetherington, E. M. (1991). Family resilience: A conceptual framework.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1(4), 567-575.

- Cowan, P. A., Cowan, C. P. & Schulz, M. S. (1996). Thinking about risk and resilience in families. In M. Hetherington & E. A. Blechman(Eds), Stress, Coping and resilience in children and familes. Mahwah, NJ: Erlbaum.
- Coyle, J. P. (2005). **An exploratory Study of the nature of family resilience.**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 DeQueiroz, E. (1987). 'Everyday life and social theory' in Sociological Theory.
- Durkheim, E. (1912). Les règles de la méthode sociologique. PUF.
- Elliot, A. J. (1999). Approach and avoidance motivation and achievement goals. **Educational psychologist, 34**(3), 169-189.
- Elias, N. (1939). Über den Prozeß der Zivilisation: Soziogenetische und psychogenetische Untersuchungen. Suhrkamp Verlag.
- Elias, N. (1994). The civilizing process: Sociogenetic and psychogenetic investigations. (Oxford, UK: Blackwell).
- Erickson, E. H. (1993). Childhood and society. W·W·Norton & Company. 윤진, 김인경 역. (1997). 아동기와 사회: 인간발달 8단계 이론.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Eyles, J. E. (1958). 'The construction of the social world' in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 Freud, S. (1900). The Interpretation of Dreams. Hogarth Press.
- Geertz, C. (1973). 문화.
- Giorgi, A. (Ed.). (1985).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Pittsburgh, PA: Duquesne University Press
- Goffman, E. (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Anchor Books.
- Greene, Galambos, & Lee (2004). Resilience: A Review and Conceptual Framework. **Journal of Social Issues, 60**(3), 537-558.
- Hawley, D., & Dehaan, L.(1996). Toward a definition of family resilience: Intergrating life-span and family perspectives. **Family Process 35**(2), 283-298.
- Held, V. (2006). Care ethics: New perspectives on ethics in nursing and caring. **Journal of moral education, 37**(3), 265-279.
- Heller, A. (1971). 'Everyday life as a form of life' in The Sociology of Everyday Life
- Herrmn, H., Stewart, D. E., Grandos, D. N., Berger, E. L., Jackson, B., Yuen, T. (2011). What is Resilience? **Th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56**(5). 266-272.
- Hill, C. E., Thompson, B. J., & Williams, E. N. (1997). A guide to conduct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5**,

517-572.

- Hill, C. E., Knox, S., Thompson, B. J., Williams, E. N., Hess, S. A., & Ladany, N. (2005).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n updat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2), 196-205.
- Hill, C. E. (2011).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 practical resource for investigating social science phenomena.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ill, C. E. (2016). 합의적 질적 연구: 사회과학 현상탐구의 실질적 접근 (주은선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12에 출판)
- Husserl, E. (1962). Ideas Pertaining to a Pure Phenomenology and to a Phenomenological Philosophy, Second Book: Studies in the Phenomenology of Constitution (Translated by R. Rojcewicz & A. Schuwer). Kluwer Academic Publishers.
- Lee Manning., M. (2002). Revisiting Developmentally Appropriate Middle Level Schools. **Childhood Education**, **78**(4), 225-227.
- Lincoln, Y. S., & Guba, E. G. (1985). Effective Evaluation (4th ed.).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cation
- Lin, S. L. (2000). Coping and adaptation in family of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Exceptional Children**, **66**, 201-218.
- Luthar, S. S., Cicchetti, D., & Becker, B.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3), 543-562.
- Maffesoli, M. (1979). 'The time of the tribes' in Temps Modernes.
- Maslow, A. H. (1954). Motivation and Personality. Harper & Row.
- Merriam-Webster (2006). Merriam-webster Online Dictionary. Retrieved from [www.m-w.com/dictionary](http://www.m-w.com/dictionary) on June 30, 2006.
- McCubbin, H. I., McCubbin, M. A. & Tompson, A. I.(1933). Resiliency in families : the role of family schema and appraisal in family adaption to crises, 153-177. In T. H. Brubaker(ed), Family Relations: Challenge for the future.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McCubbin, H. I. & McCubbin, M. A. (1988). Typologies of resilient families: Emerging roles of social class and ethnicity. **Family Relations**, **37**, 247-254.
- McCubbin, H. I. (2001). Family resilience: A theoretical perspective. In H. I. McCubbin & P. H. Guerin (Eds.), Handbook of family resilience, 3-20.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ead, M. (1962). A cultural anthropologist's approach to maternal deprivation.

- Public Health Papers, 14, 45-62.
- Minuchin, S. (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OECD (2019). *OECD Labor Force Statistics 2019*. Paris. OECD.
- Piaget, J., & Inhelder, B. (1969). *The psychology of the child*. New York: Basic Books.
- 김재은 역. (1983). *피아제의 아동심리학*. 경기: 교육과학사.
- R. Elliott, (1989). "Comprehensive process analysis: Understanding the change process in significant therapy events," *Entering the Circle: Hermeneutic Investigations in Psychology*, 165-184.
- Schutz, A. (1967). *The phenomenology of the social world* (2nd ed.). Evanston, IL: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 Silliman, B. (1994). *Rational for resilience families concept paper*. National Network for Family resiliency.
- Singer, G. H. S. & Powers, L. E. (1993). *Families, Disability, and Empowerment*. Paul H. Brookes Publishing Co.
- Sixbey, M. T. (2005). *Development of the family resilience assessment scale to identify family resilience. a dissertation presented for the Graduate school of university of Florida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University of Florida.
-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Vol. 15). Newbury Park, CA: sage.
- Tilbury, C. (2004). The influence of performance measurement on child welfare policy and practice,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34**, 225-241.
- Valentine, L. (1929). *Everyday life' in The sociology of literature*.
- Valentine, L., & Feinauer, L. L. (1993). *Reality and my thin family life:Changes across generation*. **Journal of Psychotherapy and the family** **4**.
- Walsh, F. (1998). *The Resilience of the Field of Family Therap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4**. 269-271.
- Walsh, F. (2002). *가족과 레질리언스*. (양옥경, 김미옥, 최명민 공역). 나남. (Original work published 1998)
- Weston, K. (1991). *Families we choose: Lesbians, gays, and kinship*.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
- Wolin, S., & Wolin, B. (1993). *Resilience: A concept analysis*. **Nursing Outlook**, **41**(2), 96-101.
- Wright, L. M., Watson, W. L., & Bell, J. M. (1996). *신념 : 가족과 질병의 치유의 핵심*. 기본 도서. *Beliefs: the heart of healing in families and illness*. New York:Basic Books

## 부 록

###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맞벌이 가족 자녀의 일상생활과 가족 레질리언스에 대한 질적분석>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질문지는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정민자 교수님 지도하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맞벌이 가족 자녀의 일상생활과 가족 레질리언스에 대한 질적분석을  
연구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이 조사에서 여러분이 말씀해주신 사항은 연구의 목적 이외에 어떠한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연구목적을 위해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의 면접내용을  
녹음하고 기록하여 자료로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연구가 유익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솔직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3년 00월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 전공

연구자 : 임수영

문의처 : 010-4561-1738

[uufamily76@hanmail.net](mailto:uufamily76@hanmail.net)

지도교수 : 정민자

## 면접질문지 (기관 담당자용)

### I. 서비스체계

- ▶ 이용 아동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 이용 아동과의 친밀을 위해 어떠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 ▶ 이용 아동의 가장 큰 장·단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 이용 아동의 성적과 성격은 어떠한가요?
- ▶ 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성적 향상에 긍정적인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 아동이 하교 시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나요?
- ▶ 아동의 부모님과의 교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 이용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돌봐주었으면 하나요?
- ▶ 이용 아동이 취약가정으로 판단될 때, 어떻게 보호되어야 할까요?
- ▶ 센터 이용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네트워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 이용 아동과 학교를 연결하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나요?
- ▶ 센터에서 일어난 일들을 학교에서 관여하고 있나요? (한다면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나요?)

### II. 기관특성

- ▶ 본 기관에 다니는 아동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 ▶ 본 기관에 다니는 아동들의 이용 빈도는 어떻게 되나요?
- ▶ 본 기관의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 기본운영 시간 외,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있나요? (부모의 부재, 어떻게 아동을 관리하나요?)
- ▶ 본 기관에서는 보호자와의 교류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 본 기관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나요?
- ▶ 본 기관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 본 기관만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 본 기관이 가지는 한계점은 무엇이 있나요?
- ▶ 본 기관이 목표로 하는 기대효과는 무엇이 있나요?
- ▶ 본 기관의 강점과 취약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 다른 기관과 연계를 한다면 어떠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나요?
- ▶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아동을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 ▶ 특수한 가정환경의 아동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혹시 본 기관에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 ▶ 앞으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I. 사회·인구학적 특성

- 성별 :  연령 :  
 가족형태 :  학년 :  
 가정경제형편 :

관계	연령	직업	동거여부

## II. 일상 생활

- ▶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나요?
- ▶ 일주일 중 어떤 날에 혼자 남겨지나요? (가족들은 주로 어떠한 상황으로?)
- ▶ 가정에 혼자 남겨진 경우 부모님께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계시나요?
- ▶ 가정에 혼자 남겨진 경우 부모님께서 주로 어떻게 하셨나요?
- ▶ 센터 제공 외 식사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나요?
- ▶ 학교교육 이외에 어떤 교육활동을 하고 있나요?
- ▶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주로 어떻게 지내나요?
- ▶ 부모님과 대화는 어떠한가요?
- ▶ 부모님에게 고민을 이야기 한 적이 있나요? (어떤 고민..?)
- ▶ 부모님이 퇴근하면 어떻게 시간을 보내나요?
- ▶ 부모님이 공부지도는 어떻게 봐주고 계시나요?
- ▶ 부모님이 친구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 ▶ 주말, 공휴일에 부모님과 어떻게 지내시나요?
- ▶ 기관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어떤 이유로 다니게 되었나요?
- ▶ 학교를 가지 않는 날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온다면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나요?
- ▶ 다함께돌봄센터를 다니면서 가장 즐거운 시간은 언제인가요? (느낀점)
- ▶ 다함께돌봄센터를 꾸준히 다니고 싶나요? (그렇다면, 이유)
- ▶ 다함께돌봄센터에 다니는 친구들과 함께한 경험(공연이나 발표회 등)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나요?
- ▶ 다함께돌봄센터에 함께 다니는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 ▶ 다함께돌봄센터 선생님과 관계는 어떠한가요?
- ▶ 다함께돌봄센터에서의 공부가 자신의 학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 ▶ 다함께돌봄센터를 다니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은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 다함께돌봄센터 선생님에게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 한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주세요.
- ▶ 다함께돌봄센터를 다니지 않았다면 그 시간에 무엇을 했을 것 같나요?
- ▶ 다함께돌봄센터를 다니기 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달라졌다고 생각하나요?

## 면접질문지 (센터 이용 아동용)

### I.가족 레질리언스

#### [조직유형]

- ▶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하루는 어떠한가요?
- ▶ 자신이 잘하는 것(장점)은 무엇인가요?
- ▶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자신의 성격은 어떠한가요?)
- ▶ 형제자매 중 몇째인가요? 가족 중 서열로 매기자면 몇 순위인가요?
- ▶ 가족 모두가 지켜야 할 규칙이나 가족이 해야 할 역할에 따른 약속들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 ▶ 필요할 때는 규칙을 바꾼 적이 있었나요?
- ▶ 가족이 함께하는 일들은 무엇이 있었나요?
- ▶ 가족이 함께 무언가를 할 때 자신의 기분은 어떠한가요?
- ▶ 가족은 어떤 때 더욱 잘 모이고 힘을 합치는 것 같나요?
- ▶ 가족 중 어떤 한 사람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가족 모두는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나요?
- ▶ 가족 중 한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이나 좋고 싫은 것에 대해 가족 모두가 인정해주는 편인가요?
- ▶ 당신의 부모님 관계는 어떠한가요?
- ▶ 함께 사는 가족 외에 친척이나 친구 같은 지역 안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있나요? 있다면 누구이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 가족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어떤 일을 했나요?
- ▶ 혹시 가족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가족에게 생기는 어려움(누군가의 질병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을 바꿀 수 있나요?

#### [의사소통과정]

- ▶ 가족 내 의사소통이 어떠한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 ▶ 가족 개개인마다 각자의 말하기 방법은 어떠한가요?
- ▶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가족의 대화방법은 똑같은 방법으로 유지되나요?  
아니면 바뀌나요?
- ▶ 대화 방법에 대해 서로 불만이나 불편함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 ▶ 속상하거나 힘들 때, 또는 기쁠 때 가족은 어떻게 대화하나요?  
그 감정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나누나요?
- ▶ 가족에게 닥친 어려움을 해결할 때 가족들은 어떤 방법으로 대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나요?

## [가족신념체계]

- ▶ 가족이 함께 살면서 겪었던 어려움이 있었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 ▶ 그 어려움은 우리가족에게 무엇을 가져다주었나요?
- ▶ 가족들이 그 어려움에 대해서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였나요?  
(표현하기 힘들다면 어려움에 대한 가족들의 점수를 매겨보세요.)
- ▶ 그때 가족들은 어떻게 대처했나요?
- ▶ 가족이 어려움을 이겨냈다면 그 후에 가족들에게 달라진 것이 있었나요?
- ▶ 또 다른 큰 어려움이 닥친다면 가족들이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 나의 가족이 다른 가족보다 강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 ▶ 가족에게 함께 믿는 종교가 있나요? 꼭 종교가 아니더라도 어떤 것을 함께 믿는 등의 영성(영감)을 나누는 의식들이 있나요?
- ▶ 가족이나 조상 중에서 당신이 역할모델(내 삶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 자신이 닮고 싶어 하는 사람, 혹은 생활 속의 영웅)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 인가요? 그리고 왜인가요?

## **Abstract**

### **A Qualitative Analysis of the Daily Life and Family Resilience of Children of Working Families, Who Use Together Care Centers**

Lim, Soo-young  
Child and Family Welfare  
University of Ulsan  
Supervised by Prof. Jung, Min-ja

This study aims to minimize caregiving gaps, strengthen family resilience, and promote children's growth and development by analyzing the daily lives, family resilience, and care programs of children from dual-income families who use Together Care Center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from June 12 to 30, 2023, using a semi-structured questionnaire. The study involved 20 elementary school-aged children and two caregivers who utilize two care centers in Ulsan Metropolitan City. This research followed a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 comprising an initial phase, case analysis, cross-analysis, and manuscript writing.

The conclusions and discussion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analysis of children's daily routines revealed that school, the care center, and home are the primary caregiving systems on weekdays, while informal care predominates on weekends. Despite the positive role of the centers for children from dual-income families, gaps in care were identified due to inconsistencies in parental commute times, center hours, and family patterns. Therefore, supporting policies for parental work-life balance, expanding center hours, customizing operations, and integrating care for children from working families are necessary.

Secondly, findings on family resilience among children using Together Care Centers indicated low-quality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inadequate internal dialogue among children in these families, necessitating alternative arrangements. Hence, there is a need to enhance tailored parental education on communication with children using the centers, as well as to identify and provide diverse topics and content for families.

Thirdly, while the centers offer care programs encompassing basic activities, common activities, basic learning activities, and special activities based on children's preferences, limitations were noted depending on local conditions and environments. Therefore, centers should develop programs that reflect local contexts and environments, support children's growth and development in working families through customized care aligned with children's preferences, enhanced parental collaboration, and emotional support programs.

Future research should aim to enhance the well-being of working families by addressing the needs of all family members holistically, rather than focusing solely on children. This approach would offer a more comprehensive perspective on family health.

Keywords: Together Care Centers, Daily routines, Family resilience, Elementary after-school care policy, Child care programs